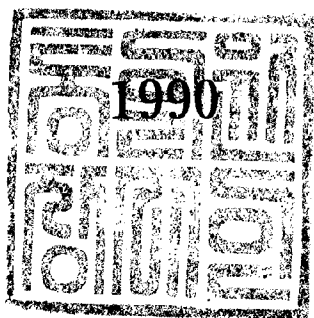


3-55
5092

國統調 90—12—107

南北韓 社會文化力量 綜合評價



1002

院 一 統
室 研 查 調

책을 내면서

南北韓이 分斷以後 각기 相反된 政治理念과 政治·經濟的 制度에 토대를 둔 體制成立으로 相異한 社會文化를 形成해온 지도 벌써 45年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南과 北의 社會는 生活의 모든 領域에 걸쳐 서로 다른 方向에서 현저한 變化를 경험하였다.

불행하게도 南北分斷 45年의 歷史는 對立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이로인해 民族的 底力의 상당한 部分을 소모시켜 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南北에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고 循環構造를 회복시킴으로써 韓民族共同體形成을 위한 새로운 民族史를 개척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南北韓의 實體를 정확히 評價하고 潛在力量을 상호 客觀的으로 비교함으로써 統一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서로 異質的인 體制를 갖춘 南·北韓社會를 비교하고 그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南北韓間의 體制的 對決과 競爭的 狀況, 아직도 변함없는 北韓의 對南赤化統一 戰略 등 우리가 당면한 제반 要件을 전제할 때, 우리는 相對的 立場에서 北韓을 理解하고 나아가 兩體制가 지닌 強·弱點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同 冊子는 이상과 같은 諸般 問題點과 方法論上의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하면서 兩體制的 社會力量에 대한 比較分析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冊子에 收錄된 특수과제용역 論文들은 필자 자신의 見解일 뿐 우리원의 公式見解와는 無關한 것임을 밝혀둔다.

1990. 12.

總 目 次

1. 南北韓 社會體制 力量評價	1
2. 南北韓 社會體制 強弱點 分析	31
3. 南北韓 住民 意識構造 比較	133
4. 南北韓 青少年의 社會化 過程 比較	193

南北韓 社會體制 力量評價

서 성 우
(통일원 조사연구실)

— 차 례 —

- I. 序 論
- II. 力量評價의 分析들
- III. 南北韓 社會 力量 評價
- IV. 結 論

I. 序 論

南北韓이 分斷以後 각기 相反된 政治理念과 政治·經濟的 制度에 토대를 둔 體制成立으로 인하여 相異한 社會文化를 形成해온 지도 벌써 45年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南과 北의 社會는 生活의 모든 영역에 걸쳐 서로 다른 方向에서 현저한 變化를 經驗하였다.

불행하게도 南北分斷 45年의 歷史는 對立과 갈등으로 집적되어 왔으며 民族的 저력의 상당한 부분을 서로를 부정하고 서로를 파괴하기 위한 競爭으로 소모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南北韓의 實體를 正確히 比較 認識하지 못한 데서 과당경쟁이 있었고 그 어느 한쪽에 대한 過少評價 내지 過大評價가 있었음을 否定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南北에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고 순환구조를 회복시킴으로써 韓民族共同體形成을 위한 새로운 民族史를 開拓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南北韓의 實體를 正確히 評價하고 潛在力量을 相互客觀적으로 비교 함으로써 統一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事實上 서로 異質的인 體制를 갖춘 南·北社會를 비교하고 그 力量을 측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더우기 社會力量에 대한 概念自體가 理論的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兩體制는 각기 體制의 구성원리와 체제 유지의 메카니즘(mechanism)을 달리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南北韓의 力量比較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간의 體制的 대결과 競爭的 狀況, 아직도 변함 없는 北韓의 對南赤化統一戰略등 우리가 당면한 제반 여건을 전제할 때, 우리는 상대적 입장에서 北韓을 理解하고 나아가 兩體制가 지닌 強·弱點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규명은 統一을 대비한 상호 이질화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當面한 現實的 要求가 南北韓의 力量比較에 대한 科學的 分析을 끈질기게 強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研究가 몇 차례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그 結果에 있어서는 단순한 南北韓 現況 비교에 머무는 등 根源的인 한계성을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本考는 이상과 같은 諸問題點과 方法論上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감안하면서 現在까지 力量評價方法으로 개발된 方法등을 활용하여 兩體制의 社會力量에 대한 比較分析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力量評價의 分析틀

本考는 北韓力量에 대한 국한된 分析이 아니라 南北韓力量에 대한 比較評價를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研究方法論上으로 볼 때 力量을 比較할 수 있는 客觀的 基準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理論的 觀點이 必要하다.

즉, 두 개의 社會를 力量 中心으로 比較하려고 할 때에 의지하여야 할 分析의 틀(analytical framework)을 위한 개념도식(conceptual scheme)과 그것에 基礎한 說明의 틀—理論을 形成하는 작업에 주안을 두고—여기에서 構成한 分析틀이 지정하는 주요 변수 또는 지표들을 比較 檢討하려는 理論的인 接近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本考는 南北韓 社會體制가 지니고 있는 客觀的인 現況을 두 體制의 力量을 比較할 수 있는 틀에 대입하여 力量을 評價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體制가 지니고 있는 力量을 評價할 수 分析틀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R. Aron 교수는 個人과 國家의 차원에서 力量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한 個人의 힘이란 그의 행동능력이며 무엇보다도 他人들의

행동이나 감정에 影響을 미치는 能力이다. 國際的 狀況에 있어서 힘은 어떤 政治單位가 그의 意思를 다른 政治單位에 부과할 수 있는 能力으로 規定하고자 한다. 政治權力이란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人間關係이다 ”

이러한 그의 견해에 의하면 力量이란 特定한 目的을 전제로 한 概念이며 ‘특정한 體系가 스스로 내세운 目標을 성취할 수 있는 能力의 程度’인 것이다.

따라서 ‘社會力量’이라 하면 이는 特定한 目標과 關聯해서 人間의 社會的 행동 및 社會現狀을 기대하고 所望하는 方向으로, 그리고 의도하는 양태에서 유도하는 原因이라 規定할 수 있다.

이를 細部的으로 살펴 보면 ① 社會的 安定과 發展을 도모하는 社會的 統合能力을 保存하는 힘, ② 社會問題를 解決하고 社會秩序를 維持하는 潛在的 힘, ③ 社會的 變化를 야기하기 위하여 社會文化的 諸要素를 動員하는 힘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그러한 힘의 源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立場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A. Etzioni는 社會力量을 가리켜 “特定社會가 스스로 自身の 집합적 目標을 設定하고, 計劃된 變動에 의하여 이에 도달할 수 있는 能力으로서 이는 단순한 反應적 적응능

력이나 非計劃的 變動과는 區分되는 體制 自體의 活成度”를 의미한다고 정의함으로써 社會力量은 곧 ‘自己調整力’ 내지 ‘自己轉換能力’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社會力量을 社會全體의 能力으로 看做할 때 이는 ‘社會全體의 維持·發展에 要求되는 諸般役割遂行을 合理的이고 効率的으로 處理할 수 있는 力量’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具體的 技能面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細分될 수 있다.

첫째는 自體生成의 能力으로서 體制가 일정한 環境속에서 體系內外的 要求와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維持 存續시키기 위하여 產出하는 力量을 뜻하며, 여기에는 ① 統合力, ② 規制力, ③ 象徴力이 包含된다.

둘째는 要求·反應的 能力으로서 體系가 體制內外的 要求에 순응하기 위하여 產出하는 能力을 말하며 이는 다시 ① 安保能力, ② 配分能力, ③ 抽出能力, ④ 革新能力, ⑤ 관용능력, ⑥ 反應能力 등을 包含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體制能力의 構成部分들은 서로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상호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연속적 파급효과를 가짐으로써 하나의 고리를 형성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제대로 作用하지 못할 때 그 體制內에 는 교란이 일어나고 體制力量이 弱化할 可能性이 커지게 된다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社會力量에 대한 見解를 綜合하여 여기에서는 南·北韓 사이의 體制的 特性을 반영하면서도 상호간의 比較基準이 될 수 있는 '社會力量'의 지표로서 ① 體制維持機能을 擔當할 能力과 ② 體制保存·體制擴張·體制克服의 機能을 擔當할 能力으로 크게 區分하고 이러한 兩大機能遂行과 연관된 體制能力을 다시 細分하여 다음과 같이 區分하였다. 즉,

① 個人的 欲求充足能力(生活水準, 自我實現, 社會的 機會提供 選擇의 自由 등)

② 社會的 秩序維持能力(統合力, 規制力, 象徴力, 價値配分, 사회일탈, 사회부조리현상 등)

③ 社會的 動員能力(情報能力, 同意形成能力, 社會組織化能力 등)

④ 綜合的 能力評價(상호인속적 互惠효과)가 그것이다.

이러한 分析基準을 南·北韓體制가 지향하는 目標價値, 社會經濟的 基盤, 그리고 政治的 權威構造가 각기 相反되기 때문에 事實上 方法論上的 制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나 可能的 南北韓의 現狀況에 입각한 客觀的 比較에 충실하고자 한다.

Ⅲ. 南北韓 社會力量 評價

1. 個人的 要求充足能力

한 體制의 力量은 우선 全住民이 物量的 가난에서 脫피하여 經濟的인 최소한의 欲求를 充足시킨다는 소극적인 면에서 부터 보다 풍요한 生活條件을 充足한다는 積極的인 면에서 表現된다.

그러나 人間의 삶이 物質的 豊요로만 完成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精神的인 만족, 心理的 安정을 누리는 狀態에서만 自我實現, 自我完成이라는 窮極的 價値가 達成될 수 있으므로 社會力量은 人間본연의 가치추구 면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現代의 社會發展理論에서는 이러한 '삶의 質'의 向上이 國民全體에 均고루, 자유로이 配當되어야 한다는 發展의 目標價値를 병행시킴으로써 社會力量은 平等의 社會정의와 選擇 및 決定의 自由를 擴大한다는 면에서도 나타난다.

個人的 欲求充足의 能力을 中心으로 본 南·北韓의 社會力量을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基本的 生活條件 充足은 그 國家의 文化的 傳統과 經濟水準, 그리고 個人的 期待水準에 의하여 決定된다.

우선 食生活水準을 보면 南韓은 아직까지 우리의 傳統的 生

활법습이 그대로 傳承되는 가운데 解放以後 1950年代에 이른바 절량농가, 춘궁기 등의 用語가 대변해 주듯이 초근목피로 연명할 정도로 심각한 食糧難을 겪었으나 1960年代 들어와 1次 5個年 計劃과 함께 食糧의 自給自足を 目標로 한 意欲的인 食糧增産政策의 實施를 계기로 食生活 구조에도 일대 전환점이 到來, 量的 充足의 段階를 넘어 食生活 패턴이 다양화·서구화되는 質的 成長의 段階로 접어들었다.

특히 1970年代 以後 세대들의 食生活패턴은 점차 서구식으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趨勢로 이러한 趨勢의 變化는 食品消費 패턴의 變化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즉, 과거의 主穀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육류, 채소, 과일, 소맥 加工食品의 消費가 급격히 增加되고 있다.

반면에 北韓은 社會主義 政權 樹立後 지금까지 農業生産體制의 社會주의화를 통해 “농업경영의 수리화, 電氣化, 綜合的 機械化 및 化學化” 등 農業近代化를 推進하여 어느 정도의 成果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食生活에 있어서는 食品加工 및 處理技術, 저장수단이 全般的으로 落後되어 있는데다 중앙당국의 生産과 供給에 있어 철저한 통제로 각종 食品의 適時供給이 원활치 못함으로써 食生活의 向上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1982年 김일성의 시정연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農水産部門을 최전면에 내세움으로써 食生活 關聯部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쌀은 공산주의”라고까지 宣言할 정도로 農業部門의 開發은 시급한 課題로 제기됐다.

더우기 “衣·食·住라는 말을 食·衣·住라고 하는 것이 더 正確하다”고 한 金日成의 敎示는 北韓의 食生活難의 심각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

金正日도 “옷이나 집 같은 것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住民의 衣食住生活 가운데 食生活 問題의 解決이 최우선 課題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食生活難으로 인해 각자의 기호에 맞는 食生活를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配給基準을 對象者の 身分, 職責, 勞力工數, 對象地域, 配給時期 등에 따라 각기 차등적 配分을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北韓은 質·量的 面에서 生活手段이 부족하고 選擇·決定의 자유가 없는 반면에 生活費 負擔에 있어서는 南韓보다 낮은 편이다.

住居生活에 있어서는 南北韓 공히 住宅難을 겪고 있는데 南韓의 경우 1960年度만 하더라도 住宅補給率이 82.5%나 되

있으나 해마다 不足現象이 심화되어 都市政策의 가장 큰 問題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人口增加率에 비해 住宅供給率이 크게 뒤지는 데다 核家族化 傾向에 따라 家口數의 增加率이 人口增加率을 훨씬 상회하는데 기인되고 있다.

또한 經濟發展과 함께 工業型으로 產業構造가 급격히 變化됨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급증, 都心の 住宅難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南韓은 이러한 住宅難 解決을 위해 1982年부터 國民住宅의 大量建設이 推進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외곽 수도권의 시가지화를 통해 수도권외곽으로의 인구분산으로 住宅難 解決을 꾀하고 있으나 雇傭의 機會와 教育與件이 集中되어 있는 現狀況에서는 수도권으로의 人口流入은 가속화될 展望이다.

이러한 事情은 北韓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北韓은 住宅建築率이 經濟發展을 대변하는 진시적 기능이 크고 南北韓 社會比較의 중요한 徵表가 된다는 점에서 1970年代以後 平壤, 남포, 원산, 함흥 등 大都市中心으로 現代式 高층아파트를 新築하고 農村의 文化住宅을 2층 3세대용, 3층 5세대용으로 다양화하고 외형은 文化的으로 보이도록 하는등 주거양식에 상당한 關心을 보여 왔다.

그러나 平壤 등 大都市와 特定地域의 現代式 高층아파트 建

設에 中 結果 一般住民用 住宅建設 實績은 크지 않으며 資材의 不足과 建設技術의 落後 및 住宅의 規格化·集團化 施策으로 인한 住居生活 空間이 全般的으로 협소하고 住宅의 內·外粧도 거의 획일화되어 있다.

이상의 比較에서 볼 때 南韓은 70%를 약간 웃도는 住宅 補給率에도 불구하고 住宅은 이제 잠자는 곳이라는 認識에서부터 生活의 즐거움, 여가, 편리, 쾌적한 環境을 부여하는 現代的 概念으로 바뀐 반면 北韓은 아직도 住宅이란 단지 居住하는 空間으로 認識되고 있다.

또한 體制의 상이함에서 오는 特徵이긴 하나 주택배정에 있어 南韓은 자기의 經濟的 形편과 취향에 따라 住宅을 취사선택할 수 있으나 北韓은 國家的 統制에 의해 住宅이 階層에 따라 規模와 施設에 차이가 있게 供給되기 때문에 個人의 취향에 맞추어 選擇할 수가 없다.

이러한 北韓의 실정은 앞으로 自足的 統制經濟가 어느 정도 完화된다고 하더라도 基本的으로 重工業 우선정책이 繼續될 것이기 때문에 生活水準面에서 큰 變化가 오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둘째, 自我實現 欲求의 達成水準에 있어서 北韓의 社會力量에 는 基本的으로 많은 問題가 있다.

人間에게는 自我實現 또는 自我完成이 궁극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自我實現要求의 充足과 關聯해서 北韓에서 發表되는
각종 公式 文書와 北韓體制의 構成原理, 그리고 實際的인 住民
生活實態를 살펴 볼 때 北韓社會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個人的
存在라는 것이 완전히 組織 속에 埋沒된 하나의 個體로서만
存在할 뿐이다.

全體主義的인 住民統制라든가 集合主義的 組織原理에 입각한
集團主義的 生活原理은 個人 活動을 集合體 속에다 완전히 埋
沒시키고 있으며 더우기 계속되는 政治思想學習과 각종 總화회
의, 노력동원과 노력경쟁의 強化는 個人活動에서 틈을 許容하
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私生活이라던지 자유시간같은
것은 거의 용납될 수 없는 것이 現實이다.

이러한 狀況 下에서 자유의 概念이라든가 自我實現이란 것은
조직 組織속에 종속되는 자유와 組織속에 埋沒되는 自我만이
깎뎠기로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흔히 北韓社會가 平等原理에 입각하고 있고 經濟的인
상대적 평등도가 높다고 하지만 社會階層 構造에서 社會的 地
位의 決定이 出身成分과 金日成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左右되
기 때문에 社會的 平等과 安定이란 결국 自生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政治的인 強制와 外在的인 統制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根本的으로 心理的 불만 요소를 除去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실사 北韓式 政治社會化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戰後世代라 할지라도 '강제내의 순응'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不可能한 것이다.

北韓社會에서 問題되고 있는 각종 不條利現象 즉, 組織生活 기피, 노동혐오, 학습기피 등은 政治社會化(革命意識 고취)가 人間의 本性을 根本的으로 뒤바꿀 수 없다는 것을 證明해 주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어느 時代, 어느 社會를 막론하고 人間의 生活에서 要求되고 強調되어 온 自我實現中心의 주관적 가치내용 가운데에는 愛情, 人情, 友情, 眞實性, 信仰心, 自我, 個性, 自己尊重, 自己滿足, 자신감, 정서적 안정, 성적만족, 쾌락, 社會的 認定, 人氣, 成功, 富, 職位, 명성, 威光, 개성, 자유, 안녕, 여가 등 많은 要求가 包含되고 있는데 北韓에서 공언하거나 강조하는 주관적 가치항목을 보면 이러한 가치내용들이 거의 言及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를 白眼視하여 배제되어 있고 심지어 統制되어야 할 對象으로 規定한다.

社會力량의 신장이란 面에서 볼 때 北韓은 自我實現의 要求

를 集團主義的 體制原理 밑에 埋沒시키고 있는 現實的 條件이 社會發展의 한계성을 스스로 規定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 반면 南韓은 너무 지나친 인정, 방종에 가까운 자유의 구가, 상대방의 意見を 尊重하지 않는 젊은 世代의 個人主義的 성향, 확산일로에 있는 황금만능주의 등의 추구 現實은 社會秩序를 混亂시키고 生産性を 저해하는 問題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南北韓은 다같이 個人的 欲求充足能力에서 각기 體制構成原理에 입각한 問題點을 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 社會的 秩序維持能力

社會的 秩序의 維持能力이란 國家社會가 國民들과 社會團體의 行動과 要求를 規制, 中和, 지배할 수 있는 能力을 意味한다.

이러한 規制能力은 政治 社會의 安定을 기하는데 必要不可缺한 要件인 반면에 社會的 安定은 또한 社會體制의 革新을 가져오고 社會的 力量을 增大시키는 要件이 된다.

그러나 規制能力에 의한 社會秩序의 維持에 있어서는 그것이 외무적 抑壓勢力에만 依存하게 되면 顯在的 要求와 行動은 어느 한계까지 제제할 수 있으나 그 대신 外部的으로 規制할 수 없는 潛在的 要求와 不安定狀態가 그 만큼 增大할 可能性

이 많아진다.

나아가 이러한 潛在的 要求는 여러 가지 社會的 逸脫과 부조리의 原因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동조적인 潛在的 要求와 行동을 中和시키기 위해서는 規制能力의 행사주체가 國民과 團體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즉, 社會安定과 秩序維持를 위한 規制能力의 增進이란 社會體系 力量의 일차적 선행조건이 되고 있지만, 그 반면에 規制能力의 남용은 社會불안의 潛在的 原因이 되고 심지어는 體制力量을 弱화시키는 制동역할을 한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예는 北韓에서 代表的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規制能力을 適用함에 있어서 問題되는 것은 規制能力을 어느 적정선까지 許容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社會安定과 秩序를 維持해야 한다는 必要성과 社會體制的 力量增進에 有益한 社會行動을 장려해야 한다는 두가지 상호배타적 2대요건을 어떻게 동시에적으로 滿足시킬 것이냐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이런 관점에서 北韓社會의 規制能力을 보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또한 그만큼 많은 潛在的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北韓에 있어 社會的 일탈은 廣範圍한 社會통제기제에 의하여 事前에 豫防하는 길을 주로 採擇하는 것이 北韓의 社會統制政策의 方向으로서 이는 全社會的인 統制的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實際로는 많은 犯罪과 비행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社會統制機制는 첫째 '家庭의 革命化'라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家庭教育이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고, 둘째, 인민반과 5호담당제, 셋째, 각종 學校와 黨 외곽 組織들, 그리고 大衆매체, 끝으로 住居移動의 제한, 職業選擇의 제한, 職場配置의 할당규제, 여행의 제한 등 規制對象의 廣範圍와 組織化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일탈이 發生하면 역시 家族등 원초집단에 의한 비공식 統制, 각종 이차집단, 組織體를 통한 準公式的 統制 및 공안, 사법제도에 의한 公式的 統制 등으로 規制한다.

이 모든 기제들은 基本的으로 黨의 規制와 統制아래 政治的으로 지향되어 있다는 特徵이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의 社會統制가 그토록 잘 짜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反社會的 부조리현상, 社會犯罪과 비행이 만연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規制能力은 事實上 體制力의 增進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北韓의 이러한 規制能力의 逆作用은 크게 보아서 두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人間은 어느 程度의 統制와 規制는 견딜 수 있는 能力이 있지만 그 한계가 넘을 때에는 어떠한 狀況에서든 반항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北韓의 統制體制와 規制가 아무리 공고하다 하더라도 역시 人間의 統制에는 한계가 있고 완전할 수 없다는 事實이다.

이는 외형적 規制만이 아니라 내적 心理的 規制까지도 망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外的 規制가 效果를 가져 올려면 國民 각자가 스스로를 社會構成部分으로서 생각하고 일체감을 가지며 社會的 規範에 순응하는 內面化가 이룩된 '道德的 人間' (Super-ego)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內面化가 없이는 外的 規制의 效果가 무너질 可能性을 항상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北韓社會에 있어서 犯罪, 비행, 社會的 부조리와 격차, 인간소외, 탈출 등 社會問題의 種類와 양태는 資本主義 社會를 능가할 만큼 다양하고 널리 분포되어 있다.

社會問題란 원래 社會體制의 지배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社會의 犯罪라던가 부조리의 양상이 南韓과 比較하

여 각기 특유한 양상을 띄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事實이다.

이에 반해 南韓은 近代化・工業化・都市化로 인한 良機能的 변수와 함께 개방 다원화 社會라는 社會特性으로 인해 인탈의 豫防이나 規制가 不可能하며 더구나 근자에는 全般的으로 社會의 가치관의 混亂과 廣範圍한 無規範 狀態(anomie)로 말미암아 비행과 犯罪가 양적으로 增加되고 質적으로 조악해지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逆機能的인 변수를 調整하고 體制力量의 위축을 극소화하는 問題가 하나의 國家的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社會秩序 維持能力의 하나인 統合能力은 政權이 제시하는 일정한 가치지향에 대하여 社會의 각 部門과 個人 成員들이 동조하겠끔 하는 能力이라고 規定했을 때, 南北韓의 차이는 확연하다.

南韓은 우선 基本的으로 다원주의 社會이다. 다원주의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政治理念 내지 政治社會的 價値 지향에 대한 동조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理念的 다원성, 가치 지향의 다양성을 일컫는다.

이 점에서 南韓은 공식적인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 體制’라는 理念에 대한 반대와 이견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이견들을 표방하고 自身들이 信奉하는

교의나 가치를 전파 實現하기 위한 組織體들을 構成해서 活動하기도 하며 이러한 信念과 價値의 多元성은 비단 政治經濟的 體制와 直接 關聯된 것이 아닌 宗教的 신앙과 세속적 가치 지향에서도 變성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南韓에서는 政治體系의 統合能力이 100%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理念的으로 볼 때는 아직은 대다수 國民들이 國家가 주창하는 基本的인 지향을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北韓의 政治體系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統合을 형성, 維持하는 能力을 發揮하고 있다.

北韓은 1972年의 社會主義 新憲法 第4條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창조적으로 適用한 조선노동당의 主體思想을 자기 生活의 指導的 지침으로 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國民의 權利와 義務는 憲法 第48條에 規定한 바와 같이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에 基礎한다”고 集團主義原則을 強調하고 있으며 아울러 第68條에서는 “공민은 集團主義精神을 높이 發揚하여야 한다. 공민은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利益, 祖國과 革命의 利益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的 기풍을 세워야 한다”라고 못박고 있다.

여기서 主體思想은 北韓住民을 統合하는 理念的 體系이고, 集團主義는 그러한 理念的 統合의 原則이다.

이러한 原則의 遂行에는 “ 軍중노선 ” 이라는 명목의 대중동원의 極大化 方法과 각종 組織들이 철저히 擔當하고 있다.

北韓의 統合能力의 特徵은 金日成을 정점으로 하는 勞動黨의 全社會의 革命化 기도에 바로 민틈없고 어긋남이 없이 秩序가 정연하고 體系가 흔들림이 없는 社會統合機能을 政權이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 일사분란 ’ 한 統合能力은 개방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 社會에서는 거의 不可能하며 北韓과 같이 閉鎖된 社會에서만 可能하다.

北韓의 統合能力도 얼마나 현재의 閉鎖體制를 계속 維持하느냐에 그 成敗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社會的 動員能力

社會力量의 세번째 構成部分은 社會動員能力이다.

北韓은 이제까지 매년 新年사등을 통해 “ 언제나 긴장되고 動員된 태세로 祖國의 安定과 革命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 ” 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動員體制的 성격의 부각시켜 왔으며 大衆組織力과 動員能力面에서 特別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社會動員에 관한 學說중 에치오니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는 말하기를 “ 動員이란 活動單位의 立場에서 볼 때 潛在的인 에너지가 集團的 行動을 위하여 유용한 형태로 轉化하는 과정 ”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性格을 가진 「 動員 」은 그 方向이나 範圍, 또는 그 강도가 同意形成을 통하여 정당화되고 지지되지 않을 경우, 動員은 다른 權力의 행사때와 마찬가지로 疎外化를 빚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社會動員이란 이처럼 그 社會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潛在力을 발굴, 活成化하는 목표추구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자연히 權力的 측면이 強調되고 흔히 個個人的 私的 領域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중에게 생소한 革命的 理念과 目標을 强要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共產政權의 動員體制의 경우에는 一般 大衆의 疎外를 자극하고 內面的 불만을 漸積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전제로 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情報能力과 同意形成能力의 측면에서 南·北韓의 社會動員能力을 比較分析해 보고자 한다.

첫째, 情報能力에 있어서 南·北韓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情報能力은 社會的 動員의 基礎가 된다. 어떤 社會體制나 그 社會의 全體的 管理를 效率化하기 위해서는 情報, 즉 社會的 지식

(Social Knowledge) 을 수집·소화·처리하고 이를 政策決定이나 執行에 有利하게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情報의 產出能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情報의 產出者와 政策決定者가 기능적으로 分化되어 있을 때 보다 效果的이다. 만약 社會的 知識(情報)의 產出者가 自律性을 갖지 못하고 政治權力者에게 지배되는 경우, 그것은 政治性的 過剩介入에 의하여 硬直化되고 客觀性과 창의력을 상실하기가 쉽다. 물론 이느 社會에서나 全體的 脈絡에서 보면 情報產出者와 情報需要者 사이에는 다양한 연계와 意思소통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 관계가 지배·피지배의 關係로 묶어지게 되면 「改新的 情報」(Innovative information)를 기내하기 어렵고 집권자의 편향에 따른 편협된 情報만이 상향하게 된다. 따라서 情報能力을 增進하여 社會力量의 축적을 기하기 위해서는 知識의 社會的 指導가 情報產出者의 自律性을 침해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北韓의 경우를 보면 社會的 知識의 產出者와 需要者間에서 構造的 分化를 찾아볼 수 없다. 政治的 指導體制에 의하여 모든 社會的 知識이 치밀하게 統制되고 組織化된다. 또한 政治的 指導 아래에서 產出되어진 이들 情報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社會的 비판도 용인될 수 없다. 이는 結果

的으로 情報能力의 취약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셈이고 따라서 還流신호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격이 된다.

社會的 知識의 政治的 指導 또한 그 強壓的 統制로 인하여 일시적 「技術知識」의 開發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效果가 있을지 모르나 다윈적 社會情報의 수집·처리를 위해서는 逆機能的 問題點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말하자면 北韓의 경우 知識人 集團이 政府의 시녀로서 전략되고 이로써 그들의 창의적 情報產出能力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서, 韓國이 지닌 社會 情報의 다윈성과 矯正可能性은 그만큼 情報能力의 우월성을 대면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다음 同意形成能力의 면에서 南·北韓의 社會動員能力을 보면 北韓側에서 더 많은 脆弱點을 찾아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社會의 기대와 個人의 기대가 合致할 때, 또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선호의 基準이 一致할 때, 社會的 同意가 形成되게 된다. 이는 效果的인 行동을 유발하기 위한 전제가 되며 나아가 社會體制 自體의 適應能力과 轉化能力을 強化시켜주는 機能을 한다. 그런데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 보면 公산주의·전체주의체제는 高도의 처방적 管理와 強力한 組織化能力을 갖춘 반면에 同意形成 면에서는 脆弱點을 갖고 있다. 이것은 公산주의체제가 自由主義 民主主義 體制와는 달리 功利主義的 權力보다는 規範的 내지 強制的 權力에 依存하게 되며 基本的

으로 社會構成員들의 人間的 欲求보다는 體制自體의 要求에 反應하는 傾向이 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주의 體制의 가장 큰 問題點은 統制와 同意 간의 불균형인 것이다.

에 對한 北韓體制가 지금까지 철저한 共產主義式 社會化와 思想教育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同意動員을 강행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信賴의 기반은 무척 약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代替狀況에 대한 感度」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새로운 狀況에 직면하게 되면 오히려 손쉽게 既存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韓國社會의 강한 면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下向的으로 動員된 同意란 그 생명이 길지 못할 뿐더러 그 活力이 脆弱하기 때문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 社會體制의 構成原理와 그 유지장치를 전혀 달리 하고 있는 南·北韓 사이의 社會力量은 ① 個人的 要求充足能力, ② 社會的 秩序維持能力, ③ 社會動員能力 등의 3가지 측면에서 理論上으로 比較分析하는 절차를 밟았다. 특히 北韓體制가 내포하고 있는 逆機能的 제약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끝으로 여기에서 發見된 몇가지 事實들을 整理하고 그 意味를 解釋해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은 衣·食·住 등 基本的 生活條件의 充足能力, 文化的 生活水準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으며 生活의 여유, 취미생활, 自我現實, 選擇의 자유 등 「質的인 삶」의 향상정도에 있어서도 北韓을 앞질러 가고 있다. 이에 반해 北韓은 최소한 必須水準의 生活欲求 充足의 보장정도, 社會秩序 維持能力, 社會組織化能力面에서는 공식적 제도 완비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情報能力과 同意形成能力, 그리고 外部의 規制力의 행사에 있어서는 理論的 측면에서 많은 제약성과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전체주의적 動員體制를 完備하고 있는 北韓은 노력을 최대한 착취, 최대한 動員하는 대신에 勞動力을

再生産하기 위한 최소한의 生活條件에 대해서는 상대적 면에서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人力과 物量面에서 質・量的 水準이 比較的 높을 뿐 아니라 1960年代 以後의 고도성장정책에 따른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은 특기할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30여년에 걸쳐 일어난 성장일변도의 社會變動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적 부산물로서 生成되어진 社會的 희소가치의 불공평분배, 社會的 격차, 社會的 逸脫行爲, 사치, 낭비・과소비 풍조, 社會的 부조리 등 제반 社會 問題가 社會的 安定을 저해하는 要因들 로 남아있는 形편이고 工業化와 都市化에 따른 環境保存問題, 사회보장문제 등도 아직 그 解決을 재촉하는 課題들이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상황은 바꾸어 말하면 人的・物的・社會的 자원면에서 潛在能力은 풍부하나 이를 목표추구적 입장에서 최대한 活用할 수 있는 社會組織化能力이 均衡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結果를 말해준다. 결국 한 나라의 力量이란 궁극적으로 각기 體制 原理에 따라 제반구성요소 간의 상호유기적인 調和와 均衡이 이룩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個別的인 力量의 지표 그 自體의 우열을 가지고 그 國家 力量의 우열로 判斷한다는 것은 危險한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南·北韓을 比較해 보면 諸社會的 지표 간의 합치성 내지는 제반 構成要素의 充足度라는 면에서는 北韓이 오히려 잘 調整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우상의 허구성, 민족사의 날조, 민족문화말살, 인간성의 부정, 경직적 階級政策 등 金日成體制的 모순이 그러한 強壓的 조정을 어느 정도 지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향적 규제력이 지닌 逆機能的 부작용, 他律的 強制動員으로 인한 同意形成能力의 한계, 情報能力의 제약성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체제개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北韓 社會力량의 維持·보강에는 명백한 한계가 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韓國은 構造的 伸縮性과 개방성을 效果的으로 活用한다면 풍부한 社會的 資源, 技術水準, 經濟發展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급진적인 力량의 增大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南北韓 社會體制 強弱點 分析

이 온 죽
(서 울 대)

차 례

- I. 序 論
- II. 社會體制的 比較를 위한 概念들
- III. 發展 可能性에 의한 比較의 틀
- IV. 南北韓 社會體制的 體系論的
比較
- V. 南北韓 社會의 發展 可能性
比較
- VI. 結 論

I. 序 論

I - 1 . 研究 目的

우리 民族에게 있어서 쓰라린 分斷의 克服과 中國적인 民族 統合이라는 名題는 누구나 희구하는 當연한 地上課題이다. 그러나 이처럼 重大한 目標을 成就하기 위한 過程과 手段은 여러 가지 現實的인 國內外的 條件과 制約아래 추구되고 適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 社會의 일부에서 목소리높여 主張하는 것처럼 統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至高의 善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그 過程과 結果에 대한 신중한 考慮없이 無條件, 감정에 떠밀려 성급하게 推進하게 되면, 자칫,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를 초래할 危險性을 排除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理想的인 편견에서 일정한 路線만이 옳고 그르다는 價値判斷에서 나온 結論이 아니라, 극히 현실적인 觀點에서 여러가지 變數들이 作用하는 統一 推進過程이 엉뚱한 理想的, 感性的 主張들에 의하여 歪曲되고 屈折되어 南北의 우리 民族 모두의 將來를 위하여 조금도 이롭지 못한 方向으로 進行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觀察에 立脚한 見解이다.

이처럼, 考慮해야 할 要素들이 허다한 가운데에도, 基本的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點은, 南北韓의 統合은 어디까지나 〈相對〉가 疉연히 있다는 현실 認識이다. 어느 한쪽도 一方的인 감정

과 기분에 의하여 解決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며, 相對의 存在을 認定하고 그 相對의 性格과 動機에 대한 충분한 理解에 도달해야 비로소 實質的이고 有效한 統合作業을 推進할 意味가 있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南北韓 社會의 歷史的인 背景과 그로 말미암아 生成된 現象적인 特性들에 대하여, 客觀적인 資料를 가지고 냉철한 分析을 바탕으로 한 徹底한 理解가 必須的인 要件이다.

그뿐 아니라, 獨逸의 統一過程에서 經驗하는 바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關心事로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는, 장차 두 體制가 합쳐졌을 때 統一 韓國의 社會가 과연 어떤 性格의 것으로 定着할 것인가 하는 點이다. 獨逸은 여러 面에서 우리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問題는 크게 障礙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戰爭을 치르지도 않았고, 統獨過程을 主導한다고 볼 수 있는 西獨은 이미 오래전부터 各方面에서 統一後의 體制에 對備하는 變化와 體制整備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理由로 해서 現在까지는 西獨에게 거의 吸收統攝되다시피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東獨이 어떤 積極的인 反對를 提起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사정은 너무도 複合的으로 얽혀있다.

굳이 그러한 複合的인 背景을 상론할 必要는 없지만, 獨逸에 비해 統一後의 社會經濟政治的 體制에 관한 研究와 構想을 훨씬 더 시급히, 그러나 徹底하고 綿密하게 推進해야 할 처지에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離散家族들과 같이 個人的인 痛한의 經驗 때문이든지, 아니면 맹목적이랄 수 있는 理念的인 헌신몰입 탓이든지간에, 統一의 當爲性을 지나치다 할 만치 強調해 오면서도 정작 그 目標을 達成하는데 必要的 準備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印象을 강하게 받는다. 특히, 統一後의 韓國社會라는 이미지는 누구도 진지하게 論議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論議는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제는 좀 專門的으로 이 課業에 着手할 時期가 된 것 같다.

이와 같은 研究와 構想을 위해서는 南北韓의 歷史와 社會의 特性에 관한 體系的인 分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바탕하여, 現在의 南北韓 社會體制가 지니고 있는 強點과 弱點, 長・短點을 正確하게 把握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 나름의 독창적인 社會經濟 體制를 構想하여야 할 것이다. 南北韓이 共通된 歷史와 傳統을 간직하면서 서로 다른 國際的 脈絡속에 異質的인 理念과 體制를 形成, 維持해온 經驗으로 보아, 만일 우리가 그 두 體制의 長點과 短點에 대한 正確한 認識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多樣한 經驗을 살려, 서로의 弱點은 사상하고, 強點을 最大限으로 살리는 作業을 함으로써 世界史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모범적인 새로운 體制를 構成할 可能性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두 體制의 強・弱點을 比較・檢討하려고 하는 窮極的인 目標은 여기에 있다.

이 研究에서, 특별히 두 體制의 〈強・弱點〉 比較라는 用語

를 내세운 것도 실은 단순히 두 社會의 여러 側面에 대한 性格의 平面的인 比較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民族이 統合을 成就하여 새로운 社會體制를 構築하고자 할 때 되도록이면 바람직스러운 模型을 構想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어느 나라의 歷史에서 一方的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南北韓이 각기 지니고 있는 社會體制的 特性들에서 長·短點을 가려 내어 創意的으로 우리 나름의 변증법적 綜合을 試圖하는 것은 當然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다시 말해서, 一定한 價値指向을 前提하고 두 社會의 體制를 比較하려는 意圖가 깃들여 있다는 뜻이다.

勿論, 研究 方法論上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強·弱點을 평가하는 객관적 基準이 提示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一定한 理論的 觀點이 必要하다. 어쨌든, 이처럼 傳統을 共有하면서도 極端으로 異質화된 두 體制의 比較 自體는 하나의 特異한 事例로서 그 自體 意味가 있다. 그런 뜻에서, 비록 間接的으로나마, 比較·研究의 한 보기를 提供하는 것도 이 研究趣旨의 一部가 될 것이다.

I - 2 . 研究 方法

北韓 研究를 할 때에는 항상 言及하는 일이지만, 北韓에 대한 正確하고 客觀的인 社會科學的 資料의 不足은 北韓 社會研究 그 자체는 勿論이지만, 比較研究는 더욱 어렵게 한다. 가령,

南韓에서는 信賴度가 상당히 높은 統計的 資料를 구할 수 있는 內容을 두고 比較를 하고자 하는데, 北韓에서도 같은 種類의 指標를 입수할 수 있다면 많은 解明이 必要없이 그 強弱點이 資料에 의하여 곧 바로 암시될 터인데, 그런 資料의 결핍으로 결국은 間接資料에 依存하든가 아니면 많은 설명이 必要하게 된다. 勿論, 그동안 많은 研究家들이 그같은 制約에도不拘하고 北韓에 대한 여러 種類의 資料들을 蒐集, 整理하여 分析에 利用해 왔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워낙 미비한 形態의 資料이기 때문에 體系化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담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 研究가 北韓에 국한될 때에는 주어진 限界안에 그 나름으로 일정한 意味를 찾을 수 있지만, 比較 研究를 하고자 하므로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研究에서는 오히려 一種의 理論的인 接近을 試圖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社會를 強弱點 中心으로 比較하려고 할 때에 의지하여야 할 分析의 틀 (analytical framework)을 위한 概念圖式 (conceptual scheme)과 그것에 基礎한 설명의 틀, 즉 理論을 形成하는 作業에 주안을 두고, 여기에서 構成한 分析틀이 지정하는 主要變數 또는 指標들을, 入手possible한 資料가 許容하는 範圍안에서, 比較 檢討하려는 接近이다.

社會科學의 歷史에서, 比較研究 方法은 초기 고전사회과학자들의 時代로부터 매우 廣範圍하고 有效하게 利用되어 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社會科學의 비교연구 방법론을 둘러싼 인식론적, 기술적 爭點들은 계속 論爭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한국비교사회학회, 1990). 이 研究에서는 研究의 특이성에 비추어, 목적에 걸맞는 비교방법의 活用을 시도할 것이다. 우선 南北韓 < 社會體制 > 를 主要 側面과 변수로써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客觀的인 比較를 시도하고, 다음으로 두 체제의 < 強弱點 > 을 가름하는 일종의 評價的 비교 틀에 의한 저울질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그러한 차이 또는 공통성과, 強弱點들이 發生, 展開한 역사적, 논리적 比較도 곁들여 해 봄으로써 앞으로 雙方이 強點을 살리고 弱點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어떤 努力이 必要한 지를 추정해 보는 作業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研究가 그 주안점을 南北韓의 < 強弱點 > 比較에 다룬 點이 특이한만큼 주의가 必要한 側面도 있다. 여기에는 不可避하게 價値判斷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 研究가 理論的인 接近에 역점을 두게 되는 가장 중요한 理由도 실은 바로 이와 같은 價値의 問題를 方法論的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爭點에서 연유한다. 가치판단이 순전히 주관적이고 理念的인 先입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客觀性和 科學性을 어느 程度라도 確保하기 위해서는 理論的으로 탄탄한 基礎를 쌓을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업은 우리가 추구하는 統合된 體制의 性格規定을 위해서도 중요한 基礎作業이 될 수 있다.

Ⅱ . 社會體制的 比較를 위한 概念 들

Ⅱ - 1 . 一般 概念으로서의 體制

여기서 體制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意味로 使用된다. 하나는 一般體系 理論에서 말하는 體系 또는 體制 (System) 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資本主義, 社會主義 등의 理念的 體制를 뜻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一般體系 理論의 概念과 들을 우리의 目的에 맞게 정리하여 體制比較의 全般的인 윤곽을 設定한 다음, 그 틀 안에서 理念的 體制의 性格을 다시 比較하는 戰略을 採擇하기로 한다.

보통 체계라 부르는 <시스템>이라는 말은 <상관관계와 相互依存性を 띤 部分要素들로 構成된 하나의 全體>를 지칭한다. 이러한 體系의 속성은 1) 全體는 그것을 構成하는 部分要素들과도 相互依存的인 상관관계를 지닌다; 2) 이러한 상관관계로 말미암아 構成要素 또는 相互關係에 약간의 變化가 일어나도 다른 構成要素 및 全體體系가 影響을 받는다; 3) 모든 體系는 一定한 水準의 均衡 또는 平衡狀態 (equilibrium) 或은 秩序 (order) 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4) 構成要素나 相關關係에 變化가 일어나서 體系의 均衡 내지 秩序가 攪亂되는 狀態, 즉 엔트로피 (entropy) 가 發生하면, 平衡狀態를 回復하려는 變化가 일어난다; 5) 이러한 均衡 回復을 지향한 變化는 體系가 지닌 에너지 (energy) 와 情報 (information) 의 환류

(feedback) 作用에 의하여 조정된다 ; 6) 이처럼 均衡 또는 秩序를 維持하고 變化로 생긴 교란에 대처하여 一定한 範圍의 변이 (variation) 속에서 平衡狀態를 回復함으로써 體系가 破壞 되거나 크게 달라질 狀況을 防止하는 過程을 항상성 (homeo - stasis) 이라 한다 (Buckley, 1967 : 9 ; Klapp, 1973 : 4 - 5 ; 286) .

대체로 생물유기체에 適用하는 이 體系概念을 社會體系 (social system) 의 理論에 導入한 例는 많다. 그 중에 代表的인 것이 파슨즈 (Talcott Parsons) 의 社會體系論이다. 이를 要約함으로써 우리의 分析에 必要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基礎 資料로 삼도록 하겠다.

II - 2 . 機能主義 社會體系論

파슨즈의 社會體系論은 機能主義的 體系論이라는 特徵을 지닌 다. 이에 따르면, 모든 體系는 < 生存 > 을 위해서 네 가지 욕 구 (needs) 또는 要件 (requirements) 을 充足해야만 한다. 이 네 가지를 機能的 先行要件 (functional prerequisites) 또는 機能的 必須要件 (functional imperatives) 이라 일컫는 데, 社會體系에는 이 네가지 機能들을 주로 遂行하는 部分體系 또는 下位體系 (subsystems) 네 가지가 있다. 이것을 보통 파슨즈의 AGIL 모형이라 하며, 1) 適應 (A : adaption), 2) 目標達成 (G : goal attainment), 3) 統合 (I : integration) 그

리고 4) 潛在類型 維持 (L : latent pattern maintenance) 를 가리킨다. 1)

1) 適應 機能 : 모든 體系는 環境에 適應해야 生存할 수 있다. 社會體系에서 이 機能을 主管하는 部分體系는 〈經濟體系〉이다. 이 體系는 資源과 價値를 生産, 分賠하는 機能을 遂行하며 基本的으로 市場에서의 競爭과 交換이라는 行爲로 決定되고 가치의 원리는 貨幣의 公리적 効用이다.

2) 目標達成 機能 : 모든 體系는 目標達成과 滿足을 얻기 위한 資源 동원의 수단을 가져야만 한다. 〈政治體系〉가 이 機能을 주로 擔當하는 部分體制인데, 이는 集合的 決定行事 機能으로 具體化되고, 權威의 秩序 속에서 규제되는 權力이 政治的 行爲를 통제하며, 政治權力的 가치의 원리는 결정행사 能力으로 표현되는 政治的 効力 (political effectiveness) 이다.

3) 統合 機能 : 모든 體系는 그것을 構成하는 部分要素들 사이의 內部的인 調整을 유지하고 일탈에 對備하여 이를 管理하는 機能, 즉 스스로를 한데 묶어두는 결속, 統合의 機能을 遂行해야 生存維持할 수 있다. 이 機能은 광범위한 社會的 共同體와 社會統制 (法律) 制度들의 부분체계에 의하여 遂行되는데, 이 下位體系는 構成員들 상호간의 애착과 共同體에 대한 헌신몰입 (commitment to a community) 에 基礎하고, 共同體的 秩

註 1) 이하 社會體系論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주로 參考한 文獻은 parsons(1951); Munch(1987); 및 Craib(1988) 등이다.

序에 의하여 규제되며, 影響力에 의하여 統制된다. 이러한 헌신
몰입에 입각한 影響力 行使의 가치원리는 共同體 構成員들
간의 결속과 유대이다.

4) 潛在類型 維持機能: 모든 體系는 可能한대로 均衡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체계속에 潛在한
文化的 類型을 크게 교란시키지 않은 狀態에서 스스로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機能은 주로 社會化를 擔當하는 文
化的 部分體系들에 의해서 遂行되는데, 각 社會가 규정하는 規
則에 의하여 構成된 상징들(symbols)을 活用하는 社會的 담
론(discourse)의 형식으로 行해지며, 一定한 價値에 대한 헌
신몰입을 수반한다. 이 때의 價値原理는 상징들의 類型, 或은
담론적 의사소통의 誠實性(integrity)이다.

이와 같은 部分體系들은 각자의 主管機能을 완수하기 위한 적
절한 構造를 必要로 할 뿐 아니라, 각기는 서로 다른 部分體
系の 相互補完的인 기능의 수행에도 의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體系間的 相互浸透의 영역에서는 效率的인 매개 기능을 하는 部
分體系들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런 觀點에서, 다음과 같은 일
련의 명제들을 導出할 수 있다(Munch, 1987 : 126 - 127).

첫째, 만일 適應機能을 하는 部分體系(經濟)가 相對的으로 더
強하게 發展되면, 이는 다른 部分體系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效果를 자아내는 이들이 適應的 部分體系를 수용하게끔 하는 結
果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價値, 規範, 目標가 이해

관심 (interests) 과 수단에 順應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만일 目標達成 機能을 하는 部分體系 (政治) 가 比較的 強하게 發展하게 되면, 다른 部分體系들을 강제로 지배하는 選擇的 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즉, 價値와 규범과 이해관심과 수단들이 目標와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權力에 의하여 지배 당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만일 統合的 機能을 주로 하는 部分體系 (司法制度 등) 가 相對的으로 強하게 발달하면, 다른 體系들을 제약하고 속박하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다. 價値, 目標, 理解關心, 수단 등이 규범의 속박을 받게 된다.

넷째, 構造 維持의 機能을 하는 部分體系 (家族, 教育, 宗教, 文化 등) 가 比較的 強하게 發達하면, 一般的 가치가 다른 體系들을 규정해 주지만 具體的으로 저들을 統制할 기제는 없다는 結果가 생길 수 있다. 규범과 목표와 이해관심과 수단이 一般的으로 適用될 수 있는 가치에 포섭되어 버린다.

한편, 지금까지 시사한 部分體系들 상호간의 지배·통제 關係는 각각의 部分體系와 이들을 매개하는 體系들이 얼마나 잘 發展되어 있는가 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은 組合들로 要約할 수 있다 (Munch, 1987 : 127). 여기서, 매개체들이란, 위에서 살펴본 네가지 部分體系에서 핵심이 되는 交換, 權威, 共同體的 결사 및 담론의 過程들을 일컫는다.

1) 모든 部分體系와 이들을 매개하는 體系들이 전부 低開發 狀態일 때는, 그 社會體系 自體의 開發 및 統合水準이 낮아진다.

2) 部分體系들은 모두 低開發 狀態인데, 매개체계들만은 좀더 強力하게 發展되면, 그 結果體制의 統合은 잘 되었지만 全般的인 體系의 開發은 低調할 것이다.

3) 각각의 部分體系는 잘 開發되었는데 이들을 매개하는 체계들이 변변찮을 때는, 갈등이 結果한다.

4) 部分體系중 하나만 잘 發達되고 나머지 部分體系와 매개체계들은 모두 低開發 狀態라면, 發達된 部分體系가 다른 모두를 지배하게 된다.

5) 部分體系 중 하나는 잘 開發되고 나머지는 低開發인데, 매개체들은 또 전부 앞서 있다면, 強한 部分體系가 나머지를 압도할 수 있다.

6) 모든 部分體系와 매개체가 다 잘 발달되면, 그 結果는 高度로 發展되고 분화되고 統合된 社會體系가 될 것이다.

끝으로, 社會體系의 統合과 關聯해서, 統合은 매개체계들의 構造의 소산이라는 點을 다음의 명제로 要約할 수 있다 (Munch, 1987:127) .

첫째, < 교환 >은 開放的이지만 不安定한 통합을 자아낸다.

둘째, < 權威 >은 지배에 의하여 강요된 統合을 결과한다.

셋째, < 共同體的 결사 >는 동조주의적이고 경직된 통합으로

誘導할 것이다.

넷째, 〈담론〉은 화해를 통한統合을 함축한다.

다섯째, 交換, 權威, 共同體的 결사 및 담론, 이 네가지 매개체계의 組合은 強力하게 開發된 部分體系들 間的 相互 浸透를 위해서는 선결조건인 同時에, 또 이들 매개체계들에 의하여 部分體系들 사이에 상호침투가 實現되지만 強力하게 발달된 部分체계들이 선결조건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앞에서 밝힌대로, 部分體系와 매개체계가 모두 잘 發達되어야 한다.

II - 3 . 主要 部分體系의 特徵과 機能

위에서 提示한 AGIL (適應, 目標達成, 統合, 潛在類型 維持)의 모형에 담긴 部分體系들의 特徵과 機能을 하나씩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1 . 經濟體制의 基本類型

먼저, 適應的 機能을 주로 관장하는 經濟體系의 比較를 위한 基本類型으로는 소위 理念的 分類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체계, 즉 資本主義 體制와 社會主義 體制의 要體를 간추려 본다. 資本主義나 社會主義라는 용어를 어디까지나 하나의 理念型 (ideal types)으로 理解하려고 할 때와, 그것들이 실제 歷史속에서 구체적인 社會에 실현된 모습을 볼 때에는 그 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體制는 실제에 있어서

는 서로의 要素들을 수용하거나 相互間의 침투에 의하여 影響을 받지 않고서는 각자가 維持될 수 없는 現實이 展開되어 온 것이다 (Berger, 1986).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두 經濟體制의 理念型的 特性을 중심으로 간략히 言及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1) 資本主義 體制

막스베버 (Max Weber)는 市場中心의 經濟活動, 즉 市場交換을 통하여 利潤을 얻고자 하는 經濟行爲를 資本主義的 企業活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基本 性格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合理的인 利潤追求를 뒷받침해 주는 制度로서는, 1) 모든 生産手段 (土地, 연장, 기계 등)을 私 有財產의 형태로 배분하는 所有制度, 2) 市場의 自律性, 3) 生産性を 높이기 위한 技術開發, 4) 合理的이고 예측 可能的한 法律制度, 5) 자유노동, 그리고 6) 주식 등 有價證券의 자유로운 交換이 중시되는 經濟의 商業化 등이 包含된다 (Berger, 1986 : 18-19).

이것은 어디까지나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理念型 또는 이상형이 담는 特徵이다. 그러나, 歷史的으로나 現實的으로 資本主義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자아내었음을 지적받는다. 利潤獲得 내지 利潤의 極大化가 根本的인 동인이요 成功의 척도이므로, 資本主義는 극심한 競爭과, 과도한 선전·광고와, 浪費的인 중복을 조장한다. 이윤이 다르지 않는 部門에서는 서비스가 貧

弱하든가 전무하기 때문에 人間의 慾求에 대한 關心이 소홀해질 수 있다. 게다가, 經濟的으로도 合理的이라고 하는 이들의 主張과는 다르게, 資本主義 體制는 실업을 막을 수 없고 貧富의 격심한 격차를 피하지 못한다. 自律的인 市場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와 같은 주기적인 經濟 교란에 속수무책이다 (Cohen, 1982 : 39) .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不拘하고, 資本主義的 經濟體制를 기조로 삼은 社會에서 이룩한 업적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要約될 수 있다 (Berger, 1986 : 211 -215) .

1) 現代技術에 바탕을 둔 產業資本主義는 生産能力을 長期間 持續的으로 擴大하는 데 최상의 與件을 提供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어느 體制도 따르지 못할 가장 強力한 生産力을 자아내었고, 最高의 生活水準을 대중에게 提供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능력이 있다.

2) 資本主義的 近代化 過程의 초기단계에는 상당한 人的 희생을 요했고, 일정기간 동안 所得과 富의 不均等이 따르지만, 그 다음에는 이 불균등이 급격히 줄어들어 마침내 안정된다. 이러한 所得과 富의 불균등에 일어나는 變化는 주로 技術과 人口 要因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지, 체제 자체의 성격때문도 아니며, 여기에 개입하는 政治的 재분배나 政策 등이 平準化의 가속화에는 寄與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입이 지

나치면 오히려 生活水準에 否定的인 結果를 가져온다.

3) 産業 資本主義 社會의 계층분화는 基本的으로 社會階級 體系로 정립되고 教育이 상승이동의 주요 수단이 되며, 이 體制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結合하면 社會계층 體系의 開放性을 維持할 가능성이 커진다.

4) 第3世界의 國民生活 水準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社會主義式 발전보다 자본주의식 발전이 效果的인 可能性이 크다.

(2) 社會主義 體制

社會主義는 근원적으로 위에서 提示한 바와 같은 資本主義의 약점에 대한 비판에서 出發한 유토피아적 理念이다. 社會主義는 資本主義에서 처럼 利潤을 獲得하기 위한 生産活動을 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的 慾求를 충족시키기 위한 生産活動을 하는 것을 目標로 삼는 經濟體制의 理念이다. 따라서, 利潤보다 使用을 目的으로 하는 生産 活動을 위해서는 私有財產 制度는 公유제도로 代치되어야 하고, 市場經濟 秩序는 좀더 公正한 政治的 配分の 制度的 기제로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기본원리는 生産과 分배 수단의 公유와 中央集權的 經濟計劃 내지 命令經濟로 集約된다. 개인의 利潤獲得 동기가 아니라 모든 社會 成員 一般의 人間的 복지를 目標로 함으로 恠혜적 奉仕가 競爭을 代치하며, 市場의 無政府狀態를 長期 計劃으로 克服해야 한다 (Berger, 1986 : 20 ; Cohen,

1982 : 39) .

이러한 社會主義의 理念型은 아직도 社會主義가 實現되어 보지 못한 狀況에서 資本主義 體制가 드러낸 問題點들을 겨냥하여 설정한 유토피아적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경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실지로 社會主義 理念을 내걸고 革命的으로 社會를 再構成하여 運營해 온 나라들의 歷史的 經驗은 이러한 유토피아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고, 오늘날 소련, 東部 및 中央유럽과 中國 등 社會主義 國家들의 改革과 革命은 이와같은 이상과 現實사이의 괴리가 낡은 結果라고 할 수 있다(Chihrot, 1990). 이에 비추어 社會主義 모형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暫定的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겠다 (Berger, 1986 : 215) .

1) 社會主義는 경제전반에 걸친 官僚化, 經濟的 非效率性, 그리고 權威主義的 통치와 根本的인 연관성을 띤다.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弱點을 克服하고자 하는 社會主義의 핵심 制度的 기제인 재산 공유제도, 政治的 分배 및 中央集權的 經濟計劃이 바로 이러한 結果를 초래하는 주요인이다.

2) 현대의 產業 社會主義는 두가지 독특한 形態의 계층구조를 갖게 된다. 한편으로는 工業化가 자아내는 階級構造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가 조장하는 政治的 세습제도가 형성되어 상호 작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3) 社會主義는 수정하려면 시장기제를 導入하여야 할 터

인데, 이때 既得權을 지키려는 세습적 政治엘리트의 저항과 인위적 市場의 非效率性 때문에 政治的, 經濟的 한계에 부딪칠 위험이 따르겠지만, 生産手段의 사유제 없이는 效果的인 市場經濟가 不可能하다.

4)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만) 제 3세계의 國民生活을 向上시키는 데에는 社會主義式 發展보다는 資本主義式 發展이 效果的인 可能性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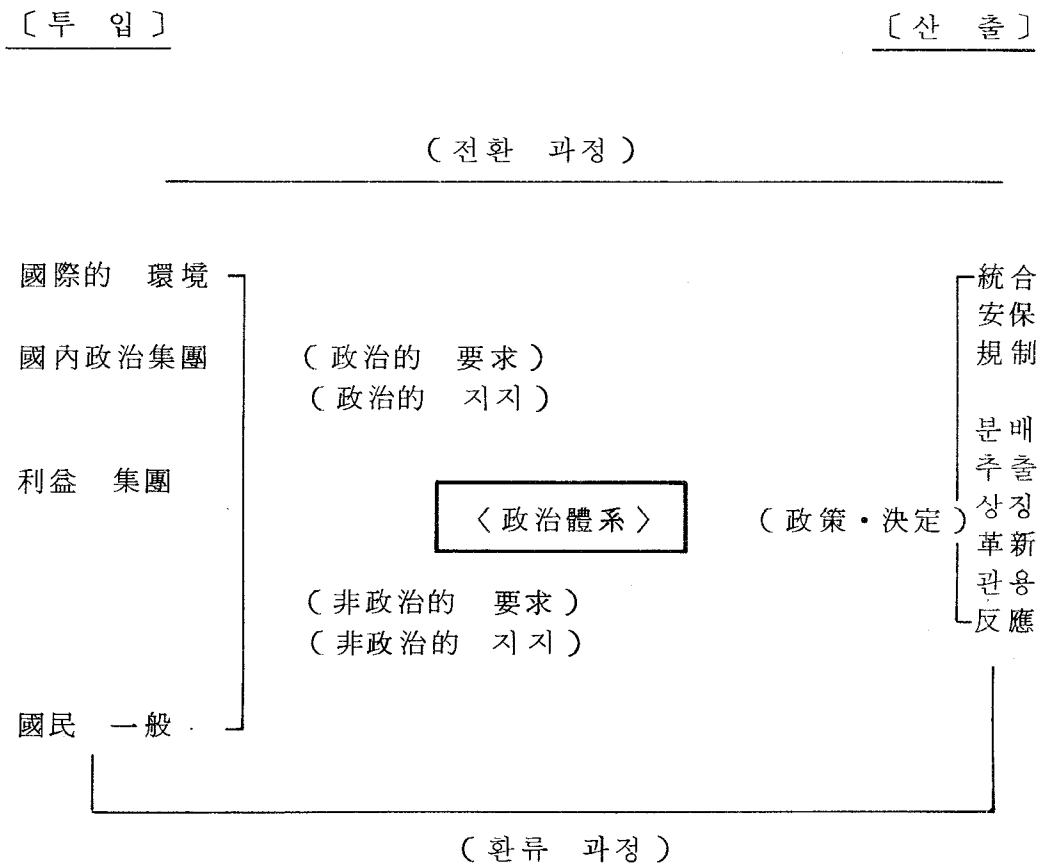
2) 政治體系의 能力

目標達成의 機能을 주관하는 정치체계를 비교하는 데에는 그 體系의 能力(system capability)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분석의 接近을 원용할 수 있다(Easton, 1965; 이용필, 1988; 김세진, 1977). 여기에서는 이를 간단하게 요약한다.

정치체계는 國內外的 環境속에서 適應하면서 스스로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社會全體의 目標達成 機能을 수행해야 하는 社會體系의 한 부분체계이다. 그런 뜻에서 정치체계는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갖가지 요구(demand)와 지지(support)를 받는 반면, 그러한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들로부터 오는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政治的, 政策的 決定을 하고 必要한 資源을 동원하여 結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政治體系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요구를 투입(input)이라고 하고, 그것이 提供하는 結果를 산출(output)이라 하며, 體系의 속성상 한번 算出된 結果에 대한 만족여부와 評價에 입각

하여 다시 요구와 지지의 모습으로 투입되는 환류 (feedback) 作用이 일어난다. 이 連鎖的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 과 같다.

〈 그림 1 〉 政治過程의 連鎖 모형



이 連鎖的 모형에서 투입의 主體요 算出의 對象은 國際的 環境속의 정치경제 단위들 (國家) 과, 國內의 國民 一般, 政治權과 言論을 포함하는 社會의 여러 制度部門 및 利益集團 등이고

產出의 能力은 곧 體系能力이 된다. 이 體系 能力에는 다음의 아홉가지가 있다.

- 1) 統合能力 : 社會의 각 部門과 개개 成員들로 하여금 政治體系가 提示하는 일정한 가치지향에 동조하게 하는 能力 ;
 - 2) 規制能力 : 일정한 規則을 만들어 제시하고 執行하며, 社會的 질서를 통제할 能力 ;
 - 3) 상징능력 : 文化的 상징으로 國民을 設得함으로써 지지를 獲得하고 體制를 유지하는 能力 ;
 - 4) 安保能力 : 安定된 政治體制를 견지하여 國民의 安全을 圖謀할 수 있는 能力 ;
 - 5) 分배능력 : 資源을 골고루 배분하는 복지정책 등으로 나타나는 能力 ;
 - 6) 추출(抽出)능력 : 資源을 効率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能力 ;
 - 7) 革新能力 : 난국타개라든가 기타 必要가 發生했을 때 스스로 改革하고 새로운 制度를 만들어 가는 能力 ;
 - 8) 관용능력 : 반대나 비판에 對應하는 能力 ; 그리고
 - 9) 反應能力 : 國民의 要求에 効果적으로 對應하는 能力이다.
- 이 중 1), 2), 3)은 體系가 스스로 發生시키는 能力으로, 政治體系가 일정한 政治環境속에서 體系內외의 要求와는 상관없

이 자체유지를 위해發揮해야 하는 능력이고, 나머지는 환경으로부터의 요구에應하고자 產出하는 能力이다. 이러한 政治體系 能力들 間에는 상호 剋制효과를 미치는 일종의 원형 連鎖作用을 하는 것으로 尙定할 수도 있다(김세진, 1977).

물론, 이러한 政治체계의 能力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를 確固히 받고 있을때 더 伸張될 것이고, 그러한 지지는 體系的 正當성 또는 正統성(legitimacy)이 確고할 때 可能하다. 한편, 體系가 環境의 要求에 反應할 能力을 갖추고 실지로 성과를 올릴 수 있으면 正當성의 獲得에 기여할 것이다. 政治體系的 正當화 과정에는 물론 體系的 能力말고도 道덕성, 正統성, 카리스마적 權威, 이데올로기적 호소력, 或은 共通價値의 追求, 이해관심의 交換, 強壓에 의한 복종 등 다양한 要因들이 함께 作用하며, 여기에, 政治文化的인 要所의 重要性이 부각된다. 그뿐 아니라, 政治過程에는 不可避하게 國民의 廣範圍한 政治參與, 각종 利益集團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參與要求가 尙재하는데, 이것은 곧 權力的 배분과 直結된다. 이 맥락에서 國民이 政治的 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기제나 制度 및 國民 스스로의 政治的 效能(political efficacy) 등도 分析의 對象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政治體系的 分析은 體系能力, 즉 效率性(efficiency)外에도 權力的 배분구조에 나타나는 公正성(equity)의 側面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政治문화도 다루어야 한다 (Dowse and Hughes, 1986).

3. 共同體와 文化의 役割

社會體系의 기능중 統合과 유형 유지기능은 주로 共同體의 統合과 文化的 類型에 關聯된 것인데, 이 둘은 서로 매우 密接하게 얽혀 있으므로 함께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다. 社會의 통합은, 한편으로는 共同體 成원들 相互間의 結속과 友誼라는 人間關係, 集團關係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면서, 또 同時에 그것은 共通의 價値를 共有하고 그 바탕 위에 共通된 規範을 遵守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여기에는 價値와 規範의 淵源으로서, 文化類型을 傳承, 維持, 保存하는 機能을 同時에 遂行하는 종교가 한 몫을 하지만, 近代國家가 形成되고 社會的 價値指向이 國家的 次元에서 公式化되면서 法律이라는 공식적 規範의 制定과 執行責任도 國家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國家가 社會 統合에 關여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종래 家族이 주로 擔當해 오던 社會化 機能도 國家에 의한 公式的 教育制度가 確立됨과 더불어 文化類型 유지에도 國家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더라도, 社會化라는 側面에서 家族의 重要性은 견지되고 있으며, 갖가지 중간 매개 집단이나 自發的 結社체의 役割도 거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間接的으로는 社會統制의 機能도 遂行하며, 地域共同體들도 이에 關여하는 관습도, 주로 農村에서 두드러진 現象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 다만, 現代社會에 올수록, 대중매체의 社會化 機能이 大幅 強化되고, 기타 각종 文化活動이 活發해지면

서, 이들의 文化類型 유지 및 社會統合 機能이 相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김경동, 1985).

Ⅲ. 發展 可能性에 의한 比較의 틀

대체로 위에서 要約한 社會體系論的 접근은 한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社會를 比較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틀이다. 그러나, 社會란 항상 變하는 것이고 또 그 變化가 어떤 價値를 實現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 비교 對象社會를 評價하게 된다. 體系論的 비교는 相對적으로 가치중립적인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客觀的 比較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할 때는 不可避하게 가치 基準을 제시하게 된다. 이런 觀點에서, 지금부터는 社會體制의 비교를 〈발전〉 或은 〈發展 可能性〉이라고 하는 概念에 비추어 접근하는 데 基本的인 틀을 정리하기로 한다.

發展 또는 社會發展의 概念은 그동안 社會科學界에서 등장한 여러 학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規程되어 왔다. 진화론적 觀點에서 社會의 分화와 統合의 連續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근대화 展望에서 서구화, 工業化를 뜻하기도 하며, 갈등론적 견지에서 社會不平等 구조의 해소에 主안점을 두기도 하고, 또 世界經濟體系와의 關係에서 한 國家가 차지하는 위치와 經濟開發을 척도로 삼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학

서, 이들의 文化類型 유지 및 社會統合 機能이 相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김경동, 1985).

Ⅲ. 發展 可能性에 의한 比較의 틀

대체로 위에서 要約한 社會體系論的 접근은 한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社會를 比較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틀이다. 그러나, 社會란 항상 變하는 것이고 또 그 變化가 어떤 價値를 實現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 비교 對象社會를 評價하게 된다. 體系論的 비교는 相對적으로 가치중립적인 비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客觀的 比較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할 때는 不可避하게 가치 基準을 제시하게 된다. 이런 觀點에서, 지금부터는 社會體制의 비교를 〈발전〉 或은 〈發展 可能性〉이라고 하는 概念에 비추어 접근하는 데 基本的인 틀을 정리하기로 한다.

發展 또는 社會發展의 概念은 그동안 社會科學界에서 등장한 여러 학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規程되어 왔다. 진화론적 觀點에서 社會의 分화와 統合의 連續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근대화 展望에서 서구화, 工業化를 뜻하기도 하며, 갈등론적 견지에서 社會不平等 구조의 해소에 主안점을 두기도 하고, 또 世界經濟體系와의 關係에서 한 國家가 차지하는 위치와 經濟開發을 척도로 삼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학

파들의 견해를 따로 紹介하지 않고 이들을 綜合하되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接近을 취하기로 한다.²⁾

發展論的 接近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크게 두가지 次元에서 發展의 概念을 규정하는 것이 必要하다. 하나는 발전의 가치 함축이고 다른 하나는 發展의 社會組織原理 또는 社會構造的 特性이다.

Ⅲ - 1 . 發展의 價値含蓄

오늘날 발전이 일종의 가치 함축적 概念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지만, 어떤 것이 과연 발전의 價値인가에 대한 이견은 물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意見들을 體系的으로 要約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概要가 떠오를 수 있다. 이것을 <發展의 핵심가치>로 규정한다.

1) 發展은 그 자체 하나의 가치이다. 모든 社會가 發展을 意味한다. 물론, 잘못된 發展은 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미 發展의 가치 함축성을 認定한다.

2) 發展은 한마디로 人間이 <좋은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價値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발전은 보다 나은, 바람직한 삶의 價値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3) 삶의 價値는 크게 두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삶의

註 2) 發展의 理論的 展望들에 대한 客觀과 이 글에서 要約하는 發展論의 源泉은 주로 김경동(1979;1984)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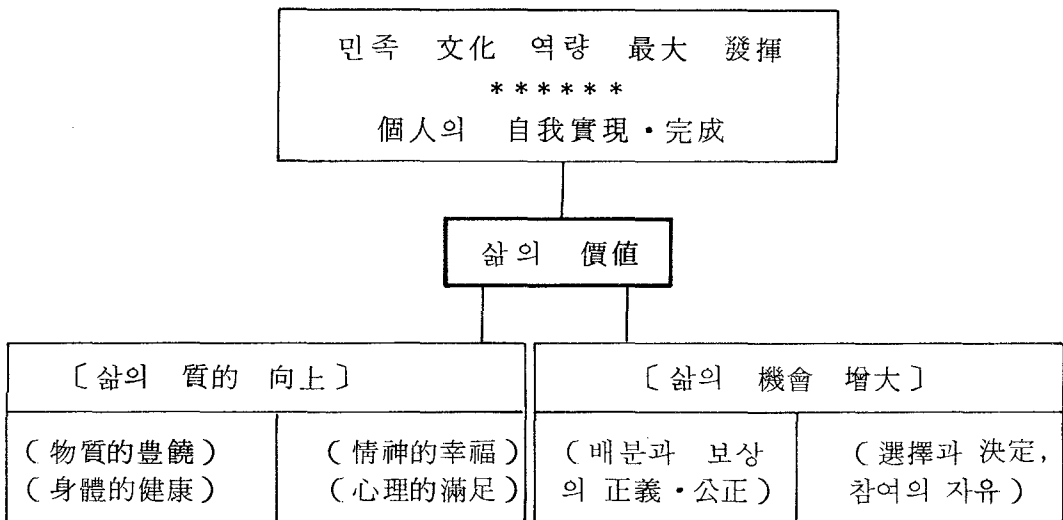
質〉의 向上과 〈삶의 기회〉의 擴大이다. 質的으로 나은 삶을 추구하되, 그러한 삶이 社會의 모든 成員들에게 널리 향유될 것을 바란다.

4) 삶의 質的 向上은 肉體的 건강을 위한 經濟的 豊饒와 物質生活의 質的 改善과, 동시에 精神적 행복과 만족을 위한 心理的인 삶의 質的 變化를 내포한다.

5) 삶의 機會의 증대는 삶의 質的 向上에 必要한 物質的 情神的 資源을 배분하고 努力을 보상하는 原則이 公正하여야 하고, 그 原則을 정하고 施行하는 결정행사 과정이 開放되어야 하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社會正義, 自律性, 參與의 價値이다.

6) 이 두개의 삶의 價値를 기둥으로 해서 발전을 追求하는 人間의 궁극적 목표는 個人의 水準에서는 〈자아완성〉 또는

〈그림 2〉. 發展의 핵심 가치



<자아실현>이고, 集合體의 水準에서는 집단의 <문화역량>의 최대 發揮이다. 이것이 국가민족을 單位로 하면, 民族的 文化 役量 發揮의 極大化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發展의 핵심가치 체계에서는, 價値目標인 集合的 文化 역량의 發揮과 個人의 자아실현, 삶 의 價値인 2대 지주인 삶 의 質과 삶 의 機會, 또 그 下位價値들의 한쌍인 物質·身體와 정신·심리, 정의와 자유 이들 이분법적 범주들 사이에는 一定 한 긴장이 發生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點이다. 실지로 歷史 的 과정에서 社會의 性格, 體制의 特性에 따라 그와 같은 긴 장과 갈등이 노출된 例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우 리가 經濟體制의 比較 준거로 提示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社 會의 發展目標과 수단 의 選擇에서 이러한 딜레마가 두드러진 것 을 歷史的으로 經驗하였기 때문에 이 點은 各별한 주목을 요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상적인 發展의 價値體系에서는 그 어 느 하나든 다른 價値項目을 위해 희생하거나 소홀히 해도 좋 다는 명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한가지, 이러한 價値들을 얻고자 하는 努力에 있어서, 그 과정이나 政策手段들이 結果적으로 그러한 수단으로써 얻고자 하 는 發展價値에 어긋나거나 그 중 어떤 것을 손상시키는 것이 라면 그런 수단은 배제해 마땅하다는 명제이다. 다시 말해서, 목적과 수단사이에 價値 適合性이 보장될 必要가 있다. 그러한

수단중 가장 중심되는 것이 發展的인 社會組織 원리 (the principle of social organization)이다. 發展的 價値目標에 適當한, 적합한 組織원리로써 社會構造를 조직하고 組織체들을 형성하고 政策을 시행하여 얻은 가치라야 비로소 그 수단을 평가할 수 있다.

Ⅲ - 2 . 發展的 社會 組織 原理

그렇다면, 發展의 價値와 適合성을 갖는 組織원리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發展的 社會構造 變動은 어떤 모습을 띠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을 간추려 보면 이러한 명제들이 導出된다.

1) 우선, 삶의 質的向上이라는 價値를 추구함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必要한 것은 物質的, 經濟的 資源이다. 그것을 최대한 增大시키는 일이 앞선다. 이는 社會성원들의 건강하고 豊요로운 物質的 삶을 보장하는 最小限의 要件이다. 社會體系論의 견지에서는 適應 機能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經濟成長이 必須的인데 그것을 成取하는 방법이 자발적이고 公公적인 組織원리에 입각해야 다른 發展價値를 다치지 않고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다. 자발성의 원리는 각자가 자원의 增大 과정에 스스로 헌신적으로 참여한다는 근로의식, 직업의식을 가리키고, 公公성이란 그러한 헌신몰입 (commitment)이 個人的인 利益의 추구하고 아울러 다른 개인들의 利益追求도 尊重함으

로써 共同의 利益이 集合的으로 얻어질 수 있는 원리를 말한다.

2) 동시에, 經濟爲主로만 삶의 질적향상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情神生活과의 관계에서 均型이 깨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情神生活과 관련된 文化의 발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이 점에서 체계의 適應機能은 潛在類型 유지기능과 상호 補完的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앞서 체계론에서 제시한 대로 體系의 여러 기능들과 부분체계들이 균형된 발전을 할 때 체계자체도 고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暗示한다.

3) 물질적 삶의 질을 改善하려는 經濟成長의 努力은 물질적, 經濟的 보상의 유인으로써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유인이다. 그것이 삶의 機會의 擴大라는 가치와 맞물릴 때 물질적 유인도 實効를 얻게 된다. 廣範圍한 성원들의 자발적이고 公正한 參與아래 公正한 절차로 정해진 規則에 따라 資源을 公正하게 배분하는 조직원리가 必須的이다. 옛말(史記)에도 있듯이 <非公正 不發憤>이므로, 公正性的 원리가 작동해야 사람들이 분발해서 자기들이 나누어 가질 資源의 증식에도 積極的으로 참여하게 된다.

4) 한편, 社會는 各樣各色의 이해관심과 要求를 가진 個人과 집단의 構成體이므로, 이들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것이 必要하다. 삶의 기회를 公正하게 끌고루 擴大시키기 위해서도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힘에 의한 강제나 일방적으결정에 의한 강제의 원리가 適用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발전가치의 자유를 抑制하는 方法이므로 불가하다. 여기에 자발적 참여와 責任 감수가 必要해진다. 우선, 모든 결정은 規則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하며, 規則 制定過程은 자발적 참여아래, 담론적 대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規則이므로 일단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責任지고 이를 준수한다. 자원의 배분과 요구의 관철을 둘러싼 競爭도 이러한 規則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競爭이 갈등적인 양상을 띠 때에는 갈등 해소를 위하여 어디까지나 담론적인 規則에 입각한 방법에 依存하지, 과격한 均집행동과 난폭한 폭력행사를 일삼지 않는다.

이처럼, 강제성이 아닌 自發性, 不公正이 아닌 公正성, 자기중심의 적나라한 이기주의가 아닌 共同體意識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상형 個人主義를 基本的인 조직원리로 하는 社會라야 발전의 가치를 얻는데 무리가 없다.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작용하는 社會의 構造的 특성은 한마디로 <유연성> (structural flexibility)이라 규정할 수 있다. 유연성, 신축성, 융통성 등으로 표현되는 이 概念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연한 구조가 성립되자면 그것을 構成하는 社會 성원들의 意識이 유연해야 한다. 경직된 이데올로나 종교적 信念或은 價値・規範體系에 지나치게 劃一的으로 集着하는 의식은 유연한 社會構造 形成에 寄與하기 어렵다. 생각이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으면 창의성을 조장할 수 있고, 창의성은 資源의 증

大를 위한 技術革新이나 經濟成長에 必須的이다. 신축성있는 의식은 행동의 유연성을 가능케 하며, 행동의 유성성은 體系的 適應能力을 신장시켜 주는 要因이 된다.

둘째, 유연한 의식과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 꾸미는 社會는 劃一的이고 경직될 수가 없다. 더구나, 社會가 複合的인 機能分化를 經驗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變化에 適應하는 社會라면 다원화될 수 밖에 없다. 기능이 다원적이고, 이해관심이 다양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理念이 다원적인 社會가 유연한 社會이다.

셋째, 다원화된 구조를 띤 社會는 文化的으로도 다원적이다. 개개 구성원의 慾求가 다원화되고 生活樣式이 다원화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文化的 매체도 기술개발에 힘입어 다양해지면서 이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國民에게 전파되는 文化內容도 다원화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可能하지 않으면 유연한 社會라 하지 못한다.

넷째, 구조적으로 유연한 社會의 제도 또한 다원적이면서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각 제도부문의 專門化가 촉진되는 한편 그들간의 유기적 연대가 發生하면서 상호 신축성있는 交換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制度들은 제 기능을 効率的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制度의 關료화는 金붙이다. 앞으로, 情報化 時代의 技術과 組織원리가 정착하게 되면 제도의 關료화는 防止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資源配分의 原則이 公正성인 유연한 社會에서는 계층 구조가 또한 첨예한 불평등 構造를 띠지 않으며 계층 분화는 다원적이다. 어느 특정계급이 특정자원을 獨點하지 않기 때문이다. 中間階級이 量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中間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社會 全體의 生活水準이 올라가고 職業構造가 高學歷을 요하는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을 핵으로 하는 방향으로 變함에 따라 이러한 중간계급 社會가 형성되며 계급간, 계급내의 다원화가 촉진된다.

여섯째, 이와같이 중간계급 중심의 다원사회가 될 때 중요한 體制의 과제는 다원화된 社會 각 부문과 階層의 다양한 이해관심과 要求를 어떻게 수용,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적어도, 유연한 構造를 가진 社會에서는 각계각층이 자기들의 이해관심에 따라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정규적이고 開放的인 기제를 지니며, 각자의 要求는 다른 계층과 部門의 要求와 정면으로 상충되지 않는 範圍안에서 모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相互 타협과 양보의 答論적인 節次를 밝게 되며 그 節次를 規制하는 規則도 같은 原理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라야 한다.

일곱째, 答論적 合議와 規則遵守의 가치가 중요한만큼, 社會는 갈등과 일탈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유연한 構造를 가진 社會는 이러한 갈등을 억제하기보다는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일탈을 예방

하는 데 주안을 두지만 이미 일어난 일탈에 대해서는 公正하고 開放的인 社會統制 기제를 통하여 이를 回復하는 데 역점을 둔다.

여덟째, 對外關係에서도 구조적으로 유연한 社會는 內部的인 體系의 能力上 發展可能性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유연성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外部環境의 變化에 대한 適應力이 강하고 外部로부터 유입되는 文化的 要素들을 신축성 있게, 선택적으로 수용할 능력이 있다. 外部勢力의 정치경제적 壓力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결속과 아울러 융통성 있는 자세가 긴요한데, 構造가 유연한 社會가 이점에서 有利하고, 外來文化의 영향을 받았을 때도 이를 신축성 있게 排除하거나 받아들인 다음 既存의 文化속으로 吸收하는 作用 또한 유연한 구조일수록 效果的으로 할 수 있다. 한마디로, 對外的인 開放性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適應하는 能力이 우월하다.

아홉째, 무엇보다도, 構造的으로 유연한 社會가 發展의 價値를 達成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가장 適合하다는 點이 중요하다. 의식과 행동의 伸縮性이 창의성과 關係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하였고, 유연한 社會는 公正性이 근간이므로 모두가 발분하여 발전에 寄與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모든 社會的 의사결정도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公正한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러한 決定過程을 밝아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성원이 責任을 지고 規範을 遵守하는 참여와 자발성의 社會이기 때문이다. 개

인 각자의 慾求, 자기 집단의 利益이 중요한만큼 다른 사람들과 집단의 慾求와 要求도 중요하다는 共同體 意識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적어도, 이러한 社會의 모형이 理念型的이고, 어느 정도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직된 유토피아가 아닌 까닭은 유연한 構造란 自家矯正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가지 모형에 경직되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問題가 생기면 언제나 새로이 適應하고 고쳐 나가는 체계能力을 갖춘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社會는 항상 역동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움직임속에 있는 사회이다. 이 점에서 構造的으로 유연한 社會가 발전에 有利한 要因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基準으로 社會들을 比較할 수 있는 틀을, 발전의 핵심가치와 發展的 社會組織 原理 및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이제 이와같은 分析 틀에 의거해서 南北韓 社會體制를 比較하는 作業을 시도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도 되풀이 강조하지만, 資料는 一律的인 比較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유의할 必要가 있다.

IV . 南北韓 社會體制的 體系論的 比較

IV - 1 . 適應機能 : 經濟體制的 比較

社會體系的 일반이론에서 지적한 네가지 基本機能 영역들부터 하나씩 對備하기로 하고, 먼저 適應機能을 擔當하는 經濟體制부터 살펴본다. 經濟體制的 比較도 우선은 단순한 統計的 比較에서 출발하고, 후에 體制水準의 비교를 하도록 하겠다. 물론, 統計資料라 해도 北韓의 것은 희귀하고 客觀的 信賴度가 의심스러운 制約을 감안해야 한다.

1 . 總量的 比較

근자에 이르러 아마도 가장 두드러지고 근본적인 南北韓 차이를 지적하라면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經濟力을 들 것이다. 특히 北韓을 直接 다녀왔거나 北韓에서 탈출한 이들의 證言에서 이점이 뚜렷하다. 우선, 統計值로 잡힌 몇가지 총량적 經濟力 비교부터 해보기 위하여 <표 1>을 제시한다(김세원, 1990 : 198).

최근 資料로 1987 年末 현재를 비교 기점으로 할 때, 南北의 인구가 절반 規模로 차이가 나는 데 비하여 國民總生産(GNP) 規模는 6 배 가량의 격차를 보임으로써 달러로 還算된 1인당 GNP 水準은 3 배의 차이로 落着된다. 실질 경제성장율은 南韓이 12.0 % 반면에 北韓이 3.3 % 라는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 무역 規模는 무려 22 배 정도로 다르고, 그 중 輸出은 28 배에 이른다. 同時에 대외부채도 南韓이 6.8 배를 안고 있다. 國內生産活動을 보면, 식량작물 생산량이 1.4 배이고 쌀만 보면 2.7 배나 되며, 水産物 生産量은 1.6 배이다. 石炭은 北韓이 1.6 배를 더 생산하지만, 발전설비 用量은 南韓이 3 배나 더 갖추고 있다. 도로는 全體적으로 南韓이 2.5 배 정도이지만, 고속도로 총연장에서는 6.4 배의 차이를 드러낸다. 한편, 철도길이는 비슷한데 전철구간은 北韓이 2.5 배 더 길다.

北韓이 南韓보다 物量으로 앞서는 分野는, 비록 그 차이가 1.1 배 水準이기는 하지만, 비철금속과 화학비료 生産能力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남한이 월등 우세하다. 생산 능력으로 볼 때, 시멘트가 2.8 배, 강철 3.9 배, 織物 8.6 배, 정유 10.2 배, 조선 14 배, 자동차 32.5 배, 그리고 TV는 52 배나 된다. 이처럼 기본 經濟力이 뒤지는 北韓이 군사비 支出은 1.4 대 1 로 南韓과 거의 맞먹으며, GNP 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南韓의 5 %에 비해 北韓이 21.8 %나 된다.

이 정도의 概括적인 指標만으로는 南北韓의 經濟 실상을 깊이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適應機能을 하는 經濟體制는 國民의 生計를 유지하고 可能하면 物質生活을 더욱 豊要롭게 하는 것이 主目的이다. 그리하여 환경속에서 체계가 生存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最近 北韓의 經濟狀態를 直接 經驗한 체험담을 그대로 옮겨 보기로 한다(이우홍, 1990).

(1987년 末 현재)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남북대비
인구 (1988)	백 만	42.6	21.9	1.9 : 1
면적	1 천 km ²	99.2	122.1	1 : 1.2
연평균人口增加率(80-87)	%	1.3	2.5	1 : 1.9
도시 人口	%	64	65	1 : 1.01
15세미만 人口	%	30	33	1 : 1.1
기대 수명	년	68	68	1 : 1
製造業 근로자	%	27	39	1 : 1.4
농어업 종사자	%	21.9	43	1 : 1.96
GNP	億 \$	1,186.0	193.7	6.1 : 1
1人當 GNP	\$	2,826	1,114	2.5 : 1
실질 GDP 成長率	%	11.1	2	
選 率	미 \$	822.4	2.14	
재정규모	億 \$	195.3	140.6	1.4 : 1
군사비 지출	億 \$	59.8	42.2	1.4 : 1
군사비 / GDP	%	4.7	23.8	
1人當 군사비	\$	142	203	1 : 1.4
무역고	億 \$	883.0	40.6	21.7 : 1
輸出	億 \$	472.8	16.7	28.3 : 1
輸入	億 \$	410.2	23.8	17.2 : 1
外 債	億 \$	356.0	52.1	6.8 : 1
발전설비 용량	萬kw	1,902	637.7	3 : 1
石炭 生産量	萬	2,427	3,900	1 : 1.6
정유생산능력	萬	3,558	350	10.2 : 1
강철생산능력	萬	1,854.0	480.5	3.9 : 1
비철금속 생산능력	萬	44.4	46.4	1 : 1.1
시멘트생산능력	萬	2,600	932	2.8 : 1
화학비료 생산능력	萬	311	351	1 : 1.1
자동차 생산능력	萬대	65	2	32.5 : 1
조선능력	萬 G/T	300	21.4	14.0 : 1
TV 생산능력	萬대	1,248	24	52.0 : 1
직물생산능력	萬 m	55.0	6.4	8.6 : 1
식량작물 생산능력	萬	668.7	495.2	1.4 : 1
쌀생산량	萬	549.0	203.4	2.7 : 1
수산물생산량	萬	333.2	212.3	1.6 : 1
도로총연장	1 천 km	54	22	2.5 : 1
고속도로	km	1,539	240	6.4 : 1
철도총연장	km	6,340	4,703	1.3 : 1
전철구간	km	1,154	2,867	1 : 2.5

출처 : < 북한경제개관 >, 국토통일원 조사자료실, 1989; ASIA YEARBOOK 198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Hong Kong.

4년 수개월동안 열몇차례 공화국(北韓을 指稱:필자주) 內部를 나름대로 깊이 觀察한 결과 단언컨대, 共和國 經濟는 完全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심각한 岾탄속에 있다. 重公업이 그렇고, 農業, 輕公업 또한 例外가 아니며, 人民生活은 아사자가 나올만큼 極度로 窮乏해 있다... 나무관자와 못...은 귀중품 중의 귀중품이었다... 나는 도리없이 個人的으로 日本에 수배를 해 보내오도록 할 수 밖에 없었다...

<主體技術>로 開發된 전력사정도 형편없었다. 도시의 高級호텔에선 엘리베이터가 停電으로 중간에 서버리기 일쑤고, 農村에서 한 세대가 40와트 전구하나로 온 식구가 쓰며 <國家財産 절도죄>를 우려, 소켓을 늘릴 꿈도 못꾸고 있었다...

送水施設도 貧弱해, 60층 초고층 빌딩<조선히텔>에도 물이 올라오는 높이는 6-7층에 不過하다. 18층의 淸光山호텔 15층에 투숙했던 나는 씻기 위해 매일 10층까지 내려오던 했던 걸 기억한다...

국련 世界保健機構가 발표한 共和國 女性の 초경은 평균 20세이며, 先進國 여자아이의 초경기가 평균 10세임을 감안할 때, 食糧危機가 身體發育을 얼마나 阻害하고 있는가를 兪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共和國 當國者는 남성 평균수명이 70세, 여성 76세로

되어 있으나 30세 미만 人口가 67.5%를 차지하는 또 다른 統計와 比較해 보면 當局者의 發表는 허구임이 금방 드러난다...

共和國의 食糧危機를 말하면서 〈기름 지게미죽〉을 빼 놓을 수 없다. 얼마전만 해도 共和國 住民들의 主食이나 다름없던 〈기름지게미 밥〉은 옥수수 기름을 짜고 남은 〈지게미〉 7할에 쌀 3할의 比率로 지은 밥이다... 84년 以後에는 지게미 밥도 먹기 힘들어 더 밀정게 끓인 기름지게미 죽을 먹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할말을 잊었다.

사과를 의사의 診斷書가 있어야 입수할 수 있는 나라는 共和國이 地球上에서 유일할 것이다. 또 실탕이나 사카린도 약의 대용품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런 證言을 어느 정도 信賴하느냐의 問題는 別個로 하고, 형편이 이정도라면 南韓의 1950年代, 1960年代初를 연상케 한다. 그런데, 北韓은 1960年代末, 或은 1970年代初까지만 해도 1人當 國民總生産이 南韓을 약간 앞지르고 있었으며, 그뒤로도 비록 成長率은 떨어지고 南北韓의 經濟力에 격차가 急激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지만 北韓 나름의 經濟成長을 持續해 온 것도 사실이다. 가령, 미국 정보국의 資料에 따르면 1965년 南北韓의 1人當 GNP는 각각 \$ 245, \$ 375, 1970년만 해도 각

각 \$ 365 와 \$ 425 였다 (이태욱, 1988 : 171, 표 24). 個人當國民所得이라는 指標로 報告된 또 다른 미국 CIA 資料는 1970 年 南北이 각각 \$ 252, \$ 719 였고, 1975 년까지도 \$ 590, \$ 1,006 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태욱, 1990 : 108, 표 3). 남한의 國土統一院 分析에서도 1970 年の 對比가 남한 \$ 252 에 북한 \$ 268 라고 한다 (이태욱, 1990 : 108, 표 3).

經濟成長率만 해도, 남한은 1962 年 第1次 5 個年計劃 실시 이래로 1980 年の 마이너스 成長記錄을 除外하면 年평균 9 % 內외의 高度成長을 持續해 왔다. 이에 비하여, 北韓에서는 1961 - 65 年에 9.7 %, 1966 - 70 年에 5.8 % 에, 1971 - 75 에 10.4 % 라는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였다가, 1976 - 78 年 期間에 - 1.6 % 를 시작으로 하여, 1979 年 이후 현재까지 31 % 內외의 低調한 成長을 이루고 있다 (이태욱, 1990 : 109, 표 5). 이같은 事情에 비추어 北韓의 經濟가 어렵게 되고 있다는 推定은 充分히 可能하다.

그런데, 그 중에도 食糧問題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形態의 證據로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2 年 김일성의 시정연설에서 農水產 部門을 최전면에 내세워 食生活 關聯部門에 대한 關心을 보였고, 같은 해 4 月 15 日 자 <로동신문> 에서는 “쌀은 공산주의다” 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의식주> 라고 하는 말도 김일성은 <食衣住> 로 고쳐 부르는 것이 “더 正確하다” 고 하였으며, 김정일도 “옷이나 집

같은 것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한 일이 있다(김정일, 1984:7; 도홍렬·김남식, 1987:148 재인용). 그리하여,北韓은 <1,500 만톤 알곡고지 점령>, <30 만 정보 간석지 조성>, <20 만정보 새 땅 찾기>, <다수확 품종개발> 등의 特別事業들을 強力히 전개하고 있다. 실지로, 이런 食糧增産事業을 독려하는 각종 프로그램이北韓의 대중매체, 특히 TV에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北韓 訪問者나 귀순자들의 證言에서도 이 問題는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 어떤 이는 왜 食糧事情이 어려운가에 대한 說明까지도 포함하는 수가 있다. 가령, 위에서 인용한 證言에서 옥수수나 사과가 귀하다고 했는데, 옥수수는 거의 절반이, 그리고 사과는 大部分이 소련 등지로 輸出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對外貿易에서 外貨가 달리는 까닭에 現物로 輸出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을 反映한다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정도의 經濟難을 모든 階層에서 똑같이 겪는다고 보기는 어렵고,農村이 특히 심한 반면 평양같은 大都市의 特權層에서는 상당히 여유있는 生活을 누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귀순자들의 證言에서도 그렇고 또 비록 허구이기는 하지만 生活像을 묘사하는 소설 등에서도 그런 흔적이 여실히 엿보인다. 問題는 전반적인 成長의 둔화와 그에 따른 生活의 어려움이 사실이라는 데 있다. 이에 비하면 南韓의 經濟生活은 오히려 一部 階層의 극단적인

호화와 사치 및 과소비로 인한 浪費가 問題이지, 물자가 귀하거나 기아가 問題되지는 않는다. 이와같은 대조를 說明하기 위해서 體制次元의 比較가 必要하다.

2. 經濟體制의 對比

앞서 우리는 資本主義 體制와 社會主義 體制에 대한 一般論

< 표 2 > 南北韓 經濟體制 및 政策 基조대비

比較 基準	南 韓	北 韓
生産手段 所有	사유재산	國有, 集團化
經濟活動 主體	個人, 企業 法人	國家, 集團化 單位
經濟原理	市場의 自律性, 分權的 의사결정, 자유 競爭, 市場 机制에 의한 分配	國家와 黨의 中央集權的 計劃, 命令, 統制, 政治的 計劃에 의한 分配
經濟活動 유인	經濟的 利潤, 物理的 誘引	理念的 嚮신, 도덕적 유인
經濟運用原則	合理的 經營, 管理	政治的 · 理念的大衆동원
대외관계	대외개방	자립갱생, 폐쇄
기본목표	國民福祉向上, 성장속의 형평 자립경제, 國력신장	社會主義 완전승리를 위한 物적, 技術적 토대 구축,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政策 基조	정경협조, 안정속의 성장, 輕공업에서 重공업으로 輸出指向的 工業化 技術革新	정경일치, 외연적 성장 重공업 우선 經濟 · 軍事건설 병진 主體的 技術開發

(出處 : 國土統一院, 1989 : 12 , 표 3 참조 作成)

的인 對備를 하였다. 이 모형을 염두에 두고 南北韓의 經濟體制를 比較하면 다음 〈표 2〉와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 2〉와 要約과 앞에서 提示한 Berger (1986)의 自本主義와 社會主義 體制의 比較들에 기초하여 南北韓 經濟體制의 強弱點을 全般的으로 比較한다면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³⁾

첫째, 무엇보다도 經濟的 效率성과 성장 가능성면에서 南韓이 월등하여 國民의 生活水準 向上에 유리한 반면에, 北韓의 非效率성과 성장 둔화로 인한 住民生活의 疲폐는 잘 알려져 있다. 그 대신, 北韓에는 인플레이션이 없고 이로 인한 經濟的 주름살이 생기지 않는다. 물가문제는 南韓의 경우 輿論調查에서 應答者의 9 할이상이 심각하다고 할만큼 經濟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지난 몇해 사이에 惡化되는 경향을 보인다 (권태환 외, 1990 : 24).

둘째, 北韓에도 주로 政治權力의 배분구조를 중심으로 階級이 새로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經濟的 特權이 不均等한 것이 틀림없으나 (김채윤, 1977 ; 이병혁, 1990), 經濟制度와 정책 자체때문에 생긴 불평등은 심각한 편이 아니

註 3) 南北韓 經濟比較와 특히 北韓經濟에 관한 資料는 주로 다음의 文獻들을 참조하였다. 國土統一院, 1983 ; 1989 ; 이태욱, 1988 ; 1990 ; 고현욱, 1987 ; 연하청, 1990 ; 김세원, 1990 ; 강광하, 1990 ; 오관치, 1987.

다. 하지만, 南韓에서는 社會經濟的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社會的 爭點으로 부각되어 있다 (Kim and Lee , 1985 ; 한완상 외, 1987). 이와 관련해서, 최근의 輿論調查에서는 90.5 %가 所得激差를, 81.6 %는 세금 불평등을 심각한 問題로 보았고, 이러한 經濟的 불공정성이 민감하게 느껴지는 問題로는 부동산 투기 (91.8 %) 와 住宅問題 (89.3 %) 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권태환 외, 1990 : 25-27).

Berger 의 가설에 의하면 비록 資本主의 성장의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해도, 長期的으로는 지속적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에 대한 國民의不信이 만연한데, 그 理由는 최근의 금융실명제 유보 결정, 토지 공개념 實現의 부진, 稅率政策과 조세제도 改革의 미진함 등에서 政府와 既得權層의 改革意志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北韓은 그 나름으로 경제침체가 持續되면서 생필품 품귀현상이 오래가면 갈수록 실질적인 불평등이 惡化될 소지가 충분하므로 體制의 성격상 불평등이 적다는 이점도 회석될 可能性은 있다.

셋째, 經濟 運用上의 問題로 北韓은 어느 사회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中央集權的, 관료주의적 計劃, 統制, 간섭 등의 역효과를 맛보고 있다는 評價가 일반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北韓이 일부 전문가 우대를 시도했다든가 管理體制를 改革하려 노력한 흔적이 있지만, 根本的인 構造變化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서, 南韓은 政府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

드는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습성과 관료들의 既得權에 대한 집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問題가 經濟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側面이 없지 않다.

넷째, 對外關係에서는 종래 南韓이 對外開放과 수출지향 정책을 견지해 오는 과정에서 對外 종속의 問題點을 자아낸 것으로 비쳐진 반면에, 北韓은 主體성과 자립갱생의 강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閉鎖的인 經濟開發과 技術開發 정책을 고수해 옴으로써 마치 第3世界에 있어서 自主的인 경제운영의 모본인양 선전되어 왔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南韓의 對外開放이 반드시 종속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北韓의 자립갱생이 꼭 종속의 結果를 뜻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南韓의 對外開放은 國際環境이 惡化됨에 따라 經濟의 自家適應力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는 側面이 있는 데 비하여, 北韓의 閉鎖는 經濟를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作用할 개연성이 더 크다. 한정된 國內市場의 規模, 技術開發의 낙후성, 資本의 부족, 必要한 資源獲得의 기회축소 등 자폐적 체제(autarky)는 결코 경제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온죽, 1988).

다섯째, 더군다나 군사비를 과도하게 支出해야 하는 北韓의 經濟는 國民生活의 향상이라는 견지에서 매우 심각한 제약조건으로 作用한다. 이 점에서 南韓도 負擔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北韓이 월등 불리하다.

요는, 經濟體制 하나만을 두고 보아도 構造的 유연성의 이점

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評價는 다시 綜合
의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체제 對備
에서 주목할 것은 北韓式의 고전적 社會主義 체제와 원리의 고
수는 경제를 일구는 데 決定的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이 소련,
동부 및 中央유럽과 중국의 經驗에서 이미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한 根本的인 變革의 必要性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南韓에서도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效率性에도 不拘하고 불평등
의 문제를 해결하는 防策이 나오지 않는 이상 經濟의 運用에
問題가 계속 發生할 可能性을 염두에 두어야 할 狀況이다.

IV - 2 . 統合機能 : 政治體系의 能力 比較

1 . 政治體制的 一般的 特性 對比

南北韓의 정치체계를 包括的인 概念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
리가 따른다. 그러나, 北韓 연구를 하는 한 外國人은 최근〈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내세우는 이름과는 달리 〈民主主
義〉도 아니고 共和國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Hallid-
ay, 1989). 그렇다면 北韓은 어떤 정체를 가진 社會인가?
아직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北韓이 全體主義的인 모형에 가
장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는 거의 유일한 事例라는 데에 대
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양호민, 1988 ; 이상우, 1988 ; 이은
죽, 1988).

전체주의적 정체의 요체는 一定한 관제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앞세워 통치하는 強力한 독재자, 그리고 그가 이끄는 단일 대중정당으로 構成된 것이라 규정한다. 暴力을 包含하여 警察統制 機構를 이용한 통치와 社會統制, 모든 군사적 資源의 獨點, 經濟의 中央集權的 計劃과 통제, 대중매체의 獨點, 사법의 행정적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하면서, 당의 지배아래 관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代案이나 도전을 禁하고 人民을 持續적으로 동원하는 체제이다(Friedrich and Brzezinski, 1965; Johnson, 1970). 더구나, 北韓은 確固한 權力엘리트 構造를 지니고 그 바탕 위에 개인숭배를 결들인 일종의 신정(神政) 독재 체제인데다, 전통적 가족주의까지 수용하여 權力的 부자 세습마저 시도하는 變型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서, 남한은 적어도 形式上 합헌 共和國으로 民主的인 制度를 採擇하여 다원적인 政治體制를 이루고자 하는 社會이다. 다만, 그 동안의 政治運營에 있어서 權威主義的인 指導者와 그를 둘러싼 엘리트집단과 관료체제가 政治의 民主化와 社會의 自律化(political democratization, societal liberalization)를 抑制하는 시책들을 펴 오다가, 1987년 여름以後로 이 두 過程이 서서히 실현되는 方向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관료주의적 要素는 상당히 남아있고, 정치적 민주화나 社會的 自律化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게 實情이다. (金璟東, 1988; Johnson, 1989).

그렇다면, 이러한 두 체제는 社會體制的 統合機能을 주로 擔

當하는 部分體系로서 어느 정도로 能力을 發揮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問題點과 長短點은 무엇인가를 앞서 提示한 分析틀에 의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體系能力의 比較

1) 統合能力

政治體系의 統合能力이란 정치체제 즉 政權이 제시하는 일정한 가치지향에 대하여 社會의 각 부문과 개인 성원들이 동조하게끔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했을 때, 南北韓의 차이는 확연하다. 남한은 우선, 基本的으로 다원주의 社會이다. 다원주의가 여러가지 뜻을 내포하지만, 政治理念 내지 政治社會的 가치지향에 대한 동조라는 次元에서 볼 때는 理念的 다원성, 價値指向의 多樣성을 일컫는다. 이 점에서 남한에는 公式的인 <자유민주주의와 市場經濟體制>라는 理念에 대한 반대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지로 存在한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이견들을 표방하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의나 가치를 전파, 實現하기 위한 組織體들을 構成해서 活動하기도 한다. 이러한 信念과 價値의 다원성은 비단 政治經濟的 體制와 直接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 종교적 세속적 價値指向에서도 변성한다.

그런데다, 주로 정치적인 理念의 차이 때문에 政權을 정면으로 반대하여 革命的 수단으로 政權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을 비롯하여 각종의 반체제, 반정부 운동들이 相當히 活發하다. 일상

적으로 警察力과 물리적 충돌을 하는 군집행동을 包含하여, 이들은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여 政權에 도전한다. 이런 次元에서 南韓에서는 정치체계의 통합능력이 100%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理念的으로 볼 때, 아직은 大多數 國民이 國家가 주장하는 基本的인 指向을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北韓의 政治體系는 거의 완벽한 統合을 形成, 維持하는 능력을 發揮하고 있다. 그 理念의 기초는 1972 년의 社會主義 新憲法 第4條에서 밝히고 있는대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조선로동당의 主體思想을 자기생활의 지도적 指針으로 삼는” 것이다. 다음으로, 國民(憲法에서는 公민이라 함)의 權利와 義務는, 憲法 第48條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原則에 기초한다” 아울러, 第68條에서는 “公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社會와 人民의 리익, 조국과 革命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革命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라고 재 강조하고 있다(Cho, 1986 ; 韓國教育開發院, 1988 : 267 ; 272 ; 274) .

여기서, 主體思想은 北韓 住民을 통합하는 理念的 體系이고, 집단주의는 그러한 理念的 統合의 原則이다. 主體思想에 대해 그 要點만 지적하면, 다음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양호민, 1988 ; 이상우, 1988 ; Park, 1979) . 1) 사람은 모든 것의 주

인, 모든 것을 決定하는 운명의 주인이며, 目的意識的이고 能動的인 活動을 통하여 世界를 자기의 의사와 要求에 맞게 개조해 나가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存在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는 사상으로, 人間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人間中心 世界觀, 人間觀이다. 2) 그런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社會的으로 形成되고 발전해 온 人間의 社會的 속성이기 때문에 社會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면 그것이 發揮될 수가 없다. 社會는 個人的 擴張으로서 집단은 <근로인민대중>과 동일시한다. 이처럼 人間中心의 世界觀을 계급사상으로 擴張하는 주체사상의 논리가 집단주의이다. 3) 하지만, 革命의 主體인 근로인민 대중은 처음부터 스스로 정치적 자각을 얻어 革命意志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 노동계급과 勤勞大衆의 根本要求와 利益을 반영한 革命理論을 내어 놓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는 <당>을 창건하여, 그의 革命的 영도를 실현함으로써 노동계급이 비로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革命階級이 된다. 수령과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絶對的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체사상이 마침내 김일성주의로 正式化되는데, “現時代의 향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主體의 사상, 이론, 方法의 체계이며, “主體思想은 김일성주의의 알맹이로 되는 根本假想”이므로, “김일성주의는 곧 주체사상이라고도 일컫는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수령을 “흔히 革命의 녀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최고영도자”라는 뜻이고, 당은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要求와 指向을 實現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신문학사, 1988:18;192;203)

그리하여, 노동당 規約 전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主體思想, 革命思想에 의해 指導된다. …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思想體系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과 당 활동의 基本原則으로 삼는다. … 主體思想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계속 強化한다”(北韓研究所, 1983:1742). 이처럼 당을 유일사상화해야 하는 당위성은, “한 사람의 몸에는 한가지 형의 피가 있어야 하고 전당이 그것으로 一色化되어야 하는 것이다. … 만일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思想이 조금이라도 許容되거나 行動上 統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신문학사, 1988:216).

수령의 영도아래 당이 勤勞大衆을 다시 영도할 때 大衆이 따라야 하는 原理가 바로 集團主義이다. 앞서 憲法에서 規程한 集團主義를 해설하는 內容을 간추리면, “集團主義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特色의 하나이며 … 勤勞者들이 굳게 뭉쳐 共同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社會主義・共產主義 社會生活의 기초를 이룬다”고 하며(人民科學社, 1973:61), 나아가, “集團主義는 수령과 革命, 組織과 集團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공산주의적 革命情神으로 몸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直接

조직 령도하신 抗日革命戰爭 時期에 發生하였으며…집 단주의의 최고 표현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社會科學院, 1973 :1083, 이 중, 1987 :287).

이와같은 理念的 統合을 구현하는 具體的 方法이 이른바 “군중노선”이라는 名目으로 대중동원을 極大化하는 集團主義的 方法이다. 구체적인 보기로는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속도전>, <3대혁명소조운동>, <은 社會의 主體思想化運動> 등의 여러 形態를 띤다. 실상 이러한 동원의 目標와 形式은 주로 經濟的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이들이 政治 教養事業의 일환으로 기능하였으며 따라서 이 같은 동원의 組織的 맥락으로서 동시에 정치교양의 기능을 遂行하는 각종 集團들이 있다(도홍렬, 1977; 1990; 황성모, 1977).

조직생활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모두 包含하는데, 우선 비공식통제 내지 통합조직으로는 <家庭의 혁명화>의 기치밑에 가족의 정치교양 기능을 강조하는 데서부터, 지역공동체의 <인민반>, <5호담당제>, 직장에서 수시로 進行하는 정치교양, 대중매체 등을 통한 社會, 平生教育 등이 있다. 공식적인 組織生活은 어린이의 탁아소와 유치원, 각급 學校의 公式教育말고도, 각급 학교의 소년단, 사로청(社會主義 로동청년동맹), 직맹(조선직업총동맹), 농근맹(농업근로자동맹),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 문예총(문화예술총동맹), 작가동맹, 기자동맹, 기독교동맹, 불교연맹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組織들이

모두 정치 교양사업의 매개이기도 하다(도홍렬, 1977; 1990; 황성모, 1977; 임희섭, 1977; 이중, 1987).

남한에서도 정부가 “일사불란”이라는 말을 자주 쓴 일이 있는데, 이는 물론 社會的 동원과 關聯된 概念이지만, 北韓에서는 모든 社會的, 集團的 活動에 이 말을 자주 쓴다. 특히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노동당의 전 사회의 革命化 기도에 바로 빈틈없고 어긋남이 없이 秩序가 정연하고 體系가 흔들림이 없는 사회통합 기능을 정권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규제 능력

규제능력이란 주로 일탈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능력인데, 이 문제는 바로 위에서 통합능력을 다루면서 상당한 정도 언급을 한 것이다. 다만, 통합기능이 주로 일정한 가치나 이념에 대한 동일시 내지 동조를 확보하는 일인 데 비해서, 규제기능은 그러한 통합기능에 약간의 일탈이라도 생길 때 이를 규제 내지 통제하는 일이 된다. 이 점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물론, 북한의 일탈현상 자체의 빈도와 종류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자료가 부족한 탓에 자세한 이해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서이다.

남한에서는 특히 근자에 비행과 범죄가 다양해지고 난폭해지며 빈도 역시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1988년 9월에서 1989년 8월까지의 1년동안에 적발된 10대 청소년범죄는 97,550 건으로 1년전의 86,565 건보다 12.7%

가 늘었다. 구속영장 신청건수로 본 일반범죄의 증가 추세를 보아도, 1981년에 118,138 건이었던 것이 1988년에는 147,120 건으로 늘어나, 7년사이에 25.2%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연합통신, 1990:347:860). 주요범죄 중에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고 이에 대한 보도가 대중매체를 뒤덮는 실정이다. 그럴때마다 당국은 경찰수를 증가시킨다든가 새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새로운 결의를 국민앞에 다짐하지만 사태는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도 각종 사회문제와 일탈행동이 있는것이 분명하나, 그것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만연하고 심각한지를 가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는 대개 범죄 또는 일탈의 유형을 분류하고 소수의 사례들을 예시하는 정도에 그친다(이장현, 1977:유설렬, 1987:오정수, 1990). 우선 북한 형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범죄의 종류를 보면, (1)국가주권 적대, (2) 국가관리 침해, (3) 국가소유, 사회 및 협동단체 소유침해, (4) 인신침해, (5) 공민의 재산침해, (6) 노동법령 위반, (7) 공무상 범죄, (8) 경제범죄 및 (9) 관리질서 침해 (10) 사회적 안전 및 인민보건 침해 등에 관련된 범죄 등이다. 이것을 다시, 정치범, 인신침해범, 경제범 및 청소년 범죄로 분류하기도 한다.

어쨌든, 사회적 일탈은 광범위한 사회통제 기제에 의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길을 주로 채택하는 것이 북한의 사회 통제정

책 방향인 것 같다. 이는 전사회적인 통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고로 실지로 많은 범죄와 비행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사회통제기제는, 첫째, <가정의 혁명화>라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둘째, 인민반의 5호담당제, 셋째, 각종 학교와 당외곽 조직들, 그리고 대중매체 등이다. 그러나, 일단 일탈이 일어나면, 역시 가족 등 원초집단에 의한 비공식 통제, 각종 이차집단, 조직체를 통한, 준공식적 통제 및 공안, 사법제도에 의한 공식적 통제 등으로 규제한다. 이 모든 기제들은 기본적으로 당의 규제와 통제아래 정치적으로 지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장현, 1977 : 유석렬, 1987 : 오정수, 1990) .

요약컨대, 정치체계의 규제 기능은 상당한 정도 통합 기제에 의하여 이미 처리가 되고, 따라서 통합수준이 높은 북한에서는 사회적 일탈의 규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남한은 기본적으로 개방, 다원 사회이기 때문에 일탈의 예방이나 규제가 힘들게 되어있고, 더군다나 근자에는 전반적인 사회의 가치관의 혼란과 광범위한 부규범상태 (anomie)로 말미암아 비행과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으로 조악해지는데도, 이에 대한 공안 내지 치안당국의 대처가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당국에 대한 일반의 불신도가 높아 공안, 치안공무원들의 사기도한 말이 아니다. 이점으로 보면, 적어도 표면상, 남한이 북한에 비해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있다.

3) 象徵能力

정치체계의 상징능력이란 일정한 문화적 상징으로 국민을 설득하여 체계에 대한 지지를 얻고 체계유지를 도모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점에 있어서도 이미 앞의 두가지 능력, 통합 및 규제능력과 관련상당 정도 다루었다. 특히 북한에 관해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적 상징체계를 중심으로 정치체계가 통합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 설득함으로써 국민의 광범위하고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는 단일 상징은 물론 <김일성>이라고하는 신적이라고 되풀이 강조되는 정치지도자의 존재이다. 실지로 모든 문화적 매체가 이 상징하나를 위해 총동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겨, 남한에는 이에 버금갈만한 문화적 상징이 정치적 지지를 유도해내는 사례가 없다. 다원사회의 한 특징이다.

여기에 북한의 각종 문서에서 <김일성>이라는 상징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의 보기를 간추려 몇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김일성주의 혁명론>을 해설하는 책에서 인용한다 (신학문사, 1988 : 199-20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우리 시대의 탁월한 수령으로 등장하신 불세출의 영웅이시다...탁월한 수령으로서의 천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완벽하게 지니고 계시는 걸출한 영도자이시다...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대사
 상이론이시다...시대의 요청과 역사발전의 먼 앞날을 천
 재적으로 내다보시고...또한 세련된 영도로 혁명과 건설
 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다...조선
 혁명을 빛나게 영도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세계혁명을 이
 끌어주고 계신다...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불굴의 의지와 비상한 전개력으로...대사상가이시며 영도
 의 천재일 뿐 아니라 또한 고매한 덕성을 가장 숭고
 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이시다...우리시대 진보적 인류의 영명한 수령이시다... 그
 러기에 오늘 전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 인민들은...“20
 세기가 낳은 걸출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면
 서 한결같이 존경하며 흠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북한에서 출간하여 읽히고 있는 소설에서 묘
 사하고 있는 <김일성>이라는 상징의 의미와 거기에 대한 인
 민의 느낌과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들을 선별적으로 인용하겠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주
 셧으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분이 아
 니신가!...태양에서 시작한 햇빛이 수억만리 우주공간을
 지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생명을 주고 키워주듯이
 만사람을 보살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의 크

나큰 사랑이 당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통해 자신에게로
닿고 있음을…느꼈던 것이다 (김용한, 1975:49:51).

나라의 대건설로부터 상점의 상품목록에 이르기까지 그의
의 어버이사랑에 의해 이룩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우
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이께서 마련하시지 않은 것
이란 없었다…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수령님의 교시
를 집행하는 것인데 그 사업은 우리 인민에게 대한 수
령님의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

(김용한, 1975:163 -164).

반약 과원공사에서 지장을 주어 매년 과수생산을 떠군
다면 우리는 수령님과 당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
하는 것으로 됩니다…수령님께서 하라하시고 대중이 원
하는 사업을 할 때 천백배의 힘이 생기고 없던 예비
도 생겨나다…(김용한, 1975:40:44).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샘이 온 조국땅에 분수처럼 뿜
어나오며 대지를 끝없이 적시고 있는듯 싶었다…이 세상
에서 우리 인민을 사랑하시는 수령님의 은덕에 사람도
끓고 산천도 춤추는 속에서 날은 흐르고 가을걷이가 시
작되었다 (김용한, 1975:198).

이 위대한 분이 서계시는 세계의 높이를 잴 수 있는 측
정수단이 그가 아는 한 아직은 없는 것이다…장군님께
서는 방황하는 나그네…박시봉이를 만나주시었다. 어머니

젓줄기인양 가슴속깊이 젓어들던 그날의 그움성, 그 사랑, 그 배려, 그 영광을 안고 오늘에 이른 70대의 로 교수였다(정창윤, 1983:145:216).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분제라면 선행과학이 어떤 부정론을 가지고 있든 해야 된다는 원칙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성 원칙이라고 말합니다...우리가 할 일은 무연탄용선로를 만들어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뿐이란 말입니다...박서봉교수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응당한 보답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더없이 슬피하였다는 것을 당중앙에 보고하였다(정창윤, 1983:211;223;224).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김일성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는데 네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집은 대가 끊어지는거나 같은거다 대가 말이다! (김보행, 1979:333).

끝으로, <로동신문>사설을 한 토막 인용한다(<로동신문>, 1978. 8.23).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수령을 모시지 못하여 복숨은 있어도 동물과 같은 망국노의 서름을 안고 살아오시었다...인간의 진정한 탄생을 부모로부터 육체가 태어나는 데서가 아니라 당과 수령에게서 사회 정치적 생명을 받아 안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인민들은 수령을 모시게 되

어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생명을 지니고 새로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말 가운데에는 “이몸 바쳐 수령님을 위하여 죽으면 내 고향 안에 영생하리”라는 구절이 있다. 가히 종교적 차원이라 할만하다.

비단 소설뿐 아니라, 잡지류의 출판물에도 이런 대목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참으로 가슴뜨거운 어버이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러 하던 그들을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 것만도 더없는 영광인데 이처럼 몸소 찾아오시여 뜨거운 사랑과 다함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니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으랴…오늘은 평범한 녀성근로자들의 아이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세상에 부러울것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애기 어머니들의 출퇴근길을 넘려하시여 보내주신 사랑의 뺨스를 타고 새마을 1동에 다달았다 (〈조선녀성〉, 1985. 4:29).

세월이 흘러 어느덧 어머니가 된 그의 가슴은 언제나 아들딸들을 돈 한푼 받지않고 끝끝하게 키워주고 공부시켜 주시는 어버이수령님들과 당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지였다…은혜로운 해빛아래 근로녀성들의 슬기

와 재능이 꽃피고 열매맺는 우리 조국. 그 위대한 품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는 고마움으로 하여 뜨거워오르기만 하였다. 공장구내를 돌아보던 우리는 덩실하게 지은 탁아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커다란 글발이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덥게 해준다(<조선여성>, 1988. 3: 25).

필자는 국제도시 스위스의 제네바시 르망호숫가에 자리 잡은 북한 공관담장에 큰 길가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이 걸어놓은 현수막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빕니다>라고 커다랗게 써 붙인 것을 목격하고, 한글도 모르는 외국도시에 저런 현수막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다. 실지로 북한 TV 뉴스에서 어떤 여인이 김일성과 악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북한 각지에는 동상과 사진, 기념장소 등이 가득하고, 옷깃에 사진까지 달고 다니는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는 역사의 왜곡까지도 서슴지 않는 정지에 이르렀다.

이같은 개인숭배는 1980 년대에 오면서 김정일에게로 연장되는 증좌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한가지 보기를 먼저 들어 보자. 사회과학원 전국봉이라는 명의로 <조선여성>지 1984년 6월에 기고한 <가정의 대는 곧 혁명의 대>라는 기사를

보기로 한다 (1984. 6:16) .

<가정의 대는 곧 혁명의 대입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정식화하신 이 고전적명제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위업계승에 관한 심오한 사상과 혁명의 대를 영원히 빛나게 이어주시려는 한없이 숭고한 의리와 고결한 사랑이 담겨있다...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이 참다운 충실성이다 ... 우리는 자신을 당과 수령님께 한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준비하는 것과 함께 후대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움으로써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소설이나 기타 문서에서 김일성만 부각시키던 관행이 바뀌어 때로는 부자를 동시에 거명하든가 아니면 김정일만 내세우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조선여성>지의 보기를 한 두 가지만 더 들겠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사로운 어버이 사랑속에 나날이 꽃피나는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알고 누리는 행복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다
(1984. 4:7) .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로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증진시키는데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1985. 4:28).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어주시는 번영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 (1988. 3:24).

당이 부르는 곳이라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그 어디에나 달려가 충성의 마음,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들, 이들의 행복과 삶의 보람은 언제나 성실한 로동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 가는 그 투쟁속에 살고 있었다 (1988. 3:26).

참으로 생각할수록 자신이 누리는 오늘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오로지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한량없이 깊고 넓은 품에 있는 것입니다 (1988. 3:22).

위의 예는 부자가 함께 등장하는 사례들이고 아래의 것들은 김정일만이 언급하는 보기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옷차림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데서...천이 줌 들더라도 녀학생들에게 양복을 해입힌것은 잘한 일이라고 치하해 주시었다. 순간 일꾼들은 이

를 할 수 없는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1984: 4:7).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
시었다. <몸이 건강하여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바와 같이 몸을 튼
튼하게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985. 4:36).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모범적인 여성지도자들 20여
명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도록 크나 큰 배
려를 돌려주시였으며 전체 지원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
랑의 선물을 보내주시는 따사로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었
다 (1988. 3:27).

이를 능가할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북한의 모습과 비겨 볼
때, 남한은 그와같은 유일 상징이 없을 뿐 아니라, 한가지 상
징을 두고도 각양각색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선전을 해도 말릴
수가 없는 다원 사회이기에 얼마간의 혼란도 수반한다. 그 대
표적인 보기로 <민족>이라든가 <통일>, <민주>, <복지사회>
같은 상징들은 어느 정파나, 이념적 집단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즐겨, 전매특허한 것처럼 쓰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 및
수단에 있어서는 천양지 차를 보이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정치체계의 상징 능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역시 북한
이 월등 우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4) 保安能力

여기서 말하는 保安能力이란 政治體制 자체를 安定되게 견지하여 國民의 安全을 圖謀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한다. 이는 물론 對外的인 保安도 包含한다. 對外保安은 南北의 軍事力을 比較함으로써 알 수 있는 일인데, 여러가지 指標로 보아 일단 北韓의 軍事力이 우세한 것으로 評價된다(백중천, 1989). 이에 관해서는 專門的인 判斷을 할 처지가 아니므로 對比表만 提示 하겠다.

〈表 2〉 南・北韓 軍事力 比較

區 分	南 韓	北 韓
정 규 군	629,000	842,000
육 군	542,000	750,000
해 군	29,000	39,000
공 군	33,000	53,000
예 비 전 력	5,043,500	3,578,000
전 차, 장갑차	2,550	4,990
방공포, 대전차포 등	650	8,800
지대공 미사일	Javelin, Hawk, Nike	SA - 7
잠 수 함	3	21
구 축 함	11	-
프리게이트	18	2
초계함정류	105	365
수륙양 용	52	126
폭 격 기	-	80
전 투 기	284	420
요 격 기	68	266
공격용 미사일	Side winder, Sparrow	AA - 2 Atal

出處 : 백중천 (1989 : 159 ~ 161)

한편, 體制의 對內的 安保能力에 있어서도, 政治的 安定이라는 側面에서 南韓은 北韓과 비길 수가 없이 不安定하다. 時間적으로 볼 때, 南韓에서는 建國 이래 네번이나 政權이 바뀌었고, 그 중 두 차례의 軍事 쿠데타를 포함하여 政變에 의한 交替가 支配的이며, 현재의 政府가 定規的 節次에 의하여 形成되기는 했다. 하지만, 아직도 社會 및 政治權 일각에서는 그 正統성에 不信을 가진 소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의 時點에서 보아도, 政治狀況은 계속 不安定하다. 가령, 1989년 여름의 輿論調査는 당시의 時局을 불안하다고 意識한 사람들이 88.5%나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중 “매우 불안정하다고 應答한 이는 31.8%에 이른다. 불안의 이유를 政府與黨에게 돌린 사람은 34.1%로 가장 많았지만 運動權, 在野, 勞動系 등의 活動에 責任이 있다고 본 사람들도 27.5%나 되었다(추광영외, 1989 : 6,15). 또 1989年 12월에 實施한 다른 輿論調査에서도, 당시의 政治現實에 불만스럽다고 應答한 사람들이 70.3%나 되고, 그 比率은 지난 3年사이에 12%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권태환외, 1990 : 22). 학생들의 政治示威는 이미 30年의 연속 記錄을 創出할 정도로 종식되지를 않으며, 이들을 包含하여 政治權 外部에서 政治的 發言과 活動을 벌이는 이른바 在野 勢力들의 場外政治가 상당한 影響力을 미친다.

여기에 비하면, 北韓의 政權은 어떤 기제와 술수에 의해서든 간에 도전받지 않은 채 40年 이상을 버티고 있다. 물론, 北韓

과 같은 全體主義體制 안에서 反體制的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있을 게 틀림없고, 또 간간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事例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유석렬, 1987; 이장현, 1977).

그러나, 政權 形成 初期부터 金日成은 效果的으로 정적들과 反對 勢力들을 숙청 내지 除去하는 데 성공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대로 특이한 統合, 規制 및 象徴으로 體制를 維持하고 있다. 그 理由중에 하나가 초기에 社會主義 改革을 斷行하면서부터 分配能力에서 南韓을 앞지르는 社會主義 體制를 構築하였으므로 政權의 安定에 有利한 地位에 섰다. 그리고 개인숭배와 이데올로기적 교화에 의한 體制 維持의 戰略에 관해서도 위에서 間接적으로 살펴 보았다(이온죽, 1989). 실지로, 최근, 귀순한 大學生들의 證言에 따르면, 北韓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南韓과 戰爭을 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5) 分配能力

政治體系의 分配能力이란 社會가 創出하는 갖가지 資源들을 成員들에게 公正하게, 골고루 配分하는 政策으로 나타나는 能力이다. 이 點은 經濟體制와 社會構造라는 두가지 側面과 密接한 關聯을 갖는 것으로, 經濟體制가 市場經濟이고 自由競爭이 주된 機制인 경우는 政府의 分配機能이 이에 의하여 制約되고, 주로 그러한 競爭過程에서 不利한 構成員들이나 階層들에 대한 福祉 政策의 性格을 강하게 띤다. 이러한 體制에서는 社會階層化 現象도 대체로 市場機能과 個人的 業績이라는 基準에 따라 形成

되므로, 이 方面에서도 역시 政治體系의 介入 여지는 줄어들는다. 그렇더라도, 政治가 調整하고 施行해야 할 福祉政策의 必要性은 여전히 있는데, 이 方面에서 南韓은 北韓과 같은 社會主義 體制를 採擇한 社會와 比較가 되지 않는 不利한 與件에 있다.

먼저, 所得分配 構造나 指數를 보면, 1960年代 이후 1970年代 후반과 1980年代 전반까지 다소 惡化되었다가 그 뒤로는 다시 好轉되고 있는 趨勢이다(經濟企劃院, 1990:56, <表3> 參照). 그뿐 아니라, 그동안 미루어오던 最低 賃金制를 實施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適用範圍를 擴大하고 있으며, 學歷, 職種, 性別, 地域別 賃金隔差도 지난 몇년 사이에 줄어드는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는게 사실이다(經濟企劃院, 1989).

<表3> 所得分配 趨勢

所得分配指標	1965	1970	1976	1980	1985	1988
上位 20% 所得占有率 (%) (A)	41.8	41.6	45.3	45.4	42.7	42.2
下位 40% 所得占有率 (%) (B)	19.3	19.6	19.9	16.1	18.9	19.7
(지니) 係數	0.344	0.332	0.391	0.389	0.345	0.336
10分位 分配率 (B / A)	0.463	0.472	0.372	0.354	0.443	0.466

出處: 經濟企劃院 (1990 : 56)

그러나, 이와같은 客觀的 指標들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3 ~ 4 年 사이의 國民 輿論調查에서는 所得隔差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9 월에 이르며, 매우 심각하다는 比率이 더 늘어나는 傾向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展望에 대해서도 否定的인 應答의 比率이 增加하고 있다 (권태환외, 1990 : 26 ; 31) .

특히 지난 몇 해 사이에는 不動產 價格이 所得 上昇率을 앞질러 急騰하는 현상으로 階層間的 위화감을 더욱 부채질하는 현상이 일어나 不平等構造에 대한 國民의 意識은 상당히 否定的이다. 이에 대한 政府의 對策은 土地 去來를 規制하고 稅制로써 投機를 抑制하는 한편, 住宅普及을 擴大하려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所得稅 制度도 改善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國民感情과 既得權層에 대한 不信을 緩和시키는 데에는 대체로 未洽한 水準에 머물고 있다.

한편, 社會保障 部門에서는 1960 年代 이후 漸次的으로 施行해 오기 시작한 각종 年金制度도 國民年金으로 擴張하고, 醫療保險 또한 상당한 範圍로 擴大되고 있으며, 最近에는 產業災害保險制度도 擴散一路에 있다. 其他 종래의 부조 및 구호제도를 擴充하는 등 福祉分野에서 積極性を 띠고 있다. 다만, 아직도 절대 貧困階層에 대한 根本對策이 미진하고 保險制度에도 管理상의 問題點이 드러나고 있어 改善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광찬, 1989 : 최일섭, 1984) .

이에 비하여, 北韓은 초기부터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의한 社

會主義 改革을 단행하여 土地를 包含한 主要産業의 國有化 내지 共有化를 成就함으로써 不動產 소유에 內在하는 投機에 의한 階層的 差等の 所持를 消滅시킨 셈이다. 아울러, 社會主義體制의 強點이라 할 수 있는 教育, 醫療 및 住宅의 無償 供給을 制度化하는 措置들을 段階적으로 施行하여, 教育分野에서는 11年 義務教育을 자랑하고(韓國教育開發院, 1988), 醫療에서는 <完全하고 全般的인 無償治療制>를 實施하기 시작하였으며, (문옥륜, 1989), 각종 保險, 保護, 構造 및 福祉施策을 擴張시켜 오고 있다(최일섭, 1990). 특히, 어린이와 婦女子를 위한 福祉政策과 施設面에서는 北韓이 앞서 있다. 가령, 일하는 어머니들이 유아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 制度는 政策的으로 力點을 두는 事業으로 工場, 企業所, 農場, 地域共同體 등에 全國적으로 6萬餘所를 設置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報導한다(문용린, 1990).

하지만, 北韓에서도 그 나름의 階層構造가 形成되었으며, 賃金 隔差를 비롯한 生活水準과 삶의 질에 있어서의 階層別, 職位別 差等은 뚜렷하다. 특히 勞動黨員과 高位幹部 등 特權層의 差別待遇는 두드러진다는 것이 歸順者들의 證言이다. 教育과 醫療의 無償 내지 住宅의 賃貸制度는 표면상 公正한 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惠澤과 質에 있어서 階層과 職位에 따른 差別이 심하다는 것이다. 가령, 出産을 위한 施設利用權도 差等を 둔다는 사실이 最近의 歸順者들의 證言에서 밝혀졌다. 例를들어, 黨

幹部나 職位가 있는 사람들은 問題가 없지만, 一般 住民은 子女를 두명 낳을 때까지는 施設이 좋은 產院에서 出産할 수 있어도, 세번째 子女부터는 施設이 월등히 낙후된 病院으로 가야 한다. 물론, 產前產後 休暇制는 職場 女性에게 돌아가는 主要惠澤이다. 그러나, 福祉란 대충 형식은 갖추었지만 물자의 不足으로 質的으로는 대단한 것이 못된다고 한다. 參考로, 北韓의 賃金體系에 관한 資料를 <表 4>에 紹介한다.

<表 4>

北韓 賃金 體系

職 種	賃 金	備 考
事務員：部長級	300 ~ 350원(北韓)	黨 政府 장급,
地方單位 幹部	100 ~ 150	특급 企業所支配人
일반 事務員	70	도 幹部, 軍 單位
技術者：責賃者級	150 ~ 290	責任者
5 等級 技術者	75 ~ 78	1 ~ 2 級 企業所,
勞動者：重勞動者	130	工場支配人, 기사장
輕勞動者	90	鑛夫, 制鐵, 制鍊
其 他	60 ~ 80	工業 從事者
大 學	200 ~ 250	一般機械運轉士
一 般	80	一般輕勞動者
軍人將校：장성급	250 ~ 490	
영관급	120 ~ 215	
위관급	84 ~ 110	
其 他：醫 師	120 ~ 250	(平壤產院의 경우)
배 우	200 ~ 300	人民배우, 貢勳배우 등

出處：國土統一院(北韓 經濟 概觀, 1988)。

요컨대, 두 體制의 分配能力은 基本的으로 社會主義體制를 갖
춘 北韓이 南韓에 비해 優位할 수밖에 없지만, 問題는 것처럼
相對的으로 平等한 分配 机制에 의하여 國民이 누리는 資源의
總量이 워낙 不足한 狀態에서는 삶의 質의 水準이 또한 低下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南韓에서는 不平等으로 인한 상대적 박
탈감이 激化되는 問題가 있는 反面에 北韓은 <다같이 가난한>
平等의 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게다가, 비록 상대적 박탈감이 比較的 둔하다 해도, 北韓과 같
은 경직하고 權威主義的인 體制가 배양하기 쉬운 特權層의 非
理가 體制의 표면적 平等指向을 침식하는 惡材로 作用할 所持
가 있는 반면, 南韓은 持續的인 成長에 힘입어 分配의 公正性
을 補強해 나갈 餘力을 길러갈 수 있다는 利點을 안고 있다.
이것은 곧 體制의 抽出能力과 相關되는 일이다.

6) 抽出能力

위에서 살펴본대로 資源의 配分能力은 分配할 資源 自體를 얼
마만큼 効率的으로 開發, 利用할 수 있는가 하는 體制의 能力
과 關聯이 깊다. 없는 資源을 끌고루 나누어 봤자, 모두가 살
기 어려운 平等밖에 얻을 수 없다는 教訓을 우리는 社會主義
權의 經驗에서 알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選擇임에
틀림없다. 南北의 比較도 이러한 觀點에서 接近할 때는, 最小限
度 抽出能力에서 만은 南韓이 월등하게 앞선다는 것을 부인할 수
가 없다. 이 點은 이미 앞서 總量 比較에서 드러났고, 또 社

會主義 對 資本主義의 體制 比較 自體에서도 밝혀졌다. 經濟運用의 效率性에서 北韓과 같은 中央統制的 命令 經濟에다, 자체 類型이 優勢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側面의 比較는 一般論의 水準에서 충분하리라 본다.

7) 革新能力

革新能力은 달리 말해서 環境變化에 대한 適應能力과도 상통하는 要素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一般論적으로 볼 때, 多元的이고 開放的인 社會와 劃一的이고 廢鎖的인 社會 사이에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北韓의 金日成 唯一 體制와 같은 이상화된 全體主義 體制는 스스로의 改革에 결코 민감하게 앞장설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難局 타개라는 課題에 直面할 때, 그러한 體制는 社會的 動員의 기제에 依存하는 길밖에 없고, 制度 改革과 같은 伸縮性을 期待하기가 어렵다.

北韓이 지금까지는 이른바 群衆路線이라고 하는 理念的 動機 지움에 의하여 人民을 動員하는 方法을 利用하였지만, 그러한 群衆路線이란 성격상 일시적인 刺戟을 提供하는 데는 有效할지라도 오래 効力을 發揮하지는 못한다는 弱點을 안고 있다. 실지로, 北韓의 歸順者들이 보기에 그 群衆路線이라는 動員體制는 선전한 허울에 비해 근저에는 實効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體制의 자기 革新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 必須的인 科學 技術의 革新 같은 것도 北韓은 순전히 體制의 廢鎖的 性格上

모든 것을 〈主體〉의 이름으로 自家開發式으로 推進하도록 奮勵하게 된다. 이런 事例는 소설에서까지도 強調되고 있다(정창윤, 1983). 그런데, 科學技術에 直接 從事하는 사람들의 專門的인 見地에서 볼 때, 자기네가 몇 해를 두고 고심끝에 이루어놓고 보면 그 사이 外國에서는 벌써 옛날에 다 끝낸 것이므로 진작에 外國 것을 導入하여 活用했으면 時間과 精력을 浪費하지 않고 훨씬 더 効率的으로 새로운 革新에 몰두할 수 있었으리라는 허탈감에 빠진다는 것이, 科學 技術方面에 상당한 소양이 있는 最近 歸順者들의 證言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統制體制인 北韓에서는 초기부터 官僚主義의 非能率과 保守主義가 政權 次元의 공격대상으로 자주 떠올랐다. 그런데, 最近에 歸順한 大學生들의 經驗에 의하면, 政治, 經濟, 社會文化 모든 면에서 虛偽報告와 公明심에 의한 非理가 만연하고, 將來를 내다보는 長期的 眼目은 커녕, 당장의 補償에 눈이 어두워 創意的인 革新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問題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革新能力面에서는 南韓의 開放的이고 多元的인 體制가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南韓도 그동안의 權威主義的인 政治體制의 관성 때문에 民主化라든가 自律化에서 저항하는 힘이 政治體制속에, 특히 官僚制안에 殘存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南韓의 官僚制가 北韓의 것에 비하면, 革新能力이 優勢하다고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8) 寬容能力

體制에 대한 反對나 批判에 대하여 寬容하는 정도는 그 體制的 權威主義的 정치성과 反比例한다는 것이 一般論의 名題이다(김경동, 1989). 실지로, 南北韓을 比較할 때 政治犯의 規定, 數効 및 그들을 다루는 方式의 非人間的 性質 등으로 미루어 단연 北韓이 不利한 것은 제언의 여지가 없다. 이는 바로 唯一體制的 維持를 위한 全體主義的 統制의 必要性에서 基因하는 것으로 그 體制가 持續하는 한 體制的 寬容能力이라는 問題는 比較가 되지 않는다. 얼마전에는 金日成大學 學生이 改革이 必要하다는 投書를 金正日 앞으로 보냈다가, 마침내 索出되어 사형당한 일이 있었다고 歸順 大學生들이 말하였다. 政治犯은 가족 모두에게 연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不滿이 있어도 웬만하면 자식들의 將來를 위해 참고 산다는 것이다. 南韓도 그동안 權威主義的인 정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 寬容性에 問題가 있었으나 民主化가 進行되는 한에서는 寬容性이 점진적으로나마 增大될 것은 분명하다.

9) 反應能力

國民의 要求에 効果的으로 對應하기 위해서는 國民의 진정한 慾求와 高충을 제대로 알아내는 적절한 기제가 必要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南北의 比較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우선, 北韓은 적어도 制度的으로 群衆路線이라는 것이 있어 人民의 뜻과 要求를 官僚들이 淸澈하고 그 뜻에 복종하도록 促求하는 理

念的 바탕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期待하는 효과를 자아낸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制度는 있다. 한편, 南韓은 選舉로 뽑은 國民의 代表가 發言하는 國會가 있고 앞으로는 地方自治制度 實現될 展望이다. 또, 官僚體制에는 民願窓 口와 節次가 있고, 基本權과 關聯된 法的인 過程도 차차 民主化되고 있다.

결국, 이런 特徵을 두고 두 體制를 比較한다면, 아무래도 群衆路線과 같은 政治理念的 기제보다는 南韓과 같은 開放的 制度的 기제가 體制의 反應能力을 더 效果的으로 發揮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期待할만 하다.

10) 正統性和 支持 確保

무엇보다도 政治體制가 確保해야 하는 要素는 正統性 내지 正當性和 國民의 支持이다. 이 점에서 南韓은 比較的 開放된 體制이기 때문에 確認할 길이 많지만, 北韓의 경우에는 알아내기가 어렵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北韓의 金日成은, 비록 理念的 조작과 歷史 歪曲이 動員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正統性을 確保하고 있다고 보며, 國民的 支持는 確固한 것 같이 보인다. 다만, 全體主義的 統制아래 反對 意思를 지녔더라도 表現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限界가 있다. 最近의 歸順者들의 證言에 의하면, 특히 젊은 世帶 사이에서는 金日成 唯一 體制와 金正日 世襲에 대한 正當性을 의심하는 傾向이 강하게 보이는 데 다만 표면적으로 發表를 하지 못할 뿐이라는 현상

을指摘한다. 이 사실은 중요한 意味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外部로부터의 一定한 刺戟이 가해질 수만 있고, 人民의 不滿이 高潮될 때는 동부 및 中央 유럽에서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革命이 可能할 所持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南韓은 그동안 權威主義的인 政權들이 항상 正統性的 脆弱性 때문에 政治的 不安定을 겪지 않으면 아니되었고, 現在로서는 이 問題가 根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특히 學生 運動權과 在野權에서는 계속 問題視되는 要素임에 틀림없다. 이당이나 政治權 自體의 支持도가 全般的으로 低調한 것도 選舉와 輿論調査 등에서 되풀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體制의 象徵能力(특히 指導力의 카리스마)의 限界, 分配, 革新, 寬容, 反應能力 등에서의 脆弱성이 作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런 課題들이 속속 解決됨에 따라 南韓의 政治 體制가 正統성과 支持度에서 훨씬 더 安定性을 찾을 可能性은 北韓의 急激한 추락 可能性보다 더 크다 하겠다.

Ⅳ-3. 統合 및 類型 維持 機能

이 問題는 이미 상당한 정도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一般的인 觀察만 간단히 하겠다.

첫째, 共同體 水準에서 成員들간의 結續과 유대라는 機能으로 보면, 北韓이 廢鎖성과 變化의 緩慢性으로 인하여 南韓에 비하여 훨씬 安定된 統合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社會的 일탈과 社會組織의 와해라는 側面에서도 北韓이 비록 強制性이 社會 統制 기제에 依存한다 해도 南韓보다는 덜 否定的이라 할 수 있다.

세째, 宗教가 社會統合에 寄與하는 面에 있어서는, 北韓은 一般的 傳統宗教의 機能이 不實한 狀況에서 一種의 시민종교 또는 政治的 宗教가 金日成 신격화와 金正日 세습우상화라는 形態로 創出되어 傳統 宗教의 統合機能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南韓의 多元的 宗教實態는 部分的 統合에는 寄與하지만 宗教間, 宗派間의 갈등으로 오히려 때로는 社會的 갈등의 要因이 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일부 종파의 政治的 急進性은 社會 政治的 갈등에도 寄與한다.

네째, 類型 維持 機能이라는 側面에서, 家族의 社會化 機能은 南韓에서 크게 弱화되고 있는데 비하여, 北韓은 政策的, 理念的으로 <家庭의 革命化> 기치를 내걸고 家族의 社會化 機能을 強化하려 하고 있어 對照的이다.

다섯째, 그러나 一般的으로 大衆媒體와 制度 教育의 機能이 強化되고 있는 點은 南北이 共通이다. 다만, 北韓은 教育과 大衆媒體가 公히 體制 維持와 文化的 類型 維持에서 劃一的인 데 비하여, 南韓은 특히 大衆媒體가 文化的 多元性을 助張하는 機能이 더 強化되고 있다는 重要的 差異가 있다.

여섯째, 社會化든 類型 維持 機能이든, 北韓은 各종의 集團, 組織體들이 이를 補強하는 機能을 하는데 반하여, 南韓에서는

이들 자발적 組織體나 中間媒介 集團들이 多元化를 助張하는 傾向이 더 강하다.

Ⅳ-4. 體系 特性의 全般的 比較

그러면, 이제 體系의 一般理論에서 提示한 몇가지 主要名題들을 상기하면서 南北韓 社會體制의 性格을 對比시켜 보는 것으로 體系論的 比較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南韓은 適應機能을 주로 擔當한 經濟部分體系가 다른 部分體系에 비해 너무 강하게 發展하였으므로 理解關心이 價値, 規範, 目標 등을 능가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서, 이른바 <經濟第一主義>, <物質至上主義>가 빚어내는 問題와 不條理가 極甚하다.

둘째, 北韓은 目標達成 機能을 주로하는 政治部分體系가 지나치게 강성하여 다른 部分體系들을 강제로 支配하여 經濟도 폐해지고 社會文化의 다른 部門이 政治에 예속되는 歪曲現象이 ㅁ연하다.

셋째, 南北韓 社會 모두가 部分體系中 하나가 상대적으로 더 비대하게 발달하고 나머지 部分體系와 媒介體系들은 비교적 ㅁ실하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한 가지 部分體系가 나머지 部分體系들을 모두 支配하는 性向을 보인다는 特徵에서 ㅁ통이나, 그 支配的 部分體系가 南韓에서는 經濟(適應機能)인 데 반하여 北韓에서는 政治(目標達成)라는 ㅁ요한 差異를 보인다.

네째, 南北韓 두 體制가 공히, 媒介體系들 中에서는 〈談論〉의 節次에 不實하여 화해를 통한 社會의 統合이라는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한다.

다섯째, 南韓은 適應的 機能(經濟)의 강성 때문에 〈交換〉이라는 媒介體系가 支配的이라, 開放的인 대신에 매우 불안정한 統合을 자아내고 있는 反面, 北韓은 目標達成 機能(政治)의 支配的 優位로 인하여 〈權威〉의 支配로 強要당하는 統合이 이루어짐으로써 自由가 制約되고 自發的 統合의 缺如가 結果한다. 또한, 南韓은 〈共同體的 결사〉가 弱화된 데 비하여, 北韓은 이 점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그로써 동조주의적이고 경직된 統合으로 誘導되고 있다.

結論적으로, 南北韓 모두가 네가지 部分體系나, 네가지 媒介體系가 골고루 均衡있게 발달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體系 發展에의 障礙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共通이다. 따라서, 이제는 發展 可能性의 基準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比較해 보기로 한다.

V. 南北韓 社會의 發展 可能性 比較

V-1. 發展價値의 實現 可能性

어차피 지금부터의 論議는 위에서 分析한 內容들을 다른 視角에서 再評價하는 셈이 되니까 重複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資料의 提示는 必要한 追加分을 除外하고는 省略한다.

네째, 南北韓 두 體制가 공히, 媒介體系들 中에서는 〈談論〉의 節次에 不實하여 화해를 통한 社會의 統合이라는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한다.

다섯째, 南韓은 適應的 機能(經濟)의 강성 때문에 〈交換〉이라는 媒介體系가 支配的이라, 開放的인 대신에 매우 불안정한 統合을 자아내고 있는 反面, 北韓은 目標達成 機能(政治)의 支配的 優位로 인하여 〈權威〉의 支配로 強要당하는 統合이 이루어짐으로써 自由가 制約되고 自發的 統合의 缺如가 結果한다. 또한, 南韓은 〈共同體的 결사〉가 弱화된 데 비하여, 北韓은 이 점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그로써 동조주의적이고 경직된 統合으로 誘導되고 있다.

結論적으로, 南北韓 모두가 네가지 部分體系나, 네가지 媒介體系가 골고루 均衡있게 발달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體系 發展에의 障礙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共通이다. 따라서, 이제는 發展 可能性의 基準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比較해 보기로 한다.

V. 南北韓 社會의 發展 可能性 比較

V-1. 發展價値의 實現 可能性

어차피 지금부터의 論議는 위에서 分析한 內容들을 다른 視角에서 再評價하는 셈이 되니까 重複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資料의 提示는 必要的 追加分을 除外하고는 省略한다.

1. 삶의 質的 向上 可能性

1) 物質的인 삶의 質

먼저, 삶의 質的 向上이라는 發展의 價値基準에 依據하여 比較한다면, 앞에서 總量的으로나 質的으로 分析한 結果에서 밝혀진대로, 적어도 物質 生活面에서만은 南韓이 北韓을 앞지르고 있다는 結論에 별 異의가 없을 것이다. 그 중 특별히 特權層이나 比較的 여유있는 職位에 있는 階層을 除外하고, 또 特히 農村에서는 食糧事情이 매우 困難하다는 事實과, 또 그동안 北韓 住民들이 動員과 政治 教養 學習 등으로 끊임없이 시달리는 強壓된 生活를 하다 보니 身體的 發育에 問題가 있지 않을까하는 疑問이 海外同胞 訪問者에 의하여 제기된 일이 있음을 勘案하면 北韓이 不利한 것은 틀림없다. 正確한 統計資料가 없어 比較는 不可能하지만, 北韓 사람들이 대체로 南韓사람에 비해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하다는 것은 많은 목격자들의 證言으로 드러난다. 物質的 資源의 不足과 統制된 生活의 結果, 身體的인 삶의 質에도 制約이 온 것이라는 暫定的 結論을 얻는다.

2) 精神的인 삶의 質

그러면, 物質的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고 精神的으로도 南韓 國民의 삶은 더 質的으로 우수하고 더 幸福을 느끼는가라는 質問에 대해서는 만드시 肯定的인 大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輿論調査의 結果가 全部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나, 最近 3 ~ 4年 사이에 政治 現實, 經濟 現實, 社會 現實 모든 部門에

서 불만스럽다는 應答의 比率이 계속 增大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社會 現實에 대한 不滿度의 增加가 가장 두드러진다. 강도, 절도, 인신매매, 마약, 불량식품, 環境汚染 등 실로 심각하다는 市民이 자꾸 늘어간다(권태환외, 1990:22~29). 이런 調查 報告가 아니더라도, 現在 南韓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살, 가족해체, 犯罪, 각종 不正腐敗와 不條利, 퇴폐와 享樂 등의 현상은 精神的인 삶의 황폐화라는 깊은 問題의 표피일 수도 있다.

여기에 비길 때, 北韓은 적어도 人民의 宣言的인 表現으로는 <地上樂園>에서 살며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품안에서 무한히 幸福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얼마만큼 額面대로 믿을 수 있는냐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人民 자신들의 느낌의 일부는 反映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最近의 歸順者들의 意見으로는 비록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생각과 言行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젊은 世帶일수록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들에게도 不滿이 있고 그래서 不評도 하게 되지만 무턱대고 공개적으로 不滿을 토로하지 못할 뿐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이라고 반드시 精神的인 삶의 質이 崙고루 向上되는 狀態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主觀的인 認識과 느낌의 次元에서 아마도 南韓이 北韓에 비해 不幸하게 느끼거나 不滿을 품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結論은 可能할 것이다. 北韓이 이 點에서 相對的으로 有

利한 理由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外部와의 斷折로 情報의 유입이 不可能하거나 制限되기 때문에 比較할만한 準據集團이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開放만 하면 北韓의 住民들도 比較가 可能하고 자신들의 不利한 처지에 대한 不滿이 급격하게 增幅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點은 곧이어 檢討할 發展的 組織原理와도 關聯이 있으므로 다시 舉論하기로 한다.

2. 삶의 機會의 擴充

1) 配分の 側面

삶의 機會라는 價値를 擴大시킬 수 있는가라는 次元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역시 資源의 配分に 있어서의 公正성과 均等性이다. 이 점은 위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社會主義體制를 갖춘 北韓에 대해서 南韓이 比較가 되지 않을 않는다. 均等配分の 程度, 다시 말해서 상대적 不平等에 있어서도 南韓이 不利하고 또 配分이나 補償의 公正성 혹은 正義問題에 가서도 不利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考慮하여야 할 要素는 그 配分の 強制性 程度와 分配된 資源의 質의 問題이다. 北韓의 公正성이나 分配正義는 처음부터 中央統制式 強制配分, 즉 배급이라는 制度에 묶여 있으며, 워낙 資源이 不足하고 質이 떨어지다 보니 그렇게 分配받은 것들이 生活의 質的向上이라는 基準에서 不足하고 質

的으로 조악하다는 結果를 招來한다. 그대신, 南韓에서는 不平等과 不公正性에 대한 不滿과 좌절이 심각하다. 예컨대, 輿論調查에서 보면, 所得隔差나 稅金의 不平等이 심각하다는 應答者들이 각각 90%와 80%를 上廻하며 그 比率이 날이 갈수록 높아질 뿐 아니라 앞으로도 호전되기를 期待하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아진다 (권태환외, 1990:26;31).

그런데, 北韓도 새로운 階層의 形成과 그 體制에 의한 歸屬的 地位의 固着化 현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근자에 歸順한 사람들의 입에서 <뻥> (배경, 연출)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北韓 社會에서의 公正性이 흔들린 징조를 발견한다. 심지어, 大學 入學試驗에서마저 <뻥>으로 通過하는 實例가 있다는 것이다.

2) 自由와 參與

配分의 原則을 정하고 合意를 얻는 과정에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自律的으로 代案들을 選擇할 수 있는 自由라는 次元에서 삶의 機會를 分析해볼 때는 또 다른 比較가 可能하다. 가령, 配給은 強制的인 것이다. 그러한 基準, 方法 등을 決定하는 過程에 國民이 參與하고 選擇할 여지는 中央統制, 命令體制 아래에서는 制限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에서 北韓은 뒤떨어진다.

南韓에서는 意思決定에 參與하는 기제가 比較的 열려 있고, 選擇의 여지가 있으며, 原則 自體에 不滿이 있으면 항의나 진정을 할 수 있고, 配分의 原理는 基本的으로 競爭과 業績主義에

基礎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制約은 다르지만, 이는 마치 北韓에서도 公正性和 平等性이 표면적으로는 原則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特權과 조작이 介入하는 것과 상쇄되는 問題라고 하겠다.

V - 2 . 社會組織 原理와 構造的 柔軟性

發展 可能性이 높은 社會는 強制性이 아닌 自發性, 不公正이 아닌 公正性, 自己中心의 利己主義가 아닌 共同體 意識에 立脚하여 自發적으로 獻身하는 이상형 個人主義를 組織原理로 하고 이에 바탕한 유연한 구조를 띠어야 한다는 것이 基本名題임을 이미 밝혔다. 그렇다면, 이런 觀點에서는 南北韓이 어떻게 比較되는가?

1) 意識의 유연성이라는 要件으로 보면, 단연 北韓이 그 이데올로기적 劃一性和 硬直性으로 말미암아 南韓에 뒤진다. 이로 말미암아 創意性의 개발에 支障을 받고 資源의 增大를 위한 科學技術 革新이라든가 기타 變化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體系의 適應力을 阻害하는 一般的 弱點을 안고 있다. 南韓이라고 해서 그 理念의 多元性 하나만으로 意識에서의 유연성을 保障할 수는 없고, 상당히 硬直한 사고가 官僚社會에는 殘存한다는 問題가 있다. 그러나, 相對的으로는 北韓과 比較가 될 수 없는 水準의 유연성과 多元性을 認定해야 한다.

2) 文化的 多元性은 構造的 유연성의 한 표현인 동시에 그

文化的 要件이기도 한다. 그런데, 北韓에서는 모든 文化媒體나 活動이 金日成 唯一思想과 그의 神經화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에 관해서는 한 두가지 資料를 보기로 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우선 가장 包括的으로 文化事業의 目的에 관한 金日成 自身の 言命을 옮겨보자 (金日成, 1974; 内外通信, 1986:442 再引用).

우리의 文學 藝術과 모든 文化事業은 人民을 共產主義的으로 教養하는 힘있는 手段이며, 人民에게 戰爭의 무기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群衆을 教養改造하는 데는 學校教育만으로는 안되며, 宣傳煽動만으로도 안된다. 大衆教養의 훌륭한 手段인 소설·시·연극·영화·音樂 등 모든 形態의 文學藝術을 다 動員해야만 群衆을 教養하는 事業을 效果的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理念的 指向은 出版과 言論에도 適用된다. “出版物은 黨과 大衆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手段이며 黨이 내세운 政治·經濟·文化建設의 課業實踐에로 勤勞大衆을 組織動員하는 힘있는 무기”로 보며, 新聞도 “宣傳煽動者的 機能, 組織者的 機能, 그리고 文化教養的 機能을 遂行한다”는 것이며, 放送 또한 “黨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가장 大衆的인 報導·宣傳 및 文化藝術 宣傳手段”으로 복무한다는 主張이다 (김영주, 1987).

같은 脈絡에서 모든 文化 媒體는 金日成과 主體思想으로 연결된다. 가령, 主體思想에 입각한 文藝 理論에 의하면 (社會科學院, 1975:7),

金日成 동지의 文藝理論은 革命과 建設에 나서는 모든 問題를 자기 人民의 利益과 자기 나라의 實情에 맞게 自體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主體思想의 要求를 具現하여 자기 나라 人民과 자기 나라 革命을 위하여 복무하는 人民的이며, 革命的인 文學藝術을 發展시켜 나갈 方向과 方途이다.

그리고 “수령의 영도를 받지 못하고 수령의 사상을 具現하지 못한 文學藝術은 진실로 勞動階級的이며 革命的인 文學藝術로 될 수 없다……. 우리의 革命的 文藝傳統은 항일革命 鬪爭時期에 위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었다” (정창범, 1987: 385). 끝으로, “藝術人들은 藝術을 위한 藝術이 아니라 黨과 革命을 위한 藝術, 勞動階級과 人民을 위한 藝術을 創造하여야 합니다” (이상우외, 1988: 284).

여기에 덧붙일 必要가 없이, 文化의 劃一性이 北韓의 特徵이다. 이에 비하면, 南韓에서는 最近 1987年 이후에 특히, 이와 같은 北韓의 理念마저 수용하는 조류와 파벌이 活潑하게 活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文化的 多元性이 許容되고 있다. 또한 北韓이 對外的으로 廢鎖的인 자세를 취하는데 비하여 南韓은 거의 全的으로 開放하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外來文化까지 뒤섞여 混亂할만큼 多元的인 文化를 가지고 있다.

3) 유연한 構造를 가진 社會의 制度들이 自律性을 지님과

동시에 專門化의 方向으로 가야 하는데, 北韓의 制度는 모두가 政治集團인 黨의 徹底한 支配와 감시 아래 運用되고 있다는 點에서 全體主義的인 性格마저 띈다. 이 側面에서도, 南韓은 비록 아직은 政府의 影響力이 크기는 하더라도, 相對的으로는 역시 自律性과 專門性이 認定되는 쪽이다. 이것이 여전히 상대적이라는 點에서 南韓도 限界가 있다.

4) 資源配分의 原則과 現實을 일부 이미 檢討하였지만, 階層構造라는 次元에서 이 問題를 구조적 유연성과 연결시킬 때는 階層構造의 多元성과 中間階級の 擴大를 主要特徵으로 들 수 있다. 南韓의 階層構造는 이런 뜻에서 유연한 構造의 要件을 갖추어가고 있다. 農村人口의 急激한 減少와 더불어 都市 勤勞者 階級과 中間階級の 持續的인 팽창이 支配的인 趨勢이다(홍두승, 1983).

이에 비겨, 北韓은 原則的으로 理念에 따라 階級이 消滅하는 方向으로 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 構造의 유연성의 정도는 상당한 水準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住民 統制의 必要에 의하여, 差等的 유인體系를 構築하지 않으면 아니되었고, 신정체제를 공고히 하는 過程에서 特權의 配分을 不平等하게 배려할 必要가 생겼다. 그리하여, 出身成分이라는 基準에 의하여 階層을 區劃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한 社會的 上昇 이동의 차등을 두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 階層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은 省略한다(김채윤, 1977: 이병혁,

1990) .

5) 多樣的階層과 制度部門과 利益集團의 要求를 수용하고 調整하는 機能과 社會的 갈등을 談論的인 方法으로 解決한다는 構造的 유연성의 要件은 南北韓이 公히 未洽하지만 相對的으로 是 역시 南韓에 比해서 北韓이 더 경직된 것은 분명하다. 이 問題는 앞서 政治體系의 收容能力을 다룰 때 整理한 것이다.

6) 對外關係의 유연성이라면 自體적이라고 할만큼 廢鎖하는 北韓과 지나치리만큼 開放的인 南韓은 比較할 수도 없다. 일단, 開放의 長點은 認定하되, 그로 인한 文化的, 民族的 정체의식의 問題만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7) 끝으로, 유연한 構造的 發展 소지라는 점에서 全體的인 評價를 한다면, 아직도 많은 自體 是定을 요하기는 하지만, 南韓이 北韓에 比하여 단연 상대적 優位에 있다는 점을 認定하 지 않을 수 없다.

VI. 結 論

그러므로, 이 結論 部分에서는 南韓의 體制 弱點을 중점적으 로 檢討하면서 北韓이 그래도 比較優位를 가진 分野와 함께 南韓 內部的 改善의 必要性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民族統合을 指 向하는 南北의 對比 자세를 냉철하게 생각하기로 한다.

첫째, 綜合的으로 보아, 體系論的 觀點에서 適應과 統合이라는

1990) .

5) 多樣的階層과 制度部門과 利益集團의 要求를 수용하고 調整하는 機能과 社會的 갈등을 談論的인 方法으로 解決한다는 構造的 유연성의 要件은 南北韓이 公히 未洽하지만 相對的으로 是 역시 南韓에 比해서 北韓이 더 경직된 것은 분명하다. 이 問題는 앞서 政治體系의 收容能力을 다룰 때 整理한 것이다.

6) 對外關係의 유연성이라면 自體적이라고 할만큼 廢鎖하는 北韓과 지나치리만큼 開放的인 南韓은 比較할 수도 없다. 일단, 開放의 長點은 認定하되, 그로 인한 文化的, 民族的 정체의식의 問題만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7) 끝으로, 유연한 構造的 發展 소지라는 점에서 全體的인 評價를 한다면, 아직도 많은 自體 是定을 요하기는 하지만, 南韓이 北韓에 比하여 단연 상대적 優位에 있다는 점을 認定하 지 않을 수 없다.

VI. 結 論

그러므로, 이 結論 部分에서는 南韓의 體制 弱點을 中점적으 로 檢討하면서 北韓이 그래도 比較優位를 가진 分野와 함께 南韓 內部的 改善의 必要性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民族統合을 指 向하는 南北의 對比 자세를 냉철하게 생각하기로 한다.

첫째, 綜合的으로 보아, 體系論的 觀點에서 適應과 統合이라는

두 機能을 중심으로 보면, 南北韓이 서로 엇갈리는 強弱點을 나누어 갖는다. 北韓이 統合에서 한 수 위에 있다면, 南韓은 適應에서 앞선다. 두 體制는 이런 뜻에서 相互 補完의 餘지를 지닌다.

둘째, 適應機能을 經濟體制에다 국한시킬 때, 다시 南北韓이 서로 補完해야 할 要素들을 가진다. 社會主義的 中央統制와 命令 經濟는 北韓經濟로 하여금 效率性を 잃고 沈滯하게 하는 반면, 資本主義的 市場競爭 體制를 가진 南韓經濟는 成長은 할 수 있지만 社會的 不均等과 과당 競爭의 否定的 後遺症을 잃고 있다. 北韓이 成長을 회복하고 南韓이 不平等의 問題를 解決하는 데에는 相互間에 수용해야할 體制的인 要素가 있다.

세째, 統合機能面에서 北韓이 상대적으로 강한 凝集力을 가진 것과는 對照的으로 南韓은 分열이라는 용어가 나올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理解關係가 사면팔방으로 갈라져 있어서 不安이 加重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統合이 共同體的 결속만이 아닌 強制性을 띠는데 問題가 있고, 南韓의 不安定은 自體調整 能力을 키워 오히려 發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집합적 决속과 統合의 기제를 自律性과 결부만 시킬 수 있다면, 北韓의 統合能力과 南韓의 自律性이 調和를 이루는 方向의 變證법적 종합이 可能할 것이다. 특히, 南北韓의 統合이라는 見地에서 온 民族을 하나로 决속시켜 주는 상징의 創出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네째, 南北韓이 다같이 일정한 部分體系가 지나치게 우세한 不均衡을 안고 展開해 왔음을 상기하여 여러 部分體系들간의 均衡 發展을 摸索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가령, 南韓에서는 經濟와 政治가 너무 강성하고 北韓에서는 政治와 理念이 지나치게 支配하는 이러한 不均衡이 속히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對外關係에서도 南北韓은 對照를 이루면서 長·短點을 모두 드러내 보이고 있다. 開放의 利點은 適應力을 키우는 것인 반면, 內部的 隕속이나 革新能力이 不足할 때는 體制 維持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한편, 거의 자폐적이라고 할 정도의 對外 高립을 자초한 北韓은 沈滯와 適應能力의 損傷을 감당하기 어려운 터인데도 開放을 두려워할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덩레머를 빨리 풀어야 할 課題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南北間의 開放을 서서히 段階的으로라도 시작할 차비가 北韓에게는 必須的인 要件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섯째, 단순히 體系論的으로만 接近할 때 흔히 놓치기 쉬운 要素가 社會의 道德的 기강의 問題이다. 表面的으로는 南韓이 北韓에 비해 道德性에서 뒤떨어지고 타락한 側面이 있지만, 北韓과 같은 體制는 그 나름의 特權層의 否敗와 一般 住民들의 불신에서 유래하는 냉소주의가 나타내는 不條理가 은연중에 만연한 것으로 判斷할 根據는 있다. 따라서, 두 體制 공히 相互開放에 의하여 長·短點을 認識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次元에서 道德性 回復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長期的인 發展 可能性이라는 觀點에서는 北韓이 適應 機能을 하루속히 回復하여 삶의 質的 向上을 기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南韓은 社會正義라는 삶의 機會의 價値에 초점을 맞추어 體制 內部的 不安要素를 克服해야 할 課題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변증법적 지양이 일어날 수 있다면, 南北韓의 統合 努力은 人類史에 새로운 體制 樹立의 可能性을 보여주는 효시가 될 수도 있다.

結論的으로, 南北韓 모두가 결국은 內部的인 問題를 解決하려는 자세로 相互開放과 交流를 推進함으로써 참다운 民族 統合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點을 銘心하여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강광하

- 1990 “住民의 經濟生活”, 최명편, <北韓概論>, 서울: 을유문화사: 201 ~ 235.

經濟企劃院

- 1989 <韓國의 社會指標>, 서울: 經濟企劃院.
1990 <數字로 본 우리 經濟>, 서울: 經濟企劃院.

고현욱

- 1987 “經濟成長과 社會變動”, <北韓社會의 構造와 變化>, 서울: 경남대학교 極東問題研究所: 135 ~ 160.

國土統一院

- 1983 <南北韓比較叢書>, 서울: 國土統一院.
1988 <北韓經濟概觀>, 서울: 國土統一院.
1989 <南北韓 社會文化 現況 比較>, 서울: 國土統一院.

권태환 외

- 1990 <轉換期の 韓國社會: 89區民意識調查>, 서울: 서울대학교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김경동

- 1979 <發展의 社會學>,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4 “社會의 發展: 爭點과 課題”, 진덕규 외, <韓國社會의 發展論理>, 서울: 흥사단출판부: 104 ~ 142.
1985 <現代의 社會學>, 서울: 박영사.
1989 <社會學의 理論과 方法論>, 서울: 박영사.

- 김보행
1979 < 勞動家庭 >, 平壤 : 文藝出版社.
- 김세원
1990 < 對外經濟關係와 “딜레머” >, 최명편, < 北韓概論 >, 서울 : 을유문화사.
- 김세진
1977 “ 韓國政治發展의 實證的 考察 ”, < 韓國의 政治發展과 經濟發展 >, 서울 : 亞細亞政策研究所 : 57 ~ 157.
- 김영주
1987 “ 言論政策과 言論構造 ”, < 北韓社會의 構造와 變化 >, 서울 :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 339 ~ 373.
- 김용한
1975 < 사랑의 샘 >, 平壤 : 문예출판사.
- 김일성
1974 < 김일성저작선집 > 6, 平壤 :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정일
1984 < 人民生活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 平壤 :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채운
1977 “ 北韓의 社會階層 ”, < 北韓社會論 >, 서울 : 北韓研究所 : 131 ~ 172.
- 內外通信
1986 < 內外通信綜合版 > 34, 서울 : 內外通信.
- 도홍렬
1977 “ 北韓住民의 統制政策 ”, < 北韓社會論 >, 서울 : 北韓研究所 : 173 ~ 228.
- 1990 “ 政治文化와 政治社會化 ”, 최명편, < 北韓概論 >, 서울 : 을유문화사 : 112 ~ 140.

- 도홍렬·김남식
1987 “삶의 양식”, 〈南北韓의 生活相〉, 서울: 박영사:
125 ~ 224.
- 노동新聞
1987 8월 23일자.
- 문옥륜
1989 〈北韓의 保健醫療制度 分析〉, 서울: 國土統一院.
- 문용린
1990 “教育制度와 政策”, 최명편, 〈北韓概論〉, 서울: 을유문화사: 383 ~ 414.
- 백종천
1989 “北韓의 軍事力과 軍事戰略”, 〈統一問題研究〉 1
(여름): 136 ~ 170.
- 北韓研究所
1983 〈北韓瞭覽〉, 서울: 北韓研究所.
- 社會科學院
1973 〈政治사건〉, 平壤: 社會科學出版社.
1975 〈主體思想에 基礎한 文藝理論〉, 平壤: 社會科學出版社.
- 신학문사
1988 〈北韓의 革命論〉, 서울: 신학문사.
- 양호민
1988 “政治: 全體主義 1人獨裁 體制的 確立”, 이상우외,
〈北韓 40年〉, 서울: 을유문화사: 31 ~ 109.
- 연하청
1990 “社會主義 經濟計劃”, 최명편, 〈北韓概論〉, 서울: 을유문화사: 143 ~ 171.
- 聯合通信
1990 〈聯合年鑑〉, 서울: 聯合通信.

- 오관치
1987 “北韓經濟의 實態와 南北關係”, 〈轉換期的 한반도 平和와 統一〉, 서울: 國土統一院.
- 오정수
1990 “社會變動과 社會問題”, 최명편, 〈北韓概論〉, 서울: 을유문화사: 356 ~ 379.
- 유석렬
1987 “일탈: 원인, 유형, 통제방법”, 〈北韓社會의 構造와 變化〉, 서울: 경남대학교 極東問題研究所: 62 ~ 94.
- 이광찬
1989 “社會保障”, 〈勞動經濟 40年〉, 서울: 韓國經營者總協會: 447 ~ 523.
- 이병혁
1990 “社會構造와 生活實態”, 최명편, 〈北韓概論〉, 서울: 을유문화사: 11 ~ 30.
- 이상우 외
1988 〈北韓 40年〉, 서울: 을유문화사.
- 이온죽
1988 〈北韓社會 研究〉,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9 “北韓統治體제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社會學的 分析”, 〈北韓社會體제의 理論的 考察〉, 서울: 國土統一院: 3~52.
- 이용필 역
1988 〈政治生活의 體系分析〉, 서울: 법문사.
- 이우홍
1990 〈朝鮮日報〉 1990.8.7.
- 이장현
1977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일탈과 統制”, 〈北韓社會論〉, 서울: 北韓研究所: 317 ~ 367.

이 중

1987 “集團主義的 教育體制：그 規範과 運用”，〈北韓社會의 構造와 變化〉，서울：경남대학교 極東問題研究所．

이태욱

1988 “經濟：자력갱생 政策의 利點과 限界”，이상우 외，〈北韓 40年〉，서울：울유문화사：111～227．

1990 “北韓은 변하고 있는가？ 經濟”，서울대학교 韓國政治 研究所편，〈北韓은 변하고 있는가？〉，서울：어문각：95～124．

人民科學史

1973 〈조선민주주의 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 解說〉，平壤：平壤印刷所．

임희섭

1977 “北韓의 社會組織과 官僚制化”，〈北韓社會論〉，서울：北韓研究所：283～316．

정창범

1987 “文學政策과 文學的 狀況”，〈北韓社會의 構造와 變化〉，서울：경남대학교 極東問題研究所：375～402．

정창윤

1983 〈먼길〉，平壤：문예출판사．

朝鮮女性

1984 4月號．

1984 6月號．

1985 4月號．

1988 3月號．

최일섭

1984 “社會福祉의 現況과 展望”, 〈國家發展과 政策課題〉,
서울 : 現代社會研究所 : 349 ~ 366.

1990 “社會福祉制度和 運營實態”, 최명편, 〈北韓概論〉,

서울 : 을유문화사 : 297 ~ 323.

추광영 외

1989 〈國民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서울 :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韓國教育開發院

1988 〈北韓과 中國의 教育制度 比較研究〉, 서울 : 韓國教育
開發院.

韓國比較社會研究會 編

1990 〈比較社會學 : 方法과 實際 I〉, 서울 : 열음사.

한완상 외

1987 〈轉換期の 韓國社會〉, 서울 : 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

홍두승

1983 “職業分析을 통한 階層研究 : 〈韓國標準職業分類〉를
중심으로”,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5 (3) : 69 ~ 87.

황성모

1977 “北韓 社會統合의 特殊性”, 〈北韓社會論〉, 서울 : 北韓
研究所 : 77 ~ 130.

김영동

1988 “韓國 社會變動 政治發展”, 〈國際問題〉 345 : 31 ~ 46.
日本 國際問題研究所.

erger, Peter L.

1986 THE CAPITALIST REVOLUTION: FIFTY PROPOSITIONS ABOUT PROSPERITY, EQUALITY, AND LIBERTY. New York: Basic Books.

Buckley, Walter

1967 SOCIOLOGY AND MODERN SYSTEMS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Chirot, Daniel

1990 "What happened in Eastern Europe in 1989?"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IST EXPERIMENTS AND FUTURE PROSPECTS, organized by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Ulsan June 7-9, Seoul.

Cho, Sung Yoon

1986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Law Library.

Cohen, Carl

1982 FOUR SYSTEMS: INDIVIDUALIST DEMOCRACY, SOCIALIST DEMOCRACY, FASCISM, COMMUNISM. New York: Random House.

Craib, Ian

1988 MODERN SOCIAL THEORY: FROM PARSONS TO HABERMAS. Brighton, Sussex: Harvester Press.

Dowse, Robert E., and John A. Hughes

1986 POLITICAL SOCIOLOGY, 2nd ed. New York: Wiley.

EAston, Davi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9 ASIA YEARBOOK 1989. Hong Kong.

Friedrich, Carl J., and Zbigniew K. Brzesinski

1965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New York: Prager.

Halliday, Jon

1989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it democratic--and is it even a republic?"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MARXISM AND THE NEW GLOBAL SOCIETY,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October 25-27, Seoul.

Kim Kyong-Dong, and Lee On-Jook

1985 "Middle-class percep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Korea."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14 (2): 35-65.

Klapp, Orrin E.

1973 MODELS OF SOCIAL ORDER. Palo Alto, CA: National Press Books.

Johnson, Chalmers

1970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ACIFIC REVIEW 2 (1): 1-10.

Munch, Richard

1987 "Parsonian theory today; In search of a new synthesis." pp.116-155 in Anthony Giddens and Johnathan Turner (eds.) SOCIAL THEORY TODA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ark Han-shik

1979 "The ideology of North Korean Communism: A critical assessment." pp.143-162 in Jae-kyu Park and Jung-gun Kim (eds.) THE POLITICS OF NORTH KOREA.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Parsons, Talcott

1951 THE SOCIAL SYSTEM. Glencoe, IL: Free Press.

南北韓 住民의 意識構造 比較

— 結婚 및 家族과 關聯된 意識을 中心으로 —

조 은
(동 국 대)

차 례

- I. 序 論
- II. 研究方法
- III. 結婚 및 家族과 관계된
意識構造에서의 南北韓 差異
- IV. 南北韓 新聞에 나타난
家族關係 意識構造 比較
- V. 要約 및 結論

I . 序 論

상이한 체제로 40년 동안 거의 交流없이 각각 다른 두 社會로 發展해 온 南北韓社會에 대한 比較는 여러 領域에서 學問的으로나 現實的으로 많은 關心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體制가 다른 두 社會에 살고 있는 住民들의 意識構造가 얼마나 다른가에 관심을 갖고 특히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에 초점을 맞추어 南北韓 住民의 意識構造를 比較하고자 시도했다.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은 住民들의 일상생활 意識과 가장 近접하면서 쉽게 변하지 않는 意識構造로 이해되어지며 또한 그 社會住民의 基本 品性(Basic Personality)이나 國民性(modal personality)의 근간이 되는 意識構造라는 점에서 南北韓 住民의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의 규명은 南北韓 住民의 일반적인 意識構造를 규명하는 基礎作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北韓의 경우 體制成立과 더불어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法的 改革을 대대적으로 시도했고 傳統的인 家族構造나 男女關係에 대해서도 “革命的인” 改革을 시도했다는 점(이태영, 1988:17)에서 北韓住民의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는 많은變化가 있을 것으로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南韓의 경우도 급격한 産業化, 都市化와 더불어 結婚慣行이나 家族構造 및 形態등이 지난 40年동안 많은變化를 겪었으며 이와 關聯된 意識 또한 상당한變化를 겪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社會主義 體制로 發展해 온 北韓과 資本主義體制로 發展해 온 南韓의 경우에 가장 基本的인 意識構造로 理解될 수 있는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에서 어떠한 差異를 보일 것인가는 매우 흥미로운 關心領域이다. 여태까지 알려진 報告書들은 北韓社會가 南韓社會보다도 더 “家族主義”의 社會이며 傳統的 家族觀을 維持하면서 功團體意識이 強하고 集團主義的인 意識構造가 지배적인 社會로 소개하는 研究들이 있는 반면(안계춘, 1989 : 이온숙, 1989 : 이문웅, 1989 : 구자순, 1989), 家族中心에서 國家가 우선하는 全體主義的 意識構造로 變化한 社會로 보는 研究도 있다. (이태영, 1988 : 25). 이들의 가족은 일견 상호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일단 北韓이 南韓에 비해 보다 集團主義的 意識構造를 가지고 있다는데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報告書나 研究論文들이 內容에서 南韓을 比較의 준거점으로 언급하는 경우에도 實質的으로는 體系的으로 南韓과 北韓을 比較 檢討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南北韓을 比較할 수 있는 동질의

資料不足 때문에 오는 制約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政治體系나 經濟體系 또는 社會構造등에 대한 比較와는 달리 住民의 意識構造에 대한 比較는 北韓社會 住民의 意識構造에 대한 資料가 극히 制限되어 있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南北 比較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北韓住民의 意識構造에 대한 資料는 歸順者들을 통한 間接聽取, 歸順者들에 대한 審問 資料, 그리고 歸順者들을 說文調査한 資料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訪問者들의 관찰, 여행기 등에서 산발적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體系的인 研究資料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러한 制約때문에 南北韓 住民一般의 意識構造에 대한 體系的인 比較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 研究는 制限된 資料의 範圍內에서 北韓住民의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과 이에 상응하는 南韓住民의 意識構造에 대한 比較를 통해 南北韓住民의 意識構造의 일면을 추정, 比較하고자 했다.

이 報告書는 우선 이 두 社會의 住民들의 基本的인 意識構造를 가장 잘 反映한다고 보여지는 日常生活에 대한 意識, 특히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또는 보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보다 세분된 領域, 즉 家族關係(父母—子女, 兄弟—姉妹等), 財產相續 제사, 가부장권, 性別분업, 이혼 및 재혼, 結婚觀이나 配偶者 선택, 탁아 및 자녀양육과 關係된 意識, 그리고 매춘이나 성상품

화 등등의 細目들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했다. 더우기 이러한 細目들에 나타난 世代差異나 男女差異 등에 주목하면서 南北韓을 比較하고자 했으며 두 社會에 나타난 差異의 涵의를 論하고자 했다. 또한 全體的으로 두 社會가 지향하는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가 어떠한 것인가에도 주목했다.

Ⅱ . 研究方法

이 報告書에서 活用한 資料는 모두 2次 資料로서 1970年 부터 1990年 사이에 出版되었거나 公式資料로 公開 또는 非公開된 資料와 新聞에 報道된 事件記事, 企劃記事, 컬럼 등이다. 北韓의 경우는 公開 또는 非公開된 歸順者들의 面接, 審問資料 그리고 訪問者들의 참관기, 旅行記, 그리고 이미 활자화된 著書나 報告書 등 2次資料를 活用했고 南韓의 경우는 주로 이미 發表된 研究論文이나 專門研究機關 또는 輿論 調査機關의 資料들을 活用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2次資料를 補完하기 위해 1989年 7月부터 1990年 7月까지 約1年餘 期間동안의 北韓의 로 동신문과 南韓의 東亞日報에 실린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社說, 뉴스記事, 독자투고, 研究論文 소개 記事등에 대한 內容을 分析, 比較했다. 여기서 意識構造라는 개념은 個人들에게 나타난 態

화 등등의 細目들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했다. 더우기 이러한 細目들에 나타난 世代差異나 男女差異 등에 주목하면서 南北韓을 比較하고자 했으며 두 社會에 나타난 差異의 涵의를 論하고자 했다. 또한 全體的으로 두 社會가 지향하는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가 어떠한 것인가에도 주목했다.

Ⅱ . 研究方法

이 報告書에서 活用한 資料는 모두 2次 資料로서 1970年 부터 1990年 사이에 出版되었거나 公式資料로 公開 또는 非公開된 資料와 新聞에 報道된 事件記事, 企劃記事, 컬럼 등이다. 北韓의 경우는 公開 또는 非公開된 歸順者들의 面接, 審問資料 그리고 訪問者들의 참관기, 旅行記, 그리고 이미 활자화된 著書나 報告書 등 2次資料를 活用했고 南韓의 경우는 주로 이미 發表된 研究論文이나 專門研究機關 또는 輿論 調查機關의 資料들을 活用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2次資料를 補完하기 위해 1989年 7月부터 1990年 7月까지 約1年餘 期間동안의 北韓의 로 동신문과 南韓의 東亞日報에 실린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社說, 뉴스記事, 독자투고, 研究論文 소개 記事등에 대한 內容을 分析, 比較했다. 여기서 意識構造라는 개념은 個人들에게 나타난 態

度나 價値觀, 또는 성향등의 構造를 지칭하는 廣範圍한 概念으로 定義했으며 南北을 比較할 수 있는 資料가 있는 範圍에서 論議를 展開했다.

Ⅲ.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에서의 南北韓 差異

1. 家族과 個人 및 國家와의 關係에 대한 意識

南韓과 北韓은 家族, 個人, 國家, 3者間的 重要도 認識에서 매우 顯격한 차이를 보이며 北韓住民은 國家를 가장 重視하는데 비해 南韓住民을 家族을 보다 重要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 - 1 參照>. 이는 北韓이 家族을 國家組織의 세포단위로서 認識하게 되는데 역집을 두어 온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北韓住民들은 가족성원과의 관계도 血연을 重視하는 傳統的인 家族共同體보다는 國家의 革命課業을 完遂하는 동지적 결합체로 認識하고 있으며 따라서 國家를 중심으로 한 共同體意識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住民의 意識構造 變化 實態>에서 보면 年齡別 차이없이 全世代에 걸쳐 國家를 重要도 순위에서 第1位順位로 두고 있다. 그러나 10代는 家정을 2順位로 꼽은 반면 20代는 個人을, 30代는 集團을, 40代는 家정을,

度나 價値觀, 또는 성향등의 構造를 지칭하는 廣範圍한 概念으로 定義했으며 南北을 比較할 수 있는 資料가 있는 範圍에서 論議를 展開했다.

Ⅲ.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에서의 南北韓 差異

1. 家族과 個人 및 國家와의 關係에 대한 意識

南韓과 北韓은 家族, 個人, 國家, 3者間的 重要도 認識에서 매우 顯격한 차이를 보이며 北韓住民은 國家를 가장 重視하는데 비해 南韓住民을 家族을 보다 重要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 - 1 參照>. 이는 北韓이 家族을 國家組織의 세포단위로서 認識하게 되는데 역집을 두어 온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北韓住民들은 가족성원과의 관계도 血연을 重視하는 傳統的인 家族共同體보다는 國家의 革命課業을 完遂하는 동지적 결합체로 認識하고 있으며 따라서 國家를 중심으로 한 共同體意識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住民의 意識構造 變化 實態>에서 보면 年齡別 차이없이 全世代에 걸쳐 國家를 重要도 순위에서 第1位順位로 두고 있다. 그러나 10代는 家정을 2順位로 꼽은 반면 20代는 個人을, 30代는 集團을, 40代는 家정을,

50代以上은 集團을 2順位로 꼽고 있어 젊은층에서는 家庭을 중시하는 變化를 볼 수 있다. 生活水準別로 보면 全水準에서 國家를 1順位로 두고 있으며 家庭에 대해선 上層과 中層은 2順位, 下層에서는 3順位로 꼽고 있다.¹⁾ 階層別로 보면 역시 全階層이 國家를 1順位로 꼽고 있는 반면 家庭에 대해선 核心階層이 4順位, 基本階層은 3順位, 적대계층은 2順位로 차이를 보인다. 즉 國家나 社會를 個人이나 家庭보다도 중시하는 경향은 年齡에 큰 差異가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특히 50歲以上에서 강하며 30代 以下の 젊은 世代에서는 家庭의 重要性이 社會團體보다 重視되며 國家 다음으로 順序 매겨지고 있어서 變化를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資料는 歸順者들을 對象으로 說問調査해서 얻어진 資料이기 때문에 일정한 限界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의 東歐圈 留學 歸順者들의 證言을 參照해 볼때도 젊은 층에서는 보다 個人的인 意識構造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個人을 중시하는 意識構造는 國家를 重視하는 이데올로기 상충하여 個人的水準에서 상당한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北韓歸順學生들의 證言內容에 의하면 사돈이나 부모의 도움에 의해 大學에 入學하기도 하며³⁾ 歸順者들에게 歸順 당시 걱정과 현시점에서의 걱정을 물어본 결과 40%以上이 家庭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을 차지하는 것⁴⁾으로 보아 傳統的인 家族關係나 家族意識이

〈表 1 - 1〉 個人, 家庭, 集團에 대한 重要度の 南北韓 比較⁵⁾

	南 韓				北 韓					
	中卒 以下	高卒	大卒 以上	計	11-20 歲	21-30 歲	31-40 歲	41-50 歲	51 歲 以上	計
個 人	3	3	3	3	4	2	4	4	4	3
家 庭	1	1	1	1	2	3	3	2	3	2
國 家					1	1	1	1	1	1
集團(職 場, 社會 團體)	2	2	2	2	3	4	2	3	2	4

出處：고정자, 「미혼남성의 家族意識에 관한 考察」, 『韓國家庭管理學會紙』, 1983, p.97, 國土統一院, 『北韓住民意識構造變化實態』, 1983에서 再構成.

註 1) 國土統一院, 「北韓住民意識構造 變化 實態」, 1983.

2) 國土統一院, 「北韓住民意識構造 變化 實態」, 1983.

3) 國際文化協會, 「장명철, 전철우, 면담내용」, 1989.

4) 國際文化協會, 「北韓住民意識調查研究」, 1990.

5) 南韓의 경우는 미혼남성을 學歷別로 나누어 比較하였고
北韓은 年齡別로 比較하였다. 또 南韓의 경우 國家에 대
한 項目을 別途로 두지않고 集團에 包含시켰으며 北韓의
경우는 國家에 대한 項目을 別途로 두고 職場과 社會團
體를 集團으로 묶어 두었다.

청산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특히 젊은층에서 家族을 國家나 社會集團보다 重視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變化가 주목된다. 즉 北韓에서도 家族이 基本的으로 감정적 연대의 단위이며 家族關係가 社會關係의 主要한 축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젊은층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南韓은 60年代 以後 急速한 産業化와 都市化等으로 夫婦中心의 核家族이 보다 모편화되었고 子女數의 縮小 등으로 親族에 대한 의미는 매우 弱화된 반면 夫婦와 그 子女들을 中心으로 하는 核家族의 의미는 強化되었고 家族의 重要性은 보다 높여 부각되고 있다. 南韓의 경우 生活周邊의 최대 관심사를 묻는 質問에 대해 80.9%가 “自身이나 家族의 健康問題”를, 56.1%가 “子女教育問題”라고 대답함으로써 主要 關心의 對象이 國家 國家 全體이기 보다는 각 個人의 家庭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職場이나 社會의 發展도 좋지만 內家族과 家庭의 發展이 우선이다.”는 意見이 85.2%에 달해 家族中心主義 내지는 家族 우선주의가 강함을 드러냈다.⁶⁾ <表 1 - 1>에서 보듯이 南韓의 경우, 중요도의 順位가 家族, 集團, 個人의 순서로 나타나며 個人보다는 集團을 우선시 하지만 集團利益보다는 家族利益을 重視하는 比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家族中心 위주의 血緣共同體의 利益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意識構造는 年齡에 따라 의미있는 差異가 나며

6) 東亞日報 創刊記念 國民意識調查, 1990年4月1日字

件으로 學歷, 職業, 性格, 健康, 趣味的 順位로 들고 있다. 즉 女子들의 配偶者 選擇條件은 社會的, 經濟的 地位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配偶者 選擇에 있어 연애結婚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黨의 韓旋이나 中매에 의한 結婚比率이 여전히 더 높다(表 2 - 6 參照). 한편 都農別 配偶者 選擇을 보면 양쪽 모두 中매가 가장 높으며 나타났고 都市에서는 연애가 9.4%인데 비해 農村에서는 연애結婚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中매와 연애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都市에서는 中매, 연애 병행이 26.4%인데 비해 農村에서는 46%로 높게 나타났다.⁹⁾

특히 여성들이 가장 選好하는 配偶者的 職業은 1960年代에는 事業家, 政治家 등이었는데 비해 80年代에는 教師, 醫師등 安定된 職業을 選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配偶者 選定方法에 있어 比較的 當事者들간의 자유로운 選擇과 決定을 하며 結婚에 있어 사랑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2 - 7 參照). 또한 學歷이 높을수록 연애결혼을 選好하고 일방적인 父母의 극소수만이 동의하고 있다(백문희, 1986).

7) 고정자, 「미혼 남성의 家族意識에 대한 考察: 釜山地域을 中心으로」, 韓國家庭管理學回紙, 1983, p.96-97.

젊은 世代는 個人을 더 重視하는 반면 舊世代는 家族利益을 보다 重視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個人主義的 意識構造로 變化하는 傾向을 보여준다.⁷⁾

2. 配偶者 選擇의 立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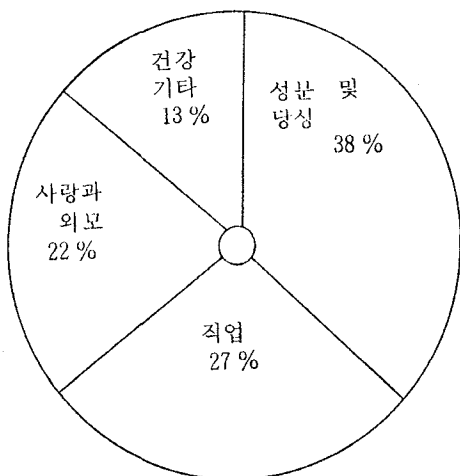
北韓은 요즘들어 연애結婚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黨性, 출신성분을 고려한 政治的 條件에 따른 結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男女間의 結合에 黨이 개입하거나 斡旋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歸順者들을 통해 살펴본 資料에 의하면 北韓의 젊은이들은 配偶者選擇에 있어 男女 모두 성분 및 黨성을 가장 重視하며, 다음으로는 職業, 사랑, 외모등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配偶者選擇條件에서 世代나 男女間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男子나 女子 모두 成分 및 黨性を 가장 중요시한다는 事實 또한 특이하다. 그 외에는 男女 모두 職業, 사랑과 외모, 健康順으로 配偶者 選擇의 優先順位가 동일하게 나타났다.<表 2 - 1, 2 - 4 參照>. 또 北韓에 대한 최근자료에 의하면 配偶者條件에 대하여 職業에 대한 重要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전히 出身成分이 重視되는 반면 黨性은 比重이 減少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配偶者 選擇에서의 選好度에 變化가 있음을 알수 있다.<表 2 - 2 參照>. 즉 北韓의 여성들도 南韓女性들 만큼이나 結婚을 지위상승의 도구로 認識하

고 있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歸順者 김만철 家族 面談內容에서도 配偶者 選擇時 父母의 의사반영보다는 黨性, 出身成分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리고 北韓의 配偶者 選擇에 있어 연애結婚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黨의 斡旋이나 중매에 의한 結婚比率이 더 높으며 道농별 配偶者 選擇에서는 양쪽 모두 中매가 가장 높은 比率로 나타났고〈表 2 - 6 參照〉 都市에서는 연애가 9.4%인데 비해 農村은 연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都市에서는 中매, 연애 병행이 26.4%인데 비해 農村에서 46%로 높게 나타났다.⁹⁾

〈南北韓 女性의 配偶者 選擇條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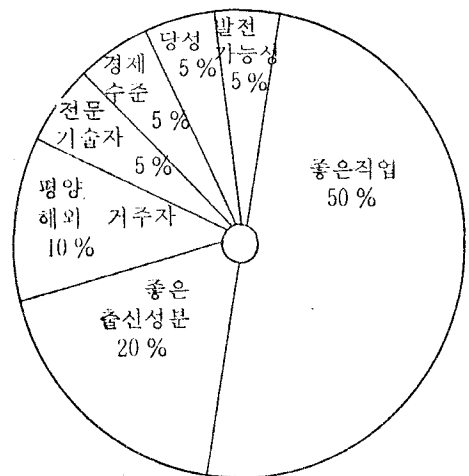
〈表 2 - 1〉北韓 1 (83 年 調査)



出處：內外通信 340 號 (1980.7.15)

p.375

〈表 2 - 2〉北韓 2 (90 年 調査)



出處：國家安全企劃部 『北韓 住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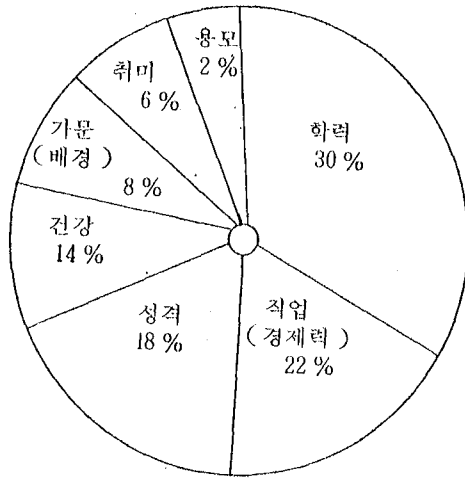
意識 調査 研究』, 1990.p.233

8) 國土統一院, 『김만철一家 對談內容』, 1987, p.130.

10) 國土統一院, 『北韓이질 화실태조사』, 1978, p.373

< 表 2 - 3 >

南 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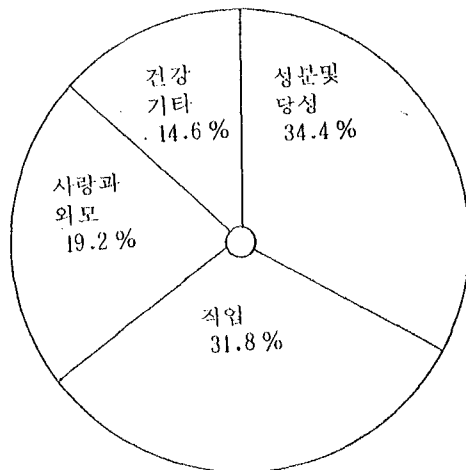


出處：백문희, 『結婚適齡期의 男女配偶者 選定條件』, 1989.p.32

< 南北韓 男性의 配偶者 選擇條件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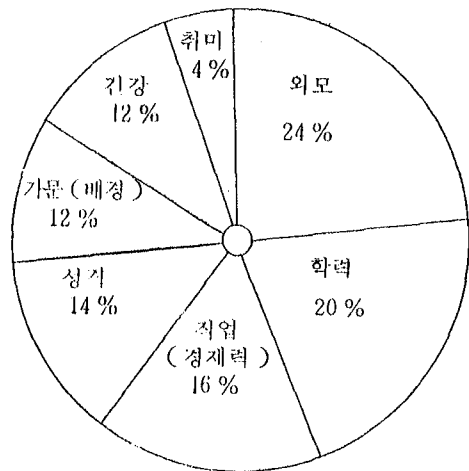
< 表 2 - 4 >

北 韓



< 表 2 - 5 >

南 韓



出處：內外通信 340 號 (83.7.15)p.375 出處：백문희, 1989. p.30

이에 비해 南韓의 結婚은 훨씬 자유스럽고 當事者間的 自由意思를 중시하는 意識構造를 보인다. 미혼 男女 200名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 의하면¹⁰⁾ “아무리 가난하여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項目에 대해 大卒女性의 42%가 贊成하고 高卒女性은 66%가 贊成하였으며 이에 비해 大卒男性과 高卒男性은 각각 80%, 76%의 支持率을 보인다. 그리고 女性들은 男性들에 비해 結婚에 있어 사랑보다는 經濟力을 重視하는 現實性을 보여준다. 또 “자라난 家庭環境이 비슷하면 원만한 夫婦關係를 기대할 수 있다”란 項目에는 大卒女性이 80%, 高卒女性이 94%의 贊成率을 보여주었으며 大卒男性은 68%, 高卒男性은 92%로 대체로 階層內婚을 支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配偶者 條件으로는 經濟力, 職業, 家門, 學歷, 외모 등의 條件을 重視하는 경향을 보이며 男子들은 특히 女子의 외모를 중시하는 반면 女子들은 學歷과 職業을 더 重視하는 경향을 보인다.<表 2 - 3 參照>. 즉 大卒男子는 첫째로 용모를 들고 다음으로 學歷, 職業, 性格, 家門, 健康, 趣味 등을 들고 있고 高卒男子는 職業, 性格, 健康, 趣味, 家門의 순으로 들고 있다. 이에 비해 女子들은 學歷서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배우자 選擇條

10) 백문희, 「結婚適齡期 男女의 配偶者 選定條件」, 利梨女大 大學院,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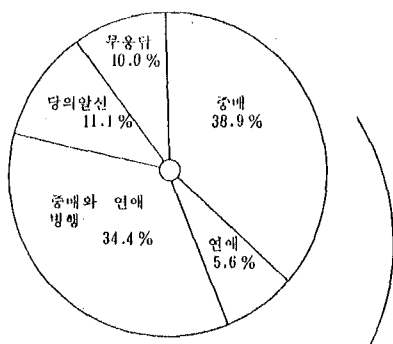
件으로 學歷, 職業, 性格, 健康, 趣味的 順位로 들고 있다.

즉 女子들의 配偶者 選擇條件은 社會的, 經濟的 地位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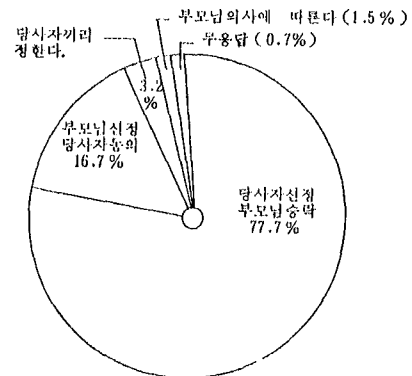
또한 配偶者 選定方法에 있어 比較的 當事者들간의 자유로운 選擇과 決定을 하며 結婚에 있어 사랑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2 - 7 參照). 또한 學歷이 높을수록 연애결혼을 選好하고 일방적인 父母의 決定에는 극소수만이 동의하고 있다 (백분희, 1986). 配偶者 家庭의 經濟力에 대해서 女子의 경우는 자신의 家庭보다 약간 높은 사람을 가장 選好하였고 男子의 경우는 자신의 家庭과 같은 정도의 사람이 가장 많고 개의치 않는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¹¹⁾

〈南北韓 配偶者 選擇方法 比較〉

〈表 2 - 6〉 北 韓



〈表 2 - 7〉 南 韓



出處：國土統一院, 『北韓住民 意識 出處：조규인 「서울地域 男女 配

構造 變化實態』, 1983, p.85

偶者 選擇方法」, (1980 年

調査), 女性白書 1986. p.59

11) 송재희, 「大學生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結婚觀에 關한 研

究」, 利梨女大 大學院, 1989, p.50-51.

北韓에서는 農村地域 靑年들의 結婚問題가 커다란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을 만큼 農村地域 靑年들은 結婚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結婚適齡期의 여성들은 農村의 男性들과 結婚하기를 꺼리고 都市의 事務員 및 軍人들과의 結婚을 選好하기 때문이다. 北韓은 최근에 農村地域 靑年들의 結婚問題가 勞動力底下 및 食糧生産 減少로 직결되어 있는 점을 勘案하여 各種 강연회나 계몽가요 등을 만들어 結婚適齡期의 女性들에게 農村靑年들과 結婚할 것을 積極 勸獎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¹²⁾ 그러나 北韓에서는 私有財産이 認定되지 않고 南韓과는 상이한 經濟體制를 갖고 있어서인지 南韓처럼 혼수가 問題時되지는 않고 있다. “5장6기”라고 하여 호화혼수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北韓女性들은 거의 혼수를 장만하지 않는 편이다. 즉 5장이란, 옷장, 이불장, 책장, 찬장, 양복장 등이며 6기는 재봉기, 냉동기, TV수상기, 사진기, 녹음기, 선풍기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女性들은 5장6기의 호화혼수를 해가지는 못한다고 한다.¹³⁾

註 12) 東亞日報 1990年5月26日字, 北韓消息

13) 『展望』, 1990年, 6月號, p.38-40.

3. 이성교제 및 성(性)

北韓社會의 異姓交際는 階級性에 拘여 黨의 統制를 받고있어 核心階層과 직대계층과의 間에는 許容되지 않으며 또 間에는 單순히 두 男女의 사랑問題가 아니라 指導層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데 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¹⁴⁾ 그러나 요즘은 開放化推勢를 타고 異性交際가 많이 자유로와진 것으로 관찰된다.¹⁵⁾ 그렇지만 異性交際는 여전히 制限되고 있어 大學生이 間에를 하여 불의를 일으키면 1次警告, 2次停學, 3次退學 處分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⁶⁾ 반면 職場人의 異性交際는 學生보다는 자유로워 各種 集會, 모임 등을 통해 男女交際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開放的 인성풍조 때문에 外國留學을 마치고 歸國하는 學生들의 선물중에 피임도구가 가장 인기가 있으며 미혼모를 “해방처녀”로 부를 정도로 性解放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최

註 14) 이항구, 『北韓의 實想과 虛想』, 韓國出版公社, 1985, p.289

15) 東亞日報, 北韓消息, 1990.

北韓의 연인들은 서로 부를 때 “자기”라는 말을 많이 쓰며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기전에는 男子는 女子를 “**동무”, 女子는 男子를 “**동지”라고 부른다.

16) 東亞日報 1990年5月4日字, 北韓消息

근 歸順者들이 證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問題에 있어서도 상당한 開放化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住民들은 아직도 혼전순결을 重視하며 女性의 服裝도 바지보다는 치마를 選好하여 바지나 치마를 選好하여 바지나 몸빼를 입으면 벌금을 내기도 한다¹⁸⁾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女性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은 매우 보수적이며 女性性(femininity)을 중시한다고 解釋할 수 있다.

北韓에서도 간통, 강간, 폭행이 있기는 하나 南韓처럼 빈번하지는 않고 불륜(부화사건)시 처벌을 받게 되는데 現役軍인이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다른 部隊로 전보거나 생활제대를 하게 된다.¹⁹⁾ <表 3 - 1>에서 보듯이 性觀念이 보수적이고 性犯罪의 發生率도 73%가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應答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發生率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歸順者 김남준과 임정희씨는 北韓에서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다가 맺어오다가 발각되어 歸順하였다고 한다.²⁰⁾ 이들은 87年 7月 부터 關係를 維持하다가 9월 초 폭로되었는데 임씨 남편의 협박을 받고 고심하던 김남준씨가 歸順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또

註 17) 東亞日報, 北韓消息, 1990年 5月 4日字.

註 18) 이문웅, 『北韓體系變化實態研究』, 1989, p.4

註 19) 임선화, 「南北韓 住民意識調查」, 內容 참조

김남준씨의 證言에 의하면 女性關係에 의해 入黨에 制限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異性關係에 대한 統制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留學生 歸順者들은 留學生들에 대한 教育內容에 女子關係를 조심하고 색정영화나 디스코장 등 유흥업소 출입을 삼가할 것을 指示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負荷事件이 發生하면 즉각 送還하고 이런 學生들은 資本主義 腐敗思想에 汚染되어있다고 判斷하여 嚴格히 다루며 문건에 기록되어 출세가 불가능하다고 證言한 것으로 보아 性에 關聯한 統制가 嚴格한 것으로 보여진다.²¹⁾ 또 結婚目的 이외의 異性交際는 許諾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批判 및 處罰을 받는다고 한다.²²⁾ 기성세대의 경우는 연애에 대한 意識이 否定的이어서 연애는 수치라고 생각하며 대부분 父母의 承諾을 얻어 연애를 한다고 證言하고 있다.²³⁾ <表 3 -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北韓에서는 性的自由에 대해 否定的이며 혼전순결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婦人이 처녀가 아닌 것을 알면 내쫓는다고 한다.²⁴⁾

註 20) 국제문화협회, 『김남준, 김광춘, 임정희 면담내용』, 1989.

註 21) 국제문화협회, 『장명철, 전천우 면담내용』, 1990.

註 22) 국제문화협회, 『北韓住民意識構造研究』, 1990, p.185.

註 23) 國土統一院, 『김만철一家 面談內容』, 1987, p.256-257.

註 24) 國土統一院, 『김만철一家 面談內容』, 1987, p.108.

즉 이에 대한 意識構造가 매우 傳統的이고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부부사이의 性問題에 대해서도 매우 부끄럽고 소극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性에 대한 知識도 거의 없고 教育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이 問題에 있어서는 世代差異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性的自由 (혼전 성관계)에 대한 見解에서 南韓住民이 北韓住民에 비해 크게 進步的인 것은 아니다(表 3 - 1 參照). 그러나 南韓의 경우 젊은세대는 既成世代에 비해 훨씬 開放的인 態度를 지닌다.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젊은세대는 38.1%가 否定的인데 비해 既成세대는 68.8%가 否定的으로 나타났다. 또 독신에 대해서도 젊은세대는 대체로 肯定的인 見解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既成세대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²⁶⁾ 이에 대한 世代差異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姦通에 대한 調査에서는 姦通罪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편이 75%로 나타났는데 世代別, 婚姻與否別 差異가 있다. 즉 20대

註 25) 國土統一院, 『김만철一家 面談內容』, p.116.

註 26) 東亞日報 1990年6月3日字, 社會意識調査.

에선 62%, 40代에서 90%가, 未婚女性の 경우는 60%, 既婚女性の 경우는 84%가 賛成하여 既成世代와 既婚女性들이 더욱 姦通罪 存續을 원하고 있다. 存續의 理由로는 社會的 倫理的인 理由가 21%로 가장 많고 女性の 保護手段으로는 19%, 男性의 性生活를 統制하기 위해서는 14%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姦通罪 廢止를 원하는 사람들의 廢止理由는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가 17%로 가장 많고, 姦通罪가 있어도 姦通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13% 정도가 되었다.²⁷⁾ 따라서 비합법적이고 非倫理的인 性關係에 대해서는 대체로 否定的인 立場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未婚男女를 對象으로 한 性經驗 有無를 묻는 調査에서도 76%가 없다고 대답하여 아직도 혼전순결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結婚의 障礙條件에 대한 男女別 態度에서는 婚前 性關係에 대해서는 男子가 否定的인 반면 私生子나 庶子출신의 경우나 홀어머니와 장남인 경우는 女子가 否定的으로 나타났다.²⁸⁾ 즉 남자들은 女子의 순결을 女子들은 男子의 血統이나 家庭環境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註 27) 東亞日報 1990年4月12日字

註 28) 송재희, 「大學生들의 異姓交際實態 및 結婚觀에 관한 研究」, 利梨女大 大學院, 1989, p.55-56.

〈表 3 - 1〉 南北韓의 性的自由(婚前 性關係)에 대한 見解

單位：%

項 目	*北 韓	*南 韓
贊成하는 편	15.0	
아주좋다		3.0
반대하는 편	52.0	
나쁘다		52.5
반반이다 / 경우에 따라 다르다	26.0	
나쁠것 없다		38.7
其他, 無應答	7.0	6.4
計	100.0	100.0

出處：* 國土統一院, 『北韓住民意識構造變化實態』, 1983, p.85,

* 東亞日報 1990年6月3日字, 社會意識調查에서 再構成

한편 北韓과 南韓의 性問題에 있어 가장 큰 差異는 매춘에 대한 것이다. 北韓에서는 매춘을 法的으로 認定하지 않고 있으며 住民들도 매춘의 必要性에 대해서 否定的이다.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 및 施行細則에 보면 일부다처제, 女性の 매매, 公娼, 私娼, 기생제도를 禁止하고 있으며 만일 娼妓營業을 하거나 첩을 거느린 자는 法에 의해 處罰을 받게되어 있다.²⁹⁾

註 29) 이태영, 『北韓女性』, 1988, p.30.

南韓의 경우에는 일부다처제, 女性의 賣買등이 禁止되어 있지만
퇴폐업소의 숫자나 퇴폐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숫자로 볼때
매춘이 廣範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態度도 比較的 寬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現代社會研究所, 1984).

4. 離婚 및 再婚

北韓社會에서 離婚과 再婚은 特別히 禁止된 條項은 아니며
따라서 離婚이나 再婚에 대해 特別히 거부하는 意識을 가지고
있지 않다. 再婚의 경우는 男女를 不分하고 自由로운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오면서 더욱 自由로와지고 있으
며 當연시하는 寡圍氣인 것으로 보인다.³⁰⁾ 그러나 젊은 男子의
경우에는 처녀와 再婚하는 것이 보통이고 男子는 女子보다 쉽
게 再婚하지만 子女있는 中年婦人들은 거의 再婚을 꺼리며³¹⁾
“女性은 대부분 망부에게 지조를 지킨다”고 <朝鮮訪問期>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堅執된 傳統的 倫理觀이 女性들에게
適用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離婚에 대한 北韓 住民의 태도나 實態는 具體的인 資料가
없지만 歸順者들의 證言을 통해서 살펴보면 드물기는 하나 離

註 30) 國土統一院, 『北韓異質化實態調査』, 1983, p.489-490.

31) 이태영, 1988, p.78-81.

婚하는 事例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니. <表 4 - 1 >에서 보듯이 國土統一院의 『北韓異質化 實態調査』에 따르면 離婚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하다는 意見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農村보다는 都市의 離婚率이 높으며, 階層別로 보면 一般住民보다는 特殊層이 離婚率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왜 都市地域과 高位層의 離婚이 農村이나 낮은층에 비해 더 많은가에 대한 說明이 없어서 그 理由를 推定하기는 어렵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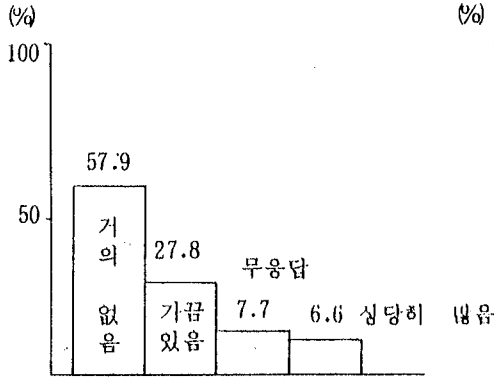
한편 南韓에서는 再婚이나 離婚에 대한 意識이 아직도 부정적인 見解가 많지만 젊은층에서는 점차 나쁜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表 4 - 2 參照>. 그러나 자식이 있는 경우는 離婚事由가 發生하더라도 離婚하지 않겠다는 比率이 6:4로 離婚하겠다는 比率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요즘에는 30-40대 夫婦들의 離婚이 크게 늘어나 70年代에는 全體 離婚率의 46.6%이던 것이 80년에는 50.6%로, 88년에는 52.2%로 30~40대의 離婚率이 계속 增加하는 추세를 보인다.³⁴⁾

註 32) 國土 통일원,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 1983, p.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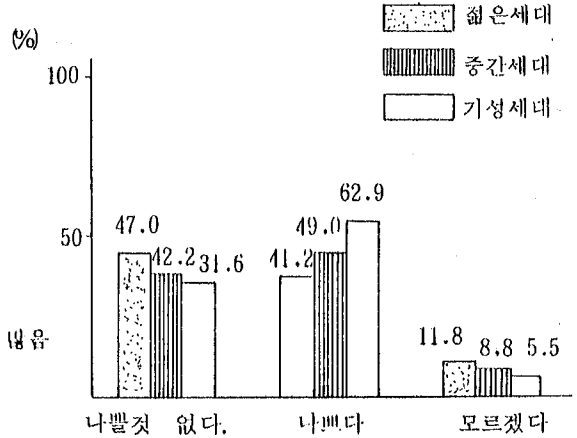
註 33) 東亞日報 1990年 4月 1日 字

註 34) 東亞日報 1989年 11月 7日 字

<表 4 - 1 >北韓의 離婚率



<表 4 - 2 >南韓의 離婚에 대한 見解



出處：國土統一院, 『北韓異質化實態調査』, 1983, p.375-376.

出處：東亞日報, 1990.6.3

北韓에서 주된 離婚事由는 女性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男子가 불구인 경우, 男性의 부당한 暴力이나 女性의 不服從 내지는 不貞等 다양하지만 出身成分에 의한 政治的 理由가 가장 많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表 4 - 3 參照>. 특히 요즘들어 北韓의 地方女性들은 平壤에 居住하고 싶은 마음에서 平壤에 居住하는 憧憬과 結婚하기를 원하며 地方의 얼굴이 예쁘고 똑똑한 女性들이 신체결함이 있는 平壤男子와 結婚도 不辭하여 平壤居住를 얻어낸 후 고의적으로 냉정한 態度를 보이거나 男子의 疾

病等を理由로 離婚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³⁶⁾ 그러나北韓의 경우 離婚 후 養育權이나 財産權이 男女에게 比較的 平等

〈表 4 - 3〉 南北韓의 離婚事由

單位：N, (%)

項 目	北 韓	南 韓
한편이 暴力을 쓸때	27(10.1)	
한편이 바람을 피울때	51(19.1)	
愛情, 性關係 不滿足	30(11.3)	
子女가 없을 때	25(9.4)	
信念, 價値觀 (黨性) 의 불일치	56(21.0)	
出身成分이 나쁜 것으로 判明될 때	78(29.2)	
夫婦不和		21,233(82.1)
家族間 不和		1,000(3.9)
健康上의 問題		450(1.7)
經濟問題		768(3.0)
其 他		2,407(9.3)
計	267(100.0)	25,858(100.0)

出處：國土統一院, 『北韓概要』, 1986, p.80,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6, p.276에서 再構成

註 35) 국제문화협회, 『장영철, 전철우 면담내용』, 1990.

한 편이기 때문에³⁶⁾ 離婚에 대한 否定的 見解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南韓의 경우 夫婦不和가 가장 큰 離婚事由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家族間 不和, 經濟上의 問題等을 꼽고 있다.<表 4 - 3 參照>. 또한 日刊紙의 調査에서는 남편들은 아내가 家庭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를 가장 큰 理由로 꼽았으나(32%), 女子의 경우는 남편과 家族으로부터의 不當한 待遇를 가장 큰 理由로 꼽고 있다.(36%)³⁷⁾ 또한 남편의 不貞을 理由로 女性의 離婚請求가 늘어나고 젊은 夫婦의 離婚率이 急增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婚姻에 대한 傳統的 價値觀이 弱化되고 있으며 夫婦中心, 또는 감정적 연대의 單位로서의 家族을 보다 중시하는 意識構造를 엿볼 수 있다.

註 36) 男女平等權 施行細則을 보면, 父母가 離婚하였을 때 子女를 養育하는 일방은 타방에 대해 養育費를 請求할 수 있으며(第 20條), 養育費를 支拂할 義務를 宣告받고도 支拂하지 않을 경우에는 1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하고 있다.(第 27條). 또 女性은 離婚時 전남편에 대해 財産分配와 土地分配를 請求할 수 있다.

註 37) 東亞日報 1989年 9月 29日字.

5. 性別分業 및 女性の 社會進出

北韓에서 女性の 社會進出은 制度的 水準에서는 開放的이다. 이는 北韓이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建設하기 위해 보다 많은 勞動力을 必要로 하였기 때문에 女性에게도 勞動할 것을 勸奨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³⁸⁾ 北韓 憲法은 雇傭과 賃金の 平等을 基礎로, 女性이 職場에서 特別히 差別待遇를 받지 않도록 明示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도 傳統的 性別分業이 持續되고 있으며 女性은 주로 敎員, 事務職, 단순勞動職에 주로 從事한다. 그러나 炭夫, 運轉手, 機械工으로 일하는 경우는 南韓보다 많다. 특히 家事에 있어서 正確한 役割分擔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女性の 二重負擔(職場과 家事勞動)은 큰 모순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 日本人의 北韓訪問記에 보면 호텔의 잡초뽑기에 動員된 從業員은 거의 女性이었고 반면에 男子들은 놀거나 낮

註 38) 1981年 北韓의 總人口는 17,691,000名이며 이중 女性人口는 8百91萬3千名으로 全體人口의 50.4%를 차지한다. 男女間 職業別 構成比는 女性들이 農業部門의 55.5%, 工業部門의 45.5%, 炭工地下勞動部門 20%를 차지하며 重工業分野의 15%, 輕工業分野의 70%, 林業分野의 30%를 차지하고, 教育分野에서는 人民學校 敎師의 80%, 中高等學校의 35%, 技術系統學校의 30%, 大學校의 15%를 차지하고 있다.(이태영, p 212)

잠을 즐기는 등 유교적 남아존중 思想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³⁹⁾ 때문에 근래에는 就業하지 않고 家庭主婦로만 남
 아있는 女性들이 점차 增加하고 있다고 한다.⁴⁰⁾ 또 北韓에서는
 男子들이 가사일을 돌보는데도 否定的인 見解가 81%나 되어
 家事勞動은 女子의 몫이라는 보수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의 女性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은 商店店員,
 미용사, 이용사, 飲食店 店員等으로서 比較的 傳統的인 女性의 일
 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⁴¹⁾ 그러나 職場에서의 男女의 差別
 은 크지 않으며 다만 體力의 理由로 해서 賃金支給 等級이 男
 性과 女性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男: 1 - 6 等級, 女: 1 - 4 等
 級) 賃金에 있어서 差異가 날수 있다.⁴³⁾

南韓의 경우는 女性의 勞動力 參與가 學歷이 낮을수록 勞動
 力에 參與하는 比率이 높다. 특히 高學歷의 既婚女性은 勞動力
 參與率이 底學歷 既婚女性에 비해 顯著하게 낮다. 그러나 社會

註 39) 高團一郎, 1987, p.55, 이태영, 『北韓女性』, 1988, p.249에서

再引用

註 40) 안계춘, 『北韓住民生活實態調查』, 國土統一院, 1989, p.15.

註 41) 國土統一院, 『北韓意識構造變化實態』, 1983.

註 42) 안계춘, 『北韓住民生活實態調查』, 國土統一院, 1989, p.44.

註 43) 안계춘, 『北韓住民生活實態調查』, 國土統一院, 1989, p.45.

進出에 대한 意識이 高學歷 女性에서 낮은 것은 아니다. 또한 女性의 社會進出에 대한 態度에서 男女의 差異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夫婦 맞벌이나 結婚後 女性의 就業에 대한 說問 調査에서 男子들은 29.5%가 女子의 就業을 贊成한 반면 女子는 63.7%가 就業을 贊成하고 있다. 또한 配偶者의 意見에 따른다가 男子는 53.5%, 女子는 24.7%로 나타났다.⁴⁴⁾ 또 靑少年들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 結婚한 女性의 就業에 대해 물어본 결과 女高生들은 65.8%가 원한다고 대답한 반면 女工들은 26.8%만이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比率도 女高生은 8.6%인 반면 女工은 32.5%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女高生과 女工이 얻을 수 있는 職業에 대한 現實的인 反應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結婚後 就業에 대한 贊成理由를 볼때 靑少年의 전반적인 反應은 “自己發展을 위하여”가 72.3%로 가장 많고 經濟的 도움을 위하여는 22.2%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이유는 家庭雰圍氣造成이 43.8%로 가장 높고 子女教育問題(30.2%), 남편의 위신이나 편안한 生活때문에(20.8%)의 順으로 나타났다.⁴⁵⁾ 특히 未婚男女의 경

註 44) 송재희, 「大學生들의 異姓交際 實態 및 結婚觀에 관한 研究」

利梨女大 大學院, 1989, p.162.

註 45) 김미숙, 「韓國靑少年의 結婚觀에 관한 研究」, 利梨女大 大學院, 1987.

우 女性의 社會進出에 대해 男性과 女性은 매우 다른 態度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女子의 就業에 대해 男子들은 大卒, 高卒 모두 48%만이 각각 贊成하였고 女子의 경우는 大卒이 56%, 高卒이 74%로 高卒여성이 좀더 높은 贊成率을 나타냈다.⁴⁶⁾ 이러한 數値는 남한의 경우 女性의 社會進出에 대한 意識構造에서 男子와 女子가 상당히 差異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6. 家族關係에 대한 意識構造와 態度

北韓의 家族關係는 가부장적 大家族制의 權威的인 關係가 그대로 維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夫婦關係도 協同과 團合의 關係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편이 權威만을 主張하거나 婦人을 학대하면 女性同盟의 政治團體로 부터 批判과 壓力을 받을 만큼⁴⁷⁾ 夫婦關係에 대한 意識이 進步的이다. 그러나 儒教的 傳統에 기반한 성역할 意識은 그대로 殘存하고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獻身하는 女性像이 既成世代에서 選好되고 있다.⁴⁸⁾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며 시부

註 46) 백문희, 「結婚適齡期 男女의 配偶者 選定條件」, 利梨女大 大學院, 1986.

註 47) 이문웅, 1989, p.4.

註 48) 안계춘, 1989, p.66.

모問題, 經濟的인 問題, 高부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한다는 歸順者 證言으로 미루어 보아⁴⁹⁾ 北韓의 夫婦關係가 南韓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에 대한 意識構造 또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夫婦關係에 대한 意識에서 世代의 差異가 報告되고 있지는 않지만 젊은 世代에서는 보다 進步的인 意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北韓에서의 夫婦關係에 대한 意識은 南韓에 비해 보다 단순하고 덜 依存的이며 父母와 子息關係에서는 孝를 중시하며 웃어른에 대한 公敬심과 태도가 南韓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⁵⁰⁾ 父母에 대한 孝道가 革命戰士나 黨에 대한 忠誠心を 評價하는 基準이 되기도 하고⁵¹⁾ 김일성의 어린시절을 標本으로 삼아 孝道와 家族關係의 重要性을 提示하고 있어⁵²⁾ 傳統的인 家族關係나 감정적 連帶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父母子息間의 權威關係는 南韓과 큰차이가 없으나 理念的인 交和를 통하여 社會主義 家族의 同志的인 關係로 轉換하고자 하며⁵³⁾

註 49) 國土統一院, 『김만철一家 面談』, 1989, p.17.

註 50) 안계춘, 1989, 24.

註 51) 國土統一院, 『南北韓 社會文化現況比較』, 1989, P.69.

註 52) 이온죽, 1989, p.223.

註 53) 이온죽, 1989, p.226.

舊世代(40代以上)는 傳統的 慣習에 의해 禮儀와 조상숭배를 중시하는 반면 新世代(30代以下)는 同志意識, 自己中心的 競爭意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北韓의 家族에 대한 意識은 社會主義 意識과 傳統意識이 共存하는 형태이며 孝道에 대한 경직된 정의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家族成員들 間에 服從하고 尊敬하는 法道가 남아 있다.⁵⁵⁾ 는 관찰로 미루어 볼때 家族關係나 이에 대한 意識이 복합적일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한편 高부간의 갈등은 심하지 않은데 이는 勞動力을 가진 며느리가 家庭밖의 生活에 參與함으로써 家族일의 많은 부분을 시어머니가 擔當하게 되어 對立의 關係보다는 協調의 關係가 要求되기 때문으로 指適되고 있다.⁵⁶⁾ 이는 世代間的 依存이 社會主義 目的達成에 부합되는 社會共同生活의 規範을 지키는 形態로 強造되기 때문인 것으로 解釋되는데 이는 家族關係가 社會主義 社會構造에 따라 變化한 端的인 例라고 할수 있다.

반면 南韓의 夫婦關係는 北韓에 비해 보다 相互 依存的이며 이점에서는 南韓 住民의 意識構造가 더 保守的이라고 할수 있

註 54) 國土統一院, 『南北韓 社會文化現況比較』, 1989.

註 55) 구자순, 1989, p.139.

註 56) 이태영, 1988, p.133.

다. 이는 南韓女性的 社會進出이 北韓에 비해 낮고 家族法改正 등이 최근에야 이루어지는 등 男女差別的 構造가 보다 殘存해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夫婦關係의 平等化가 많이 진전되어 父母의 權位類型에 있어서도 부(父) 가장형이 7.9%, 父 中心型이 23.5%, 平等型이 33.3%, 모(母) 中心型이 22.7% 등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⁵⁷⁾ 이를 地域別로 보면 農村의 경우는 부지배가 54.1%, 平等型이 22.4%인데 비해 서울의 경우는 부지배가 27.0%, 平等型이 35.5%로 나타나 農村이 都市보다 傳統的 權位構造가 더욱 뿌리깊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家族이 점차 核家族化되면서 두드러지는 것은 老人問題인데 南韓의 老後居處에서 北韓과 南韓을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表 6 - 1 >. 즉 北韓에서는 老人끼리 生活하는 比率은 南韓에 비해 낮은데 비해 社會施設에 기거하는 比率은 더 높으며 아들, 딸 區別없이 같이 기거하는 경우가 남한에 비해 훨씬 높다. 반면 南韓의 경우는 장남과 기거하는 比率이 여전히 높으며 딸과 아들중심의 노후거처를 選好하고 기거하는 比率은 매우 낮아 보다 傳統的인 일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젊은세대에서는 이러한 類形이 크게 變化할 것으로 보인다. 한 調査에 의하면 80%의 老人들이 結婚한 子女와 同居를 원하는자만 며

註 57) 『女性白書』, 1985, p.53.

註 58) 『女性白書』, 1985, p.54.

느리 立場에서 同居希望을 調査한 결과 核家族主婦의 17%만이 同居를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즉 老人 當事者와 며느리間의 隔差가 상당히 크다.⁶⁰⁾ 또 經濟企劃院의 調査에 따르면 老夫母 扶養責任이 아들, 딸 모두에게 있다고 보는 見解가 27.1%로 장남이 父母扶養責任을 져야 한다는 意識에 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年齡別로 보면 10대와 20대는 아들, 딸 모두에게 責任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각각 32.1%, 30%, 26.0%로 나타난 반면 既成世代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가 가장 많아서 40代는 26.4%, 50代는 30.1%, 60代는 36.9%로 나타나 傳統的 意識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⁶¹⁾ 특히 72年의 경우 80%에 달하던 장남과의 同居가 88년에는 40%로 急速히 減消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傳統的 意識이 빠르게 變化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⁶²⁾ 老父母 扶養에 있어서는 아직도 子女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老人끼리 따로 살거나 養老院에 사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父母-子息關係에 대한 意識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南韓도 北韓과 비슷한 유형으로 變化해갈 소지를 보여준다.

註 59) 현두일, 1981, p.91, 『女性白書』, 1985, p.57에서 再引用

註 60) 『女性白書』, 1985, p.57.

註 61)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6, p.279.

註 62) 東亞日報, 1990年5月10日字.

〈表 6 - 1〉 南北韓의 老後居處

單位：%

項 目	北 韓	南 韓
장 남		22.1
아들 모두	45.0	21.7
딸	24.0	1.8
아들, 딸 모두		27.1
老人끼리 生活	17.0	
自 立		20.5
社會施設(養老院) 및 其他	14.0	7.8
計	100.0	100.0

出處：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6, p.289,

이태영, 『北韓女性』, 1988, p.131에서 再引用

7. 子女教育 및 育兒

北韓은 生後1年半부터 託兒所를 통한 集團教育을 實施하고있다. 이는 女性들의 勞動力 動員을 쉽게하고 어린이들이 集團主義 性향을 가지도록 教育하기 위해서이다. 北韓社會는 教育을 주로 國家가 擔當한다고 볼수 있다. 家庭의 教育的 役割은 최

소화되었으며 家庭에서의 教育이 禮節이나 孝, 정서 함양등을 위한 것보다는 社會主義의 習性을 길러주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⁶³⁾ 北韓의 教育은 思想教育을 중심으로 하는데 幼稚園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수령에 대한 忠誠心을 갖도록 고양하고 注意力, 思考力, 觀察力을 기르도록 誘導한다. 그리고 高學年에서는 김일성 偶像화와 反美鬪爭意識鼓吹, 社會主義體制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內容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⁶⁴⁾ 意識化가 比較的 일찍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思想 高揚의 內容은 底學年일 수록 感情的인 側面의 教育內容을 많이 포함시키고 學年이 높아질 수록 理解를 必要로 하는 政治理論이나 哲學等を 점차 늘려 가는 課程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學課教育에서는 託兒所에서 實施하는 思想教育을 中心으로 共產主義 高揚과 價値觀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社會主義 우월성이나 個人보다는 集團과 組織을 사랑하는 思考를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教育에서도 階級에 따른 差別待遇가 發生하는데 선생님이 成分에 따라 學生들을 差別待遇하거나⁶⁵⁾ 出身成分이 나쁜 學生의 경우 열심히 공부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⁶⁶⁾

註 63) 김형찬, 『北韓의 教育』, 1988.

註 64) 김동춘, 「北韓의 教育」, 『北韓의 社會』, 1990, p.149.

註 65) 國土統一院, 『김만철一家 面談』, 1987, p.180.

註 66) 國土統一院, 『김만철一家 面談』, 1987, p.176

또 大學을 가고 싶었으나 成分이 나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다.⁶⁷⁾

한편 北韓의 女性들은 幼兒를 託兒所에 맡긴 후 女性들의 生活이 過去보다 편해지고 負擔이 輕減되기는 하였으나 한 歸順者는 家庭의 의미가 弱化되고 子女를 託兒所에 맡겼을 경우 아이들을 잘못 관리할까바 不安해 한다고 不定的인 側面을 指適하기도 한다⁶⁸⁾ <表 7 - 1 參照>. 그럼에도 불구하고 未就學兒童들의 託兒教育은 北韓의 教育制度中의 대표적인 것이며 女性의 社會活動 參與와 國家的인 側面에서 集團的 思想教育의 必要性 때문에 託兒所의 役割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南韓에서의 子女教育은 就學以前에는 주로 家庭이 擔當하고 있다. 요즘은 子女數가 적고 社會的으로 學歷을 중시하는 霧圍氣가 支配的이어서 子女에 대한 지나친 教育熱이 社會問題化 되고 있다. 核家族構造가 父母中心에서 子女中心으로 옮겨감에 따라 어린이들사이에 共同體意識이 희박해지고 이기적인 어린이文化가 形成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다.⁶⁹⁾ 또 學校教育뿐 아니라 學院을 통한 課外學習까지 가중되고 있어 歸家 後에도

註 67) 國土統一院, 『김만철一家 面談』, 1987, p.137.

註 68) 國土統一院, 『김만철一家 面談』, 1987, p.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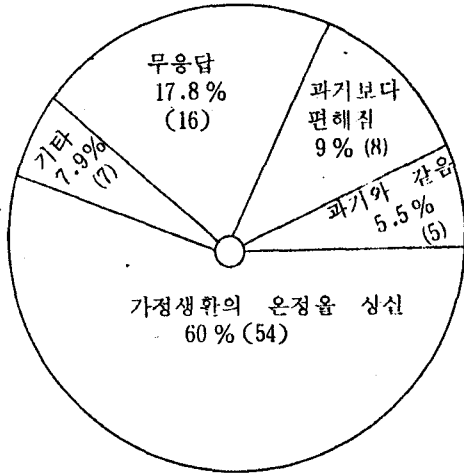
藝體能. 科目이나 英語등을 배우기 위해 두 군데이상의 學院을 다니는 경우도 매우 많다.⁷⁰⁾ 이러한 지나친 教育熱과 過剩保護는 子女들에게 自身만을 중시하고 集團이나 他人과 융합하지 못하는 그릇된 價値觀을 심어줄 可能性과 극단적인 個人主義的 意識構造를 만들어 낼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직 託兒所施設이 普編化되어 있지 않아 幼兒期의 子女養育은 個別家庭에 맡겨지고 있으며 여기서도 個人主義的 意識構造의 뿌리는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既婚女性의 就業이 늘어나고 있어 託兒施設의 擴充은 불가피하며 大多數의 就業母들이 託兒所를 必要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意識構造의 變化가 豫想된다(表 7 - 2 參照). 保有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理由를 調查한 결과 72%가 教育上 有益할 것 같다고 대답하고 19%가 勤務時間동안 子女를 맡겨두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여⁷¹⁾ 子女의 成就度를 중시하는 意識構造를 알수 있다. 앞으로 託兒所의 擴充에 따라 託兒所에 收容되는 어린이가 늘어날 경우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의 意識構造에 상당한 變化가 일어날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註 69) 東亞日報 1989年9月25日字. 한국유니세프의 한 심포지움에서는 어린이들이 過剩教育으로 인한 짐이 무겁다고 지적하였다. 이 모임에서 김인회教授(教育學)는 子女教育이 점차 學業中心의 教育이 되어 過重한 學習量과 치열한 성적다툼에 쫓겨 올바른 教育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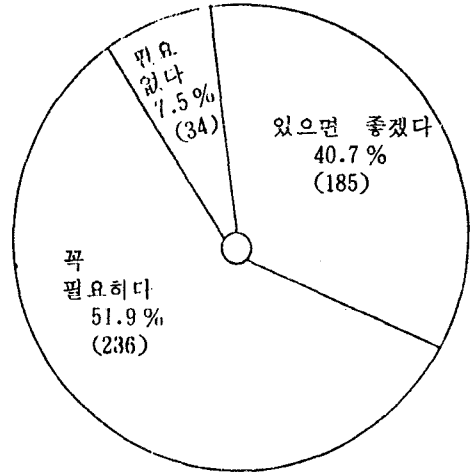
註 70) 東亞日報, 1990年7月29日字.

註 71) 『育兒保育 및 託兒事業制度 改善을 위한 研究』, 성균관대 社會科學研究所, 1989, p.324.

〈表 7-1〉 北韓의 託兒所
利用 後 女性生活



〈表 7-2〉 南韓의 託兒所의
必要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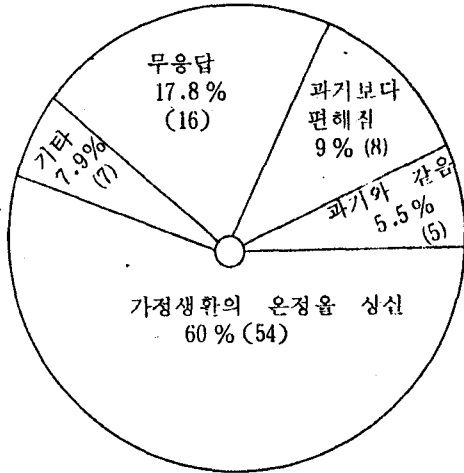
出處：國土統一院『北韓의 異質
化 實態調査』1983.p.135

出處：韓國行動科學 研究所,『全
國託兒需要 및 父母의 要
求調査 研究』, 1990,p.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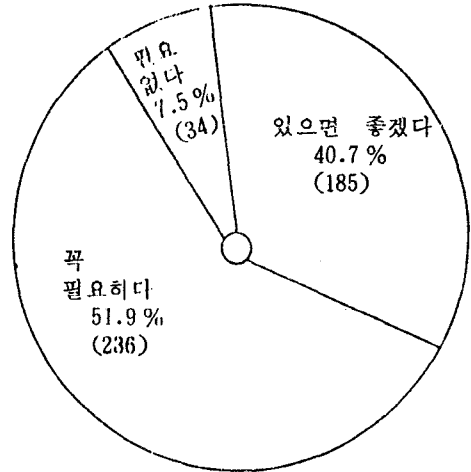
IV. 南北韓 新聞에 나타난 家族關係 意識構造 比較

南韓과 北韓에서 발행되는 新聞은 정도의 差異는 있지만 각
각 그 社會 住民의 意識構造를 일정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言論에 대한 통제의 정도나 性格에 따라 新聞의 內
容에는 많은 差異가 있지만 結婚이나 家族과 관계된 記事의

〈表 7-1〉 北韓의 託兒所
利用 後 女性生活



〈表 7-2〉 南韓의 託兒所의
必要性



出處：國土統一院『北韓의 異質
化 實態調査』1983.p.135

出處：韓國行動科學 研究所,『全
國託兒需要 및 父母의 要
求調査 研究』, 1990,p.52.

IV. 南北韓 新聞에 나타난 家族關係 意識構造 比較

南韓과 北韓에서 발행되는 新聞은 정도의 差異는 있지만 각
각 그 社會 住民의 意識構造를 일정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言論에 대한 통제의 정도나 性格에 따라 新聞의 內
容에는 많은 差異가 있지만 結婚이나 家族과 관계된 記事의

경우는 直接的으로 政治的 관심사와 첩예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新聞의 기사는 다른 어떤 側面보다도
사실을 歪曲할 可能性이 높다. 물론 메스 미디어의 기능에서
사실보도 보다는 교도적 기능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新聞報
道가 각 社會 住民의 意識構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
석할 수는 없지만 어떤 面에서 그 社會의 가치와 지향성을 더
욱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勞動新聞의 경우는 특히 勞動黨 機關誌이며 社會主義
社會에서의 메스콤의 특성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교도적 機能
이 강조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勘案할 수 있는데 家族 및
結婚과 관계된 기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교도적 기사가 주축을
이룬다. 이에 비해 南韓의 東亞日報의 경우는 現 南韓社會가 직
면한 家族의 變化나 問題點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두
新聞들이 1989年 8月부터 1990年 7月까지 1年 동안에 다
룬 家族과 關聯된 記事의 양을 보면 南韓의 東亞日報의 경우
는 뉴스記事 55件, 家族과 關係된 研究論文紹介나 企劃記事가
64件, 칼럼이 11件, 讀者의 편지나 투고가 27件, 其他 關聯
記事가 27件 等 總 174件으로 平均 이틀에 한 번 정도는
家族 關聯記事가 난셈이다. 반면 勞動新聞의 경우는 家族과 關
聯하여 施設이 1件, 뉴스記事가 68件, 칼럼 3件, 讀者投稿나

편지 1件, 其他 分類記事가 3件 등 도합 74件으로 양에 있어서 훨씬 뒤떨어진다.<表 4 - 1 參照>.

<表Ⅳ-1> 東亞日報와 勞動新聞의 家族關聯 記事 比較 :
1989 月 8 月 ~ 1990 年 7 月

	東亞日報	勞動新聞
社 說	-	1
記 事	55	68
研究論文 (設問調查, 심포지움)	64	-
컬 럼	11	3
讀者投稿	27	1
其他(女性인터뷰, 演說文(北韓의 경우))	27	3
計	184	76

勞動新聞은 6面으로 발행되고 東亞日報는 16面에서 20面씩 발행되고 있어 이 두 新聞의 記事의 양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어떻든 平均적으로 이틀에 한번 정도 家族關聯記事가 나는 경우와 4~5일에 한번 記事가 나는 경우는 그 내용과는 별도로 각각의 사회가 이 問題와 關聯하여 어떠한 입장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間接적인 척도는 될 수

있다. 또한 東亞日報의 경우는 結婚이나 家族과 관련된 社說은 한 件도 없는 반면 企劃記事, 家族關聯 研究論文, 設問調查 結果 등이 최다수를 보이나 勞動新聞의 경우는 社說이 1件, 그리고 나머지는 모범적이거나 영웅시되는 家族에 대한 探訪記事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인다.

〈表Ⅳ-2〉 勞動新聞 家族關係記事의 內容別 比較

	갯 수	비 率
家庭의 機能(國家와 黨에 대한 忠誠)	33	43.4
家庭과 軍의 關係	15	19.7
榮譽軍人과의 結婚 및 이들의 家族生活	13	17.1
子女養育 및 關係 戰爭孤兒	4	5.3
其他 女性關聯	11	14.5
計	76	100.0 (%)

內容面에서 보면 勞動新聞과 東亞日報의 家族關聯 記事는 더욱 分명한 差異를 드러낸다. 勞動新聞의 경우 家族보다는 國家를 우선시하고 國民 집합체로 의식하도록 교도하는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父母가 子女에게 黨과 國家指導者에 대

한 忠誠을 강조하고 社會主義에 대한 우월성을 크게 강조하여 教育시키고 있는 記事들이 주류를 이룬다. 北韓의 勞動新聞의 記事를 要約해 보면 表Ⅳ-2에서 보듯이 그 내용이 단조롭고 國家와 黨에 대한 忠誠을 다루는 記事가 단연 가장 많다. 다음으로 軍과 家庭의 관계를 강조하는 記事와 榮譽軍人과의 結婚이나 家族生活 소개이다. 그러면서 軍과 家庭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들 記事의 대부분이 사건기사이기 보다는 企劃記事이며 結婚이나 家族과 관계된 事件記事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勞動新聞 家族關聯 記事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여러 家族의 探訪 記事가 자주 실리는데 이들 기사의 내용은 대체로 社會主義 國家의 福祉制度에 대한 칭찬이나 祖國의 은덕에 대한 代에 걸친 감사의 표현 등이 중심을 이룬다. 예를 들면 大學을 나온 인테리 夫婦인 송광명氏 夫婦家庭을 訪問했는데 그 家族들은 社會主義 國家의 福祉制度를 칭찬하면서 “정말 어머니 祖國의 품이라고, 우리 社會主義 祖國, 우리黨의 품보다 더 은혜로운 품은 없구나”라고 감탄하였다.⁷²⁾ 라고 報道하고 있고 6.25 때 다리를 다쳐서 10年 가깝게 病院治療를 받고 療養生活을 하고 있는 김광숙氏 집을 訪問한 記事에서는 그는 祖國에서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든지 갚고 싶다고 말하고 子女들에게도 “우리 家

72) 勞動新聞 1989年 8月 15日字

庭이 代를 이어 갚아도 祖國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날이 갈수록 커가는 祖國의 恩德에 보답하기 위해 너희들은 일을 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⁷³⁾ 즉 國家의 社會保障制度에 대하여 ‘代를 이어 忠誠할 것’을 다짐하거나 그런 충성심을 家族의 가풍이나 긍지로 삼는 예도 많다. 순천시 관개관리소의 조재복氏는 지난 1977年 4月 김일성 誕生記念 선물을 받은 사실 및 어려운 시절에 黨의 도움에 감격해 하며 “나라를 위해 더 큰 정성을 바치는 그것이 위대한 首領님과 親愛하는 指導者 동지께 忠誠과 孝誠을 다하려는 우리집안의 家風이다”라고 자식들에게 당부하였다는 보도나⁷⁴⁾ 새로 지은 國民住宅에 이사한 한 勞動者 家庭을 취재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주체의 祖國, 朝鮮에서 태어나 黨의 품속에 안겨사는 이 행복이 영광이지요”라고 말했다는 보도⁷⁵⁾ 또는 革命의 首領을 어버이로 흠모하고 만드는 것은 人民大衆이 지녀야 할 가장 崇高한 풍모라고 강조하는 보도 등⁷⁶⁾, 로동신문의 보도는 社會主義 國家의 세포로서의 家族를 강조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代를 이

73) 勞動新聞 1989年 8月 21日字.

74) 勞動新聞 1989年 9月 19日字.

75) 勞動新聞 1989年 10月 3日字.

76) 勞動新聞 1989年 8月 18日字.

어 ” 祖國에 忠誠한다는 표현을 통해 家族의 의미가 “代를 잇는데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러나 그 代가 個別家族 代 잇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 祖國을 위한 代 잇기 임을 강조한다.

두번째로는 北韓 勞動新聞의 家族關聯 記事에서 자주 언급되는 項目은 家業의 代물림에 대한 강조이다. 특히 아버지가 하던 일을 子女가 代를 이어 하는 것을 미화시키고 있으며 아버지가 하는 일이나 家業이 남들이 기피하는 일일 경우 더욱 아버지와 子女의 代물림을 黨에 대한 忠誠으로까지 미화시킨다. 즉 어느 鑛夫家庭을 소개하면서 鑛夫인 아버지는 除隊軍人인 큰 아들과 高等中學校를 卒業한 딸에게 “나는 너희들이 代를 이어 탄전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黨의 뜻을 받드는 炭夫家庭의 家風이다 ”라며 炭夫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는 記事를 報道하고 있다.⁷⁷⁾ <무산鑛山聯合 企業所 문광려단의 표일석氏는 黨에서 開發計劃을 세우고 있는 철산봉에서 아들들이 일할 것을 希望하여 5兄弟가 철산봉에서 運轉 및 修理裝備 등의 일을 하고 있다.⁷⁸⁾>는 報道나 <신의주 水產協同組合 라성봉氏 家庭의 고기잡이배 7685 號가 첫 출어를 한 날부터 오늘까지

77) 勞動新聞 1990年 2月 24日字.

78) 勞動新聞 1990年 6月 29日字.

아버지는 船長, 맏아들은 機船長, 둘째, 셋째 아들은 船員, 딸은 무전수로 일하여 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딸에게 代를 이어 忠誠의 꽃을 피우자고 당부하였다⁷⁹⁾ >는 報道는 家庭을 통해 職業의 代물림이 일어나야 한다는 黨의 입장을 분명히 해 준다. 위의 新聞記事를 통해 할 수 있듯이 北韓의 家族은 독자적 단위이기보다는 國家를 위한 下部單位, 즉 세포조직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黨에 대한 忠誠心을 고취하는 한 방편으로 黨이나 國家에 대한 忠誠의 代물림, 職業의 代물림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이 勞動新聞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세번째로 勞動新聞에 등장하는 結婚에 대한 記事는 주로 榮譽軍人과의 結婚生活에 대한 것이다. 즉 부상을 당한 榮譽軍人과 結婚하는 사례들을 모범적 結婚의 예로서 新聞에 자주 紹介하고 있다. 예를들면 청진시 포항구역 자동차사업소에서 일하는 박기천씨는 하반신마비가 된 榮譽軍人과 結婚하였다. 10年前 박기천씨는 박길순氏가 계속 거절하자 박기천氏는 자신의 청혼이 단순히 青春男女들의 사랑問題가 아니며 祖國을 위해 青春을 바친 戰友에 대한 동지적 의지와 양심이라며 박길순氏를 設得하였다. 또 結婚後에도 박기천氏는 부인을 대신하여 家庭일과 職場일을 함께 하며 청진의 원앙씨 夫婦라는 별명이 날정도로 和睦하게 살고 있다⁸⁰⁾ 라던가 <看護軍이었던 강동칠(女)氏는 제철소에서

79) 勞動新聞 1990年 6月 30日字.

80) 勞動新聞 1989年 8月 17日字.

일하다가 동료의 오빠이며 하반신마비의 榮譽軍人인 정명현氏와 結婚하였다>⁸¹⁾, <대동강구역에 사는 황정옥氏는 하반신마비의 榮譽軍人 남편을 극진히 돌보아 마을사람들의 사랑과 尊敬을 받고 있다>⁸²⁾, <조금복氏 또한 敎員大學을 卒業하고 敎員生活을 하던 중 榮譽軍人 리승명氏에게 청혼하여 家庭을 이루었다>⁸³⁾ 는 등의 記事가 자주 실리며 때로는 障礙者와 結婚한 사례 등이 자주 소개된다.⁸⁴⁾ 이러한 記事들로 볼 때 北韓은 이런 障礙者나 榮譽軍人과 結婚하는 것을 革命的 역량이 강한 것으로 評價하여 높이 尊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結婚한 당사자들은 상대 배우자들을 남편이나 아내 이전에 革命同志로 여기고 있으며 榮譽軍人과 結婚한 젊은이들 역시 ‘黨과 首領을 위해 몸바친 훌륭한 사람이 잃은 것을 보충해 주고 그의 일생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革命同志로서의 의리감이 청혼하도록 만들었다’고 인용보도함으로써 結婚이 個人的 問題가 아님을 강조해 보여 준다.

81) 勞動新聞 1989年 1月 28日字.

82) 勞動新聞 1990年 2月 8日字.

83) 勞動新聞 1990年 5月 10日字.

84) 勞動新聞 1989年 9月 15日字.

네째로 勞動新聞은 軍人과 人民들이 相扶相助하는 사례를 家庭訪問 等を 통해 記事化하는 경우가 많다. 軍人과 人民間의 緊密한 유대관계는 軍인이 部隊 인근의 住民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에 대한 記事로 나타나기도 하고 人民들이 軍人에게 支援物資나 飲食을 해주는 등의 支援을 했다는 記事로 나타나기도 한다. 記事題目으로는 “軍隊와 人民은 한 家庭”이 자주 쓰이며⁸⁵⁾ 〈우리 人民은 軍人을 가리켜 우리 軍隊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親血肉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있으며 人民軍 軍人들은 人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다〉⁸⁶⁾, 또는 〈人民과 軍人들이 한 家庭 한 兄弟처럼 血緣의 으로 굳게 뭉친 이 전투적인 軍民一致의 위력,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원수도 일격에 격파할 必勝不敗의 힘이다〉⁸⁷⁾라는 記事나 〈어떤 人民은 軍人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켜 ‘家族寫眞’이라고 稱하며 자랑하기도 한다〉라는 記事 등에서 볼 수 있듯이 勞動新聞은 國家의 下部組織인 軍隊와 家族이 연대감을 갖고 國家와 黨의 發展에 忠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85) 勞動新聞 1989年 7月 15日字, 1990年 2月 16日字 等.

86) 勞動新聞 1990年 4月 24日字.

87) 勞動新聞 1990年 2月 16日字.

〈表Ⅳ-3〉 東亞日報 家族關係記事의 內容別 比較

	갯 수	比 率
家 族 法	5	2.7
家族解體(尊屬, 卑屬 殺傷, 家族問題)	22	12.0
家族關係(父母-子女, 夫婦關係)	20	10.9
老人問題(老父母扶養)	15	8.2
女性の 社會進出(雇 傭, 賃金, 社會參與)	44	24.0
性(性暴行, 간통, 성의식)	32	17.4
結 婚, 婚 需	11	6.0
離 婚	8	4.3
子女教育 및 託兒 (兒童問題)	27	14.7
計	184	100.0 (%)

반면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은 表Ⅳ-3에서 보듯이 다양하며 女性의 社會進出, 성폭행이나 간통 등 性과 關聯된 內容, 子女教育 및 託兒 等 兒童問題, 그리고 家族解體問題 等이 가장 자주 기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韓國社會가 直面하고 있는 家族關聯 問題點을 反映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女性의 社會進出이나 兒童問題 등은 企劃記事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家族解體의 問題는 企劃記事나 事件記事가 비슷한 比率로 報道되고 있다. 東亞日報의 경우 國家는 家族을 위해 어떠한 機能을 해야 하는가에 보다 關心을 보이며 國家를 위해 家族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記事는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職業의 대물림에 대해 그렇게 큰 關心을 두지 않으며 빈곤가족의 世襲된 貧困에 대해서는 關心을 보인다. 障礙者나 傷殘軍人과의 結婚生活을 미담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이며 最近 結婚과 關聯하여 자주 言及된 問題는 ‘장가 못 간 농촌총각’ 問題나 豪華婚需問題이다. 농촌 총각이 配偶者를 구하지 못해 자살한 일이나 婚需問題 때문에 구타를 당하거나 離婚당한 事件 등이 뉴스로 다뤄지거나 企劃記事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⁸⁸⁾ 즉 南韓社會가 直面한 家族 및 結婚의 問題點을 부각시키는 報道들이 주축을 이룬다. 또한 南韓의 新聞들은 勞動新聞과는 對照的으로 家族모델을 도입한 企業體들에 보다 關心을 보이며 東亞日報의 경우 〈家族參與 行事 活氣〉, 〈社員家族만을 위한 社報 發刊〉이나 〈社員夫人을 위한 講習會〉, 〈社員子女 캠프〉 등의 記事를 통해

88) 東亞日報 1989年11月29日, 1990年2月23日, 1990年3월10日字.

家庭과 職場을 連結하고자 하는 企業體들의 活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社會가 核家族化할수록 家庭의 役割이 더욱 重要해져 家族들로부터 理解와 信賴를 받는 사람이 職場에서도 열심히 生活한다는 認識이 생기고 있다는 企劃記事 등을 싣고 있으며 家族의 解體, 家族 利己主義를 企劃記事로 取扱함으로써 共同體 意識의 상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東亞日報의 結婚 및 家族과 關聯된 報道는 폭로성 뉴스와 問題點 시정을 위한 企劃記事 및 家族의 變化와 關聯된 방향정립을 시도하는 記事들로 構成된다.

이러한 현상은 兩 社會가 問題삼거나 強調하고자 하는 家族像 및 이와 關聯한 주민들의 意識化의 方向을 보여주는 한 側面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北韓은 家族을 통해 集團主義的 意識構造, 國家와 당에 충성하는 意識構造를 공고히 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南韓의 경우는 社會變化에 따른 家族機能이나 構造에 焦點을 맞추면서 극단적인 個人主義化나 家族 利己主義를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南北韓 住民의 意識構造의 가장 기본적 성격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앞서의 論議에 根據해 볼 때 南韓과 北韓住民들의 意識構造의 차이는 結婚 및 家族과 關聯된 영역에서도 상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北韓의 경우 集團主義的 意識構造는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모든 領域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意識構造에서 性別間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세대간에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領域에서는 젊은 세대가 더 集團主義的 意識構造를 보이는 반면 다른 領域에서는 나이든 세대가 더 集團主義的 價値를 드러내고 있어 集團主義的 意識構造의 變化의 行방을 짐치기 힘들게 한다. 北韓住民의 集團主義的 意識構造는 家族과 個人 및 國家와의 關係에 대한 意識에서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에게 있어 個人은 전연 중요하지 않으며 家族의 重要性은 단지 國家의 下部組織으로서의 道具的 機能性에서만 찾아지고 있다. 특히 國家를 中心으로 한 共同體 意識이 강하다. 그러나 젊은층에서는 家族을 중시하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國家中心의 意識構造가 弱化될 可能性도 있다. 南韓의 경우는 個人主義的 性向이 모든 年齡이나 階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南韓住民의 個人主義的 性向은 家族을 매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家族 利己主義的로 곧

잘 나타나고 있다. 個人이 國家나 社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家族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個人이나 國家가 모두 중요성에서 家族의 下位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젊은층에서는 보다 個人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보다 원자화된 意識構造를 보인다.

한편 배우자 選擇에 나타난 南北韓 住民의 意識構造는 큰 차이가 없다. 北韓은 黨性을 南韓은 經濟力을 중시하는 것은 兩社會가 重要視하는 社會的 地位의 基準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結婚을 地位와 연관시키는 意識構造는 南北韓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南韓의 경우 結婚에 있어 自由意思를 중시하고 연애결혼을 選好하는 성향이 뚜렷한데 비해 北韓의 경우 이에 대한 제약이 많으며 이점에서 보다 傳統的인 意識構造를 보여준다. 한편 南韓에서는 배우자 選擇에서 남자들이 여자의 미모를 중시하는데 비해 北韓은 여성의 외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이는 北韓과 南韓이 男女關係에 대한 意識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일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社會主義 體制와 資本主義 體制에서의 男女關係에 대한 意識構造를 反映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는 社會體制的 性格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각 社會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이들의 意識構造에 그대로 反映되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두 社會에 나타난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를 보면 매우 複雜하며 모순적이다. 北韓의 경우 女性의 社會進出에는 보다 平等的한 意識構造를 보이면서 女性性을 중시하고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며 성에 관한 통제가 嚴格하고 傳統的 性役割 意識이 殘存해 있다. 반면 南韓의 경우는 社會進出에 대한 意識에서 男女差異가 크게 나타나고 이성교제가 自由로우며 國家의 性통제는 弱化되고 있고 성의 商品化가 相當한 速度로 進展되어 肉體的 순결성 등에 큰 價値를 두지 않는 性向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北韓은 傳統的인 가부장적 意識構造에 資本主義的 意識이 접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목은 兩社會의 結婚 및 家族과 關係된 意識構造에서 매우 二重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兩社會의 代表的인 新聞에서 보듯이 北韓社會는 家族主義를 社會主義의 強化에 活用하고자 하며 南韓은 또한 家族主義를 資本主義化에 活用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들은 兩社會의 住民의 意識構造에 그대로 反映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젊은世代에 갈수록 家族를 重視하고 家族의 私생활화 (privatisation)에 대한 要求가 커지고 있어 體制의 性格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반면 南韓의 경우는 家族共同

體의 性格이 弱化되고 家族利己主義에서 더 나아가 젊은 世代에서는 原子的 個人主義的 意識構造가 나타나고 있어 社會統合의 기반이 弱化될 소지를 보여준다.

이는 家族生活이나 가구구조가 이 社會에 지닌 모순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한 斷面이기도 하다.

參 考 文 獻

- 기 독 연, 「海外동포가 본 北韓동포의 統一論義」, 민衆社, 1988.
- 국제문화협회, 『김남준, 김광춘, 임정희 면담내용』, 1989.
『남명철, 박철진 면담내용』, 1990.
『장영철, 전철우 면담내용』, 1989.
- 國土統一院, 『南北韓 社會文化 現況 比較』, 1989.
『김만철 일가 면담』, 1987.
『北韓概要』, 1978.
『北韓住民 意識構造 變化實態』, 1983.
『北韓異質化實態調査』, 1978.
- 東亞日報, 1989年7月—1990年7月
勞動新聞, 1989年7月—1990年7月
『展望』, 1990年6月.
- 韓國女性開發院, 『女性白書』, 1985.
- 구 자 순, 「北韓 社會主義 體制와 老人」, 『北韓 社會體系의 理論的 考察』, 國土統一院 89-12-147, 1989.
- 김 남 식외, 『北韓社會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現場文化社, 1989.

- 김 동 춘, 「北韓의 教育」, 『北韓의 社會』, 을유문화사, 1990.
- 김 미 숙, 「韓國靑少年의 結婚觀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7.
- 김 형 찬, 『北韓의 教育』, 民衆社, 1988.
- 백 문 희, 「結婚 적령기 男女의 配偶者 選定條件」, 梨花女大 教育大學院, 1986.
- 백 숙 자, 『北韓의 女性』, 民衆社, 1988.
- 송 재 희, 「大學生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結婚觀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9.
- 안 계 춘, 『北韓住民 生活 實態調查』, 國土統一院 89-11-93, 1989.
- 이 문 응, 「귀순자의 證言을 통해 본 北韓體制 研究實態 研究」, 國土統一院, 1989.
- 이 온 죽, 『北韓社會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 이 태 영, 『北韓女性』, 實踐文學社, 1988.
- 이 환 구, 『北韓의 실상과 허상』, 韓國出版公社, 1985.
- 임 선 하, 「北韓住民들의 意識構造 變化推移 分析」

南北韓 靑少年의 社會化 過程 比較

도 종 수
(한국청소년연구원)

김 미 숙
(청 주 대)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靑少年 社會化 政策
- III. 社會化 擔當機關
- IV. 靑少年의 價値觀 및 社會化의
問題點
- V.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社會化란 社會成員이 되는데 必要한 態度, 價値, 思考 및 行動의 方式을 다른 사람들과의 相互作用을 통해 習得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個人的 觀點에서 볼 때 社會化는 個人的 成長과 發達을 위한 潛在力을 實現함으로써 自我를 獲得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의 觀點에서 볼 때 社會化는 個人들을 確立된 文化傳統과 組織화된 生活方式에 適應되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양춘, 1984:80).

따라서 어느 社會나 所屬成員을 그 社會가 要求하는 人間형으로 養育하고 學習시키는 ‘人材 養成’에 주력하게 된다. 이는 所屬된 社會의 文化가 기대하고 指示하는 대로 思考하고 行動하게 될 역군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人間形成을 위한 創造的 과정으로서의 社會的 同化作用 또는 社會的 再生産 作業으로 定義되는 社會化(이철위, 1982:6)는 社會 秩序를 統合·維持시키는 手段이 된다. 다시 말하면, 理念이나 體制를 초월하여 어느 社會에서나 社會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그 社會가 必要로하는 人間형을 기대하며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各 社會가 指向하는 理想的 人間像의 輩出과정으로서 社會化는, 분단 이래 45年 동안 이질적인 경로를

밝아 온 南·北韓 社會에서 各各 어떻게 展開되어 있는지를 구명하는 作業이 要請된다.

本 論文은 南·北韓 社會가 각기 의도하고 追求하는 價値指向이나 人間關係가 나름대로 존재한다는 假定下에, 미래 社會의 主體이자 國家 社會의 將來를 責任질 豫備成人인 靑少年의 社會化 過程을 南韓과 北韓의 그것으로 區分·比較하고자 한다. 各 社會의 價値追求나 人間關係의 過程 및 運用方式이 靑少年의 社會化 過程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youth)에 반영될 것이라는 論理에 依據하여, 關聯 爭點을 다음과 같이 分類하여 檢討하고자 한다.

(1) 該當社會에서 靑少年 政策에 대한 核心 原則은 무엇이고 이의 樹立과 執行主體로서 國家(또는 黨)의 役割이나 機能은 무엇인가?

(2) 社會化的 方向과 內容에 重大한 影響을 끼치는 社會化的 擔當機關들 - 家族, 學校, 職場, 其他 制度 및 組織體들 - 이 該當社會에서 차지하는 位置나 役割은 具體的으로 어떠한가?

(3) 社會化的 因果的 產物로서, 靑少年의 一般的인 意識·態度·價値觀은 어떠한가? 靑少年 非行등 社會化 過程의 問題點은 어떻게 表出되는가?

(4) 結論的으로, 南·北韓 社會가 하나의 民族共同體가 되기 위해서 解決되어야 할 課題는 靑少年의 社會化와 어떠한 聯關이 있을 것인가? 등으로 構成될 것이다.

II. 靑少年 社會化 政策

本來, 靑少年이란 兒童 또는 成人에 대해서 相對的으로 구사되는 世代概念이기 때문에 사춘기에서 成人에 이르는 過渡期 또는 그 期間에 該當되는 사람 모두를 總稱하여 일컫는 用語로 定義된다(이철위, 1984:11). 또한 이 概念은 男女를 불문하고 ‘젊은이’와 同意語的 용례를 갖는 하나의 社會的 範疇(a social category)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出生부터 初期 成年期’까지 모두를 包含한 包括的 觀點에서 靑少年의 社會化 過程을 論하고자 한다.

이렇듯 새로운 삶의 段階에 놓여있는 靑少年들이 劃一的이고 總체성을 強調하는(박헌옥, 1989:104) 北韓社會에서는 어떠한 社會的 機制(mechanism)를 통해서 ‘社會主義型 人間’이 되는 가는 重要的 研究課題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北韓의 社會主義는 ‘第4의 共產主義’(도홍렬, 1990)라는 評價를 얻을 程度로 蘇聯, 中國 또는 東歐諸國들과는 다른 北韓 特有的 社會主義를 組織·創造하였기에 더 큰 關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分斷以來 社會主義 路線을 견지하고 있는 北韓에서 社會 全般에 걸친 計劃的인 再組織 作業은 唯一黨인 「朝

鮮勞動黨」¹⁾의 直接的인 主導와 그밖의 社會機關이나 組織의 補完的 措處를 통해서 進行되고 있다는 點이 指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勞動黨의 計劃아래 「북한형 人間」으로 길들여진 「주체형의 共產主義 革命家」 (변진홍, 1982:120)가 典型的인 北韓 젊은이들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1975年, 平壤에 있는 社會科學研究院이 制定한 〈主體思想에 基礎한 社會主義 教育指標〉는 다음과 같은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우리는 後代들이 그〔김일성〕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의 權威를 절대화하며 그의 思想과 教시를 信念으로 信條

註 1) 通稱 勞動黨으로 불리우는 「朝鮮勞動黨」은 北韓社會에서 일
개 政黨의 次元을 뛰어넘는 統治機構로서 모든 國家機關,
行政, 司法, 立法府의 상위에 군림되는 最高의 實力機關이
며 指導的 核心體이다. 黨 機層組織의 任務는 北韓民의 組
織·動員·教養·統制事業을 廣範圍하고 일상적으로 展開하
면서 共產主義 人間형의 개조를 圖謀한다(김영희, 1988).
勞動黨에는 北韓의 「核心階層」 3百萬名이 入黨하고 있
으며, 最高人民會議, 行政機構, 司法機關, 軍組織의 主要成員
들은 例外없이 勞動黨員으로 加入되어 있다(朝鮮日報,
1989.8.14).

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시를 法으로 至上의 命令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바쳐 鬪爭하는 崇高한 主體型的 共產主義 革命家로 키워내야 한다” (도홍렬, 1990:128).

勞動黨 規約에 명시된 社會化的 目標에 該當되는 內容으로서 는, 김일성·김정일의 要求대로 움직이는 定型화된 人間의 輩出에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社會主義的 革命을 至上 最大의 課題로 삼는 人間의 形成을 目標로 한다(도홍렬, 1990:128). 社會主義 原理에 입각한 ‘共產主義的 새人間’의 誕生을 위해서 肯定과 否定의 價値를 부각시키는바, 肯定的 主題는 ‘主體思想’, ‘革命傳統’, ‘集團主義’, ‘勞動價値’ 등이다 (김영희, 1988:59 : 문용린, 1990:393). 반면, 否定的 內容으로는 ‘反美’, ‘反日’, ‘反韓思想’, ‘反資本主義’, 그리고 ‘修正主義 등에의 批判’이다 (김영희, 1988:59).

勞動黨의 計劃的 의도에 따라 主導되는 北韓의 靑少年 社會化 內容은 政治 理念 爲主의 極端的인 集團主義 教育과 階級 意識의 鼓吹로 南韓과는 異質的인 特性을 보이고 있다.

南韓 社會化 政策의 基本 目標는 南韓 社會의 基本 構成 原則인 資本主義와 自由民主主義 理念을 教育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教育改革審議會, 1987:33). 靑少年 社會化 과정에는 家族, 學校, 職場, 大衆媒體, 親友集團 등 多樣한 社會制度 및 機關이 參與하며, 이들의 役割은 法的·行政的 措置를 통하여 直

接 또는 間接的으로 政府의 統制 또는 調整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北韓과 比較하면, 이들 機關의 自率性的 幅이 크다고 할 수 있다.

政府의 介入이 가장 直接的인 學校의 경우, 文敎部는 教育政策 및 教育課程의 樹立, 教科書 等 教材의 統制, 教育財政의 管理, 教師 養成 및 充員制度 管理, 學校設立 및 定員變更 認·許可 等を 통하여 直接的으로 管掌하고 있다.

南韓의 教育 理念은 ‘自我實現을 통한 弘益人間, 에 基礎하고 있다(홍웅선, 1989:82). 이것은 건국 當時부터 내세운 民主的 民族主義라는 國家 理念 또는 政治 理念과 一致하며, 또한 傳統的 價値에 基礎를 두면서 民主主義의 價値를 反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人間 各自가 지니는 固有의 發展 可能性을 開發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각자의 固有한 能力과 方法에 따라 國家와 社會, 나아가 世界의 平和와 繁榮에 貢獻할 수 있는 人間의 育成”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홍웅선, 1989:82).

解放以後 南韓의 教育이 追求하는 特性을 教育課程의 變遷에 따라 살펴보면, 50年代에는 弘益人間의 理念 위에 人格의 완성, 自主的 生活能力, 公民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民主國家 發展에 奉仕하고 人類共榮의 이상 實現에 기여하는 人間 特性을 追求하였다. 60年代에는 民主人, 自主人, 問題解決人, 經濟人, 健康

人, 情緒人, 道德人을 바람직한 人間像으로 보았다. 70年代에는 自我를 實現하는 사람, 國家發展에 이바지하는 사람, 民主的 價値를 強調하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維新理念과 聯關지어 指導者의 重要性 認識, 責任完遂, 團結, 反共 등이 強調되었다. 80年代에 들어서에는 健康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能力있는 사람, 道德的인 사람, 國際的인 사람 등 全人教育을 指向하였다. 1987年 以後 第5次 教育課程에서는 21世紀를 主導할 人間像으로서 弘益人間的 理念 위에 自主的 人間, 創造的 人間, 道德的 人間과 健康한 人間을 追求하고 있다.

學校教育 以外的 各種 靑少年活動 및 社會教育은 分野에 따라 14個 政府 部處에서 靑少年團體 設立 및 活動 認許可, 財政 支援 등을 통해 關여하고 있다. 現代社會에서 날이 갈수록 비중이 더해가는 大衆媒體도 認許可 業務, 財政 및 租稅 支援, 檢閱 등을 통해 公報處, 韓國 刊行物 倫理委員會, 放送委員會等 政府 및 政府關聯機關의 統制를 받고 있다. 家族에 대한 政府의 關여는 直接的이지는 못하고 家族法 등 各種 法的 措置와 褒賞, 弘報, 住民教育 등 行政措置를 動員하여 間接的으로 關여하고 있다.

靑少年 活動 關聯 14個 部處의 業務現況을 보면 靑少年 問題에 대한 政府의 關心이 점차 高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部處間 業務分掌이 不明確한 點, 實際 業務를 擔當할 일

선 機關이 없는 點, 活動對象이 學生青少年에 치중이 되고 勤勞青少年, 農漁村青少年, 無職·未進學青少年 등이 소외되고 있으며, 活動 參加人員이 少數인 點 등의 問題點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모, 1988).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고자 1988年 青少年 育成法을 制定 公布하고 諸般 青少年 業務를 體育部에서 總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現在까지는 의도한 機能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國務總理室 傘下 青少年 育成委員會에서 設定한 1989年度 青少年 國民精神教育 推進 方向은 “첫째, 青少年에게 民族 自尊意識을 鼓吹하고 둘째, 自由民主主義의 理念과 體制에 대한 우월성을 鼓吹하여 自由民主主義를 수호하고 世界平和統一意志를 함양함으로써 내일의 밝은 社會를 建設하는데 ” 目的을 둔다고 하고 있다 (青少年育成委員會, 1989:244). 推進 事業으로는 初·中等學校 國民精神教育關聯 教科書 改編, 高等教育機關의 理念 講座 개설 勸獎, 國民精神教育資料를 開發 普及, 教科教育 以外에 學校에서 實施되는 각종 課外活動을 통한 國民精神教育 實施 등이 選定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北韓의 青少年 社會化 政策은 “社會主義型 人間”의 形成과 김일성·김정일을 따르는 人間의 輩出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集團主義 教育和 階級意識 鼓吹에 注力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南韓에서는 自由

民主主義와 資本主義 理念의 教育이 靑少年 社會化 政策의 根幹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南·北韓 모두 각각의 既存 體制를 維持·發展시키기 위한 理念教育 및 人間輩出에 注力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社會化 政策이 勞動黨의 主導에 따라 고도로 組織化·體系化되었다고 하겠다. 반면에 南韓의 社會化 政策은 政府 主導이기는 하지만 北韓에 비해 덜 組織的이고 非體系化되어 있으며 각 部門의 自率性이 발휘될 여지가 許容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社會化 擔當機關

지금부터는 각각의 社會가 要求하는 人間形成을 위한 社會化 과정을 個人의 삶의 주기에 相應하는 社會化 경로를 中心으로 소개하겠다. 즉, 出生부터 初期 成年期(大學 進學 또는 職場 配置까지)에 이르는 과정을 關聯 社會化 媒介體들을 中心으로 그들의 役割·機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家 族

家族은 人間의 社會化 擔當機關으로서 가장 오래된 制度이다. 人間은 父母의 품안에서 태어나 獨立하기 전까지는 家族 안에서 成長하고 生活하게 된다. 특히 幼年期의 社會化에 있어서 家族의 役割은 絶對的이다.

유아들은 家族과 처음으로 타인과 紐帶를 맺게 되고 家族으로부터 말을 배우며 文化的 價値와 規範을 배우게 된다. 부모의 愛情과 養育方式은 어린아이의 情緒的 發達과 行動方式에 決定的인 影響을 준다. 또한 家族은 아이들의 階層的 지위를 決定하는 役割을 한다. 家族의 社會的 位置는 子女의 社會的 지위를 決定하는 가장 重要한 要因이 된다(양춘, 1989:182). 北韓의 경우에는 生後 3個月이 되면 託兒所에 맡겨지므로 家族

의 役割이 弱화된 편이다. 그러나 南韓에서는 既婚女性の 就業率이 낮아 어머니가 直接 養育하거나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보아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家族의 役割은 여전히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靑少年期는 學校 또는 親友集團 等에서의 家族外 活動이 增加하며 자라온 家族으로부터의 獨立을 追求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家族 成員間의 接觸은 減少하는 시기이다 (양춘, 1984:94). 그러나, 家族과의 接觸이 減少함에도 불구하고 經濟的·社會的 獨立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여 靑少年期の 社會化 과정에서 家族의 役割은 여전히 重要하다.

北韓에서는 종래의 유교적인 가부장제적 家族秩序를 과감하게 脫皮(이를테면, 自由結婚 保障, 強制結婚 禁止, 男女 동등한 離婚權利 認定, 일부다처제와 축첩 및 기생제 廢止, 戶籍法 廢止 등)하는 한편, 家族을 社會主義 革命理論의 實習場化하는, 이른바 ‘社會生活에 의한 세포로서의 家族生活’을 強調한다(김성원, 1982:80). 따라서, 子女 社會化的 원초적이고 일차적 場으로서 出生과 養育에 따르는 家族의 機能은 質과 量에 있어 南韓의 日常的 經驗과는 달리, 그 相對的 重要性이 弱화된 수 있다.

北韓에서 家族이 擔當하는 社會的 役割을 엿볼 수 있는 「朝鮮家族法」의 內容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同法 第1條에 의하면 “家族은 社會主義 革命理論의 實習場이며 生産의 最低單

位이다” (北韓研究所, 1982)라고 規程하였다. 따라서, ‘社會主義的 家族’의 概念에 의하면 家族間的 愛情은 資本主義的 유물인바, 血緣關係에서 비롯되는 歸屬意識은 封建的 思考方式으로 치부된다. 대신에 家族은 ‘새로운 共產主義的 人間’을 만들어내는 革命的 社會세포가 되어야 한다. 즉, 家族은 革命化되어 家族生活 속에서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을 확고하게 배양하여 家族生活 自體가 靑少年들에게 革命的인 影響을 줄 수 있는 學習의 場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北韓研究所, 1982:4-5). 김일성은 1961年 11月 「全國 어머니大會에서 한 演說」에서 北韓의 어머니들은 ‘自己 아들의 生命보다 祖國과 人民과 革命을 더 귀중히 여기는 어머니’, 그리고 ‘共產主義者를 기르는 붉은 어머니, 共產主義 어머니’가 되어야 함을 強調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머니 자신이 共產主義者로 되어야 한다’고 指摘하였다 (北韓研究所, 1982:4).

1978年 4月 最高人民會議 6期 2次會議에서 결의된 勞動法에 의하면, 임신부는 産前 5週, 産後 6週의 休暇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産後조리가 미흡한 산모는 最高 5個月의 有給休暇가 可能하다) (東亞日報, 1990.1.1). 出産休暇가 끝나면 産母는 女性勞動力 活用の 極大化를 위해서 職場에 復歸한다. 따라서 재래의 傳統的 社會化 集團으로서 重要的 家族의 影響을 극소화되는 대신, 效果的인 集團養育을 위해서 早期教育이 強調

된다. 갓난아기는 生後 3個月 부터 公共 養育機關 - 託兒所, 幼稚園 等 - 에서 劃一的 團體 養育狀態에 놓여진다. 특히 ‘어린이 保育教養法’ (1976年 4月 制定)과 ‘社會主義 教育체제’ (1977年 9月 制定)의 制定以後 北韓의 모든 어린이들은 의도적으로 計劃된 프로그램 아래서 養育될 것이 制度化된 것이다.

北韓의 家族이 傳統的인 家族制度에서 벗어나 社會主義가 必要로 하는 學習의 場으로서의 家族으로 변모하였다. 반면, 南韓의 家族制度는 傳統的인 血緣的 家族主義가 존속되고 있다.

1986年의 한 調査에 따르면 南韓 사람들은 家族을, 血緣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 (43%)이며 다음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 (38%)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바람직한 家族生活의 條件에 대해서도 愛情·화목·相互理解와 對話라는 의견이 압도적 (77%)인 比率로 나타났다. 이런 면에서 南韓의 家族生活은 核家族 特有的 愛情指向的 價値가 支配的이면서도 血緣爲主의 家族主義가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학준외, 1987:126).

다른 研究를 보면 ‘老人은 子女와 함께 살아야 한다’ (70%), ‘父母가 시키면 싫더라도 따른다’ (71%)인데 찬성하고 있어, 앞서 言及한 家族中心主義와 함께 부모공경, 부모께 순종하는 등의 傳統的인 家族主義的 規範과 價値가 많은 부분 계

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원석조, 1984;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 1985).

가족의 規模를 보면, 南韓의 가족은 産業化·都市化가 급속히 進行됨에 따라 大家族制度로부터 核家族形態로 대체되고 있다.²⁾

1960년에 總人口 2,479萬名에 437萬 家口로 家口當 平均 家族數는 5.6인이었으나 1985년에는 總人口 4,081萬名에 957萬 家口로 平均 家族數는 4.1인으로 減少하였다(靑少年 育成 委員會, 1989:63-64).

核家族化는 여러가지 變化를 수반하고 있다. 1984年の 한 調査에 의하면, 남편의 家계에서의 주소득원 役割은 큰 變化가 없으나(79%), 主부의 役割이 크게 增加하고 있다. 主부는 生活必需品의 主購入者이며(87%), 친척왕래의 主擔當者(53%), 班常會議 主參席者(71%)가 되고 있어 消費 및 社會接觸活動

註 2) 北韓에서도 小家族化 傾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학준외, 1987). 그러나 愛情指向的인 傾向은, 北韓의 家族이 ‘社會主義的 家族’으로 革命과 階級鬪爭等 社會主義的 價値를 愛情보다 우선하고 있어 南韓에 비해 약할 것으로 보인다.

에서 女性의 役割이 크게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모, 1984).

이와 함께 女性의 家族內 權力과 社會活動 參與가 增加되며, 男性의 家事補助가 增加하는 등 男女平等 및 民主的 家族運營을 指向하는 趨勢가 나타나고 있다. 집을 賣買하는 경우에 60%의 家族이 부부공동으로 決定하며 30%는 남편이, 6%는 부인이 決定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所得處分에서의 女性의 決定權者 役割과 함께 女權伸張을 反映하고 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愛情이 가장 重要하다는 의견이(75%) 처의 순종을 強調하는 것보다(19%) 普遍化되고 있다. 집안청소(58%) 및 세탁(34%)에 남편이 부인을 도와주고 있으며 家族은 ‘가장을 中心으로 위계질서가 確立되어야 한다’(42%)고 생각하기 보다는 ‘家族員의 개성이 반영된 民主的이고 橫的인 유대로 맺어져야 한다’(54%)고 보고있어 男女平等과 民主的 家族運營을 指向하는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부의 家族바깥 就業에도 64%가 찬성을 하였다(김영모, 1984 : 원석조, 1984).

부모와 子女의 關係를 볼 때도 子女意見의 제시와 수용경향이 增加하며, 子女教育도 民主的으로 해야한다는 경향이 增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5년의 靑少年 意識構造 調查研究에 의하면 ‘부모와 意見對立를 經驗’하거나(45%) ‘부모와 다

른 意見이라도 부모님께 개진한다'는 靑少年(78%)이 많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부모가 시키면 싫더라도 따른다'(71%)는 靑少年이 대부분이다. 부모의 立場에서도 '子女는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25%)기 보다는 '子女의 能力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民主的으로 가르쳐야 한다'(72%)고 보고 있다. 또한 子女에 관한 重要한 問題에는 子女의 意見을 존중 해주겠다(58%)는 부모가 대부분으로, 부모와 子女의 關係가 民主的 關係로 變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財産相續에 관해서도 '큰아들에게 많이 물려주어야 한다'(23%)는 것보다 '모든 子女에게 公평하게 물려주어야 한다'(66%)는 意見이 支配的인 것으로 나타나 장남 우선의 慣習이 弱化되어 감을 알 수 있다(원석조, 1984).

北韓과 같이 '社會主義的 家族'을 指向하는 社會에서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黨과 首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났다'고 가르침으로써" 김일성을 '아버이'라고 부르는 社會風土가 普遍化되는 非人間的인 點이 問題인 것으로 보인다(도홍렬, 1982). 南韓에서는 男女平等과 民主化 等の 肯定的인 變化와 함께 核家族化에 따른 問題點들이 부각되고 있다. 南韓에서의 核家族制度의 副作用으로는 부부간의 調整機能 부재, 家族間 對話 不足, 家庭教育 미흡, 부모의 過剩保護 또는 無關心, 子女에 대한 지나친 기대 등이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급증하고 있는 靑少年 非行과 같은 제 반 靑少年 問題의 한 重要的 原因으로 간주되고 있다.

2. 託兒所와 幼稚園

北韓에서는 生後 3個月부터는 갓난아기를 託兒所에 맡겨야 하
기 때문에 初期 社會化段階로서 嬰·幼兒期에 집중적으로 必
要한 어머니의 보살핌은 縮小된다. 반면, 國家와 社會가 集團教
育의 터인 託兒所(現在, 北韓 全地域에 걸쳐 種類를 달리하는
6萬여개³⁾가 設立되어 있음)와 2年課程의 幼稚園 教育(萬 4
歲 부터 5歲 까지의 어린이를 對象으로 하되, ‘낮은 班’과
‘높은 班’으로 區分된다) 履修를 業務規程으로 設定하였다(문용린,
1990:도홍렬, 1990). 就學前의 該當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註3) 北韓의 託兒所는 크게 4가지로 區分된다. ‘日日託兒所’
(日常的인 職場에 勤務하는 부모들이 이용하는 日單位 託
兒所로서 工場·企業所·農場등에 주로 設置되어 있다),
‘週託兒所’, ‘月託兒所’(市·郡別로 1~2個所 設置되
어 있어 부모가 長期派遣勤務를 하거나 公演을 해야할 경
우에 利用한다). 그리고 ‘季節託兒所’ 등이 그것이다(문
용린, 1990:396).

公共機關에서 集中的인 人性教育을 받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들이 未來社會의 주인이 될 것이므로 어려서부터 集團生活을 통해서 劃一的인 集團主義 思考方式과 生活習慣을 日常化 할 수 있다는 論理에 根據한다.

幼稚園에서 教養員들이 가르치는 內容은 우선, 어린이들에게 ‘적’의 概念規定(美軍·地主·資本家 等) 및 적을 다루는 方法을, 그 다음은 社會行爲의 準거로서 김일성의 革命傳統繼承과 關聯된 過去行動에 관한 것으로서 集中的인 주입식 教育이 特徵이라 한다(도홍렬, 1990:133). 여러가지 形態의 幼稚園중에서 日日幼稚園(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부모가 데려가는 類型)과 週幼稚園(土曜日 午後부터 月曜日 아침까지만 부모와 함께 지내고, 나머지 期間은 幼稚園에서 生活하는 類型)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문용린, 1990:398).

南韓에서는 아직도 어머니의 家族外 就業이 普遍化되지 않았고 傳統的인 어머니의 育兒機能이 強調되고 있어서 北韓에서처럼 託兒所 또는 幼稚園이 普遍化되어 있지 않다. 最近에 들어 既婚女性의 就業이 增加함에 따라 託兒所, 幼稚園, 또는 놀이방이 增加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부분적인 現象에 그치고 있어 家事에 전념하는 어머니가 直接 養育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머니가 就業하는 경우에도 조부모나 친척 또는 파출부가 돌보아주는 것이 一般的이다.

南韓의 幼稚園은 4~5歲 兒童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義務教育이 아니다. 幼稚園 就學 兒童이 80年代에 들어 6倍 가까이 급증하였음에도 1988年 現在 國民學校 就學兒童의 56%만이 幼稚園 教育을 이수하고 있다(靑少年 育成委員會, 1989: 77). 幼稚園의 設立은 該當地域 教育長의 認可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園兒數(40人 以內)와 教育日數(年 180日 以上) 등이 教育法 또는 教育法 施行令에 規定되어 있다. 幼稚園의 教育內容은 身體, 言語, 認知, 情緒 및 社會性 發達 領域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國民學校 教育에 비해서는 文敎部나 教育當局의 統制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私教育의 形態를 갖추고 있다고 보겠다.

3. 學 校

現代社會에 들어 産業化가 進行됨에 따라 靑少年의 社會化과정에서 家族의 役割이 減少되는 反面에 學校, 職場, 大衆媒體等 다른 社會制度 및 集團의 役割이 增大되었다. 특히 學校는 오늘날의 靑少年 社會化 過程에서 家族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學校는 그 社會의 축적된 知識과 技術을 가르치며 社會의 존속과 維持에 불가결한 價値와 規範을 전수하는 役割을 擔當한다. 學校에서의 社會化는 公式的인 教科

課程 뿐만 아니라 教師 또는 동료와의 相互作用과 같은 ‘숨은 教育課程’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각종 規則과 예의범절을 지키는 行動을 통해 規則遵守, 權威에 대한 복종 등을 배우며 동료들과의 接觸을 통해 相互協力, 妥協 등 社會生活에 必要한 技術을 체득하기도 한다(양춘, 1984 : 양춘, 1989:183).

靑少年들의 正規學校 教育內容을 段階別로 소개하기 전에 각기 社會의 教育制度 및 이에 關聯된 原則을 다소 살펴볼 필요가 있다. 北韓에서는 社會主義 社會를 效果的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이른바, 온 人民의 ‘勞動階級化’, ‘革命化’ 및 ‘인텔리화’에의 시도) 社會 全體 成員이 一定水準 以上の 知識水準을 소지해야 한다는 전제아래에서 正規學校 教育에 대한 國家의 배려는 대단한 편이다. 이러한 共產主義的 人間型을 輩出하기 위해서는 全人民이 예외없이 教育을 받아야 한다는 社會主義 教育原理는 크게 두 가지 形態로 表출된다. 하나는 4年制 人民學校(南韓의 國民學校에 該當)와 그 以後의 6年制 「高等中學」(南韓의 中高等學校와 比較된다)까지 이어지는 教育 全課程에 무상의 義務教育制를 導入한다는 點이다. 특히 1975年 9月부터 11年制 義務教育(1年間の 就學前 幼稚園教育을 包含하여)이 制度化되어 共產主義的 人間型的 輩出을 위한 效率性的 極大化를 시도하였다. 이에는 대다수 靑少年을 學校라는 特定の 機關에 收容하면서 計劃된 集團的 指導와 統制를 效率

的으로 실천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反映되고 있다.

또 하나는, 全人民이 知識과 技術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텔리化’ 政策에 해당되는 側面으로서 北韓의 教育은 理論과 실천의 양면을 함께 強調하는 制度라는 點이다(김동규, 1989:21; 남인숙, 1990:187; 문용린, 1990:400; Lee, 1975:160). 學生들은 學科目 이수에 要求되는 論理的 構成 訓練은 물론, 일정시간 이상 勞動에 의한 生産活動에 直接 參與하여야 한다. 理論과 실천의 結合原理에 입각한 生産勞動制度는 人民學校課程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高等中學校 課程부터 適用된다. 1, 2, 3學年에는 30日을(2學期에 實施), 4, 5學年은 年 45日을, 6學年은 60日間 일해야 한다(문용린, 1990:403). 北韓은 한 때 高等中學校 在學中인 靑少年들이 2年以上의 現場 生産勞動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만 上級學校인 大學 進學 資格을 주었으나 1966年 부터는 이 制度를 다소 緩和하였다고 한다(김동규, 1989:21). 成功的인 社會主義 社會의 建設을 위해서, 이른바 ‘일하면서 배우는 教育體制’라는 教育原理의 導入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北韓의 靑少年들은 특히 高等中學校 課程以後 該當學校가 병설로 設置·運營하는 工場, 企業所, 農場 또는 漁場 등지에서 實習의 形態로 肉體勞動을 遂行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社會主義 教育의 基本原理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核心內容인 것이다.

한편,南韓에서의 基本學制는 政府樹立以後 國民學校 6年, 中學校 3年, 高等學校 3年, 大學校 4年の ‘6 - 3 - 3 - 4制’이다. 文敎部는 敎育政策 및 敎育課程의 樹立, 敎科書 等 敎材의 統制, 敎育財政管理, 敎師養成 및 充員制度管理, 學校設立 및 定員變更 認許可業務 等を 통하여 高等學校까지의 初·中等敎育을 直接 管掌하고 있다. 南韓의 敎育은 解放以後 量的으로 學校와 學生數에서 폭발적인 增加現象을 보이고 있다.

南韓에서의 義務敎育은 國民學校와 中學校 課程으로 되어 있으나 財源不足때문에 中學校의 경우에는 現在 農漁村地域에서부터 實施하는 過程중에 있다. 國民學校의 경우에도 都市의 경우에는 育成會費 等 個人이 부담하는 經費도 있다. 南韓에서도 特活時間과 實業時間 等を 利用한 1人1技 敎育을 實施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學業優先主義 風土 때문에 實際로는 잘 運營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987年 부터 實施되는 第5次 敎育課程의 推進方向은 ①國家觀을 公고히 하는 學校敎育의 지속적 追求, ②21世紀 知識情報社會를 선도할 創意的 두뇌양성, ③自由民主主義를 성숙시킬 自率的 管理能力 배양, ④敎科書 政策의 轉換과 敎育課程 運營의 정상화이다. 여기서도 南韓의 學校敎育은 學業爲主이며 實習 또는 生産活動參與에는 비중을 적게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初等教育

北韓의 兒童들은 滿 6 歲가 되면서 부터 그들의 後期兒童期(6 ~ 10 歲)를 人民學校 中心의 生活을 통해서 영위하게 된다. 그들의 重要生活 環境으로서 人民學校 生活은 社會主義 教育原理에 입각한 共產主義 人間으로 變身되기 위하여 여러 形態의 가르침을 받는 期間인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 시기에는 「少年團」이라는 社會團體에 加入, 少年團員으로서 組織生活에 參與하게 된다. 少年團員들은 社會主義的 集團論理를 具體化시키는 方案으로 여러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바, ‘배움의 천리길 行軍’, ‘光復의 천리길 行軍’, ‘김일성의 靑少年시절 따라 배우기 運動’, ‘숨은 영웅 모범 따라 배우기 運動’, ‘김일성少年 영예상’ 授與, 革命戰蹟地와 史蹟地 踏查 等に 參與한다. 그밖에 줄따콩 가꾸기, 油脂作物栽培 等 生産勞動運動과 키크기 運動, 과고철 蒐集 運動 等도 組織生活의 行動綱領 德目이 된다. [少年]團活動은 高等中學校 3 學年까지 持續된다(문용린, 1990:133).

4 年間の 教育課程인 人民學校에서 學生들은 모두 10 個 教科目에 걸쳐 學習을 傳受받는다. 人民學校의 教科內容에 나타난 몇 가지 特徵이 指摘될 수 있는바, 무엇보다 國語, 數學, 思想教育 - ‘敬愛하는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特講’, ‘共產主義道德’ - 이 全體 教育의 67.6 %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자연 혹은 科學分野를 소홀히 한다는 點이다. 人民學校

低學年(1, 2年) 동안 自然科目은 전무하며, 高學年(3, 4年)에 가서야 學習된다. 세제 教科構成이 學生들의 統合的 經驗을 위한 教科課程이라기 보다는 領域別 經驗을 의도하고 짜여져 있다. 入學때 부터인 1學年 課程에 8個 教科를 分離해서 배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教育課程은 道具教科(國語·數學)와 政治教育(김일성思想, 特講, 共產主義 道德)에 치중되었기에 전(全)人的 人格養成에 必須不加缺한 教科內容(體育, 音樂, 美術, 純粹道德)의 비중이 낮게 策定되어 있다(문용린, 1990:405).

共產主義 人間 形成에 本質的 資源이 될 수 있는 學習內容을 具體적으로 指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의 忠誠心 培養, 敵(美國놈)에 대한 敵愾心 鼓吹와 戰爭의 必要性 強調, 社會主義的 愛國心 注入’ 등을 中心한 內容이 그것이다. 또한 人民學校 在學生들이 加入하는 組織體인 「少年團」의 具體的 活動 內容도 政治的 색채가 強하게 反映된다. 黨과 김일성을 위한 無條件的 忠誠과, 現實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내어 ‘北韓的 人間’으로서 언제라도 共產主義 社會의 후비대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準備 態勢가 완수된 生活態度가 이루어지도록 注力한다. 이러한 10代 前後의 靑少年을 目標로 하는 主體思想 教養事業은 最近 1980年 以後 더욱 強化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문용린, 1988:134).

南韓의 國民學校 教育은 義務教育으로 되어있다. 1945년에

2,087 校에 學生數는 157 萬名 이었으나 1987 年 現在 6,531 個校 (1,120 分校가 이들에 併設되어 있음) 477 萬의 學生이 在學中이다. 對象年齡 兒童중 就學率도 64 %에서 98.6 %로 增加하여 完全就學狀態라고 볼 수 있다. 學級編成은 50 名 基準이나 施設不足 等으로 50 名 以上인 學級도 많고 都市地域에서는 2 部制 수업을 實施하는 곳도 있다 (靑少年育成委員會, 1989 :76).

教科科目은 道德, 國語, 社會, 산수, 自然, 體育, 音樂, 美術, 實科이며 이 중 國語와 산수의 비중이 크고 道德, 音樂, 美術, 實科의 비중이 작다. 3 學年부터는 週 1 時間 程度의 特別活動 時間이 있으나 施設不足, 指導者不足 等으로 有名無實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수업 以外에 義務的으로 해야하는 學校外 수업이나 團體 活動은 없으나 少數의 學生들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等 靑少年 團體 活動에 參與하고 있다. 國民學生 및 幼稚園生의 경우 特記할 것은 학교수업이외에 英語等の 科目에 대한 個人課外 및 學院受講, 피아노, 美術, 속셈, 웅변, 태권도等 藝能 및 特技學院 受講에 이상과열 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幼稚園때 부터 幼稚園外에 課外나 學院受講을 하고 있어 (심한 경우 4 ~ 5 가지 學院 受講) 자유롭게 놀수있는 時間이 不足한 편이다. 또한 공부에 대한 壓力이 과중하여 자유로운 成長에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이는 부모들의 過慾, 無分別한 競爭心等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2) 中等教育

北韓에서는 앞에서指摘된 바 대로, 高等中學校 역시 義務教育 期間에 속하기 때문에 滿 11세부터 16세에 이르는 北韓 靑少年들은 예외없이 被教育者로서 國家가 베푸는 配慮의 對象이 된다. 被教育者로서 學生들에 대한 學習方法은 討論과 論爭, 問答方式, 直觀教育, 實物教育等을 重視하되 思想教育은 解說과 실복의 方法을 導入하였다. 한편, 獎勵되고 있는 教授法으로는 ‘깨우쳐 주는 方法’이 採擇되고 있다(남인숙, 1990:200).

學生들은 高等中學校 6年間の 在學期間 동안 總 24個 學科目을 배우게 된다. 이 期間 教育課程의 主眼點은 數學과 科學科目에 주어지는 바, 南韓 中學校의 數學·科學의 比重(22.8%)보다는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높은 편이다. 政治思想 教育도 南韓의 그것보다 約 2倍 程度로 높다 (문용린, 1990:405).

同時에 高等中學校 4年 — 혹은 ‘高等班’ — 부터는 새로운 社會團體인 「社勞靑」 團員이 되어 — 高等中學校 ‘初等班’ 은 「少年團」 원이다 — 社會主義 社會가 重視하는 政治理念活動을 活潑하게 시도하는 時期이기도 하다. 組織生活에 대한 比重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共產主義的·革命家的 人才는

오직 革命的 組織生活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前提하기 때문에 바로 思想鍛鍊의 용광로 役割을 擔當한다 (남인숙, 1990).

따라서 이 時期가 한 個人의 입장에서 볼 때에 未來 社會 成員으로 必要한 社會進路나 位置를 決定하게 되는 ‘意味심장한’ 생애주기로 解釋될 수 있다.

黨의 直接的인 影響圈 아래에 있는 組織體 「社勞靑」 會員인 高等中學校 上級生들은 黨과 社會主義 革命에 必要한 共產主義的 人間의 後繼者로서 必要한 訓練을 本格的으로 받게 된다.

이를테면, 各種會議, 社會奉仕, 기술연마, 體育活動 等 다양한 프로그램에 參與하여 經濟建設의 先鋒대로서 必要한 勞力動員은 물론이고 集團技術을 習得한다. 그밖에 돌격대 活動, 目標量의 督勵, 자연개조를 통한 農村支援을 담당하기도 한다. 必要할 때에는 토끼등 家畜管理 - 病 豫防과 治療 · 먹이강습등 - 에도 參與한다.

이렇듯 多樣하게 펼쳐지는 組織生活 가운데 사춘기의 靑少年들은 金日成에 대한 忠誠心을 고취하는 訓練을 받는다. 同時에, 敵에 대한 敵愾心을 배양하여, 이른바, ‘體制指向的인 新世代’가 배출되는 것이다 (문용린, 1990:134).

南韓의 中學校 입학은 1969年 이전에는 入學試驗 合格者에 한해서 許容되었다. 1969年 以後, 中學校 入試가 廢止되어 希望者 全員이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配定된 居住地 學群內에 所在

하는 學校에 入學하게 된다. 1988年 現在, 國民學校 卒業生의 98.7%가 中學校에 進學하고 있다. 1985年 以後 無償義務教育制가 導入되었으나 財源不足으로 農·漁村 地域에만 部分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實情이다 (青少年育成委員會, 1989:76).

中學校의 教科目은 道德, 國語, 國史, 社會, 數學, 科學, 音樂, 美術, 漢文, 英語, 生活技術(男) 그리고 家庭(女) 등이 必須科目으로 選定되어 있다. 選擇科目은 家事, 農業, 工業, 商業, 水産業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國語, 英語, 數學, 科學, 教育, 社會의 順序로 比重이 크며, 生活技術과 家庭도 比重이 큰 科目들이다. 中學校 全 教科課程의 15%以上을 實業科目에 割當하여 學生 各自로 하여금 1人1技를 습득하도록 配慮하고 있으나 入試爲主의 풍토로 有名無實한 實情이다.

教材로는 體育, 音樂, 美術, 漢文 등의 教科目은 文敎部 檢定教科書를 採擇하지만 그밖의 다른 教科目은 國政教科書를 使用하도록 하고 있어 政府의 社會化 政策이 直接 反映되는 셈이다. 이외에 特別活動이 週 한시간 實施되도록 規程하고 있으나 形式에 그치는 傾向이 있다. 學校生活以外에 義務적으로 加入해야 하는 團體는 없으며, 少數의 學生들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青少年 적십자」, 「青少年聯盟」등 青少年 團體組織에 任意로 加入하여 活動한다.

南韓에서의 中等教育은 北韓과는 달리 生産活動에 直接 參與

하도록 하거나 組織活動을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人文系 高等學校의 경우는 大學進學을 위한 配慮를, 實業系는 취업을 우선시 한다. 이밖에 특수고등학교 - 藝術高等學校, 體育高等學校, 科學高等學校 - 가 設立되어 각기 주어진 特殊教育을 擔當한다.

學費負擔은 受益者 負擔의 原則에 의거, 自費負擔이 一般的 慣行이다. 高等學校 入學은 1972年까지는 學校別로 實施하는 入學試驗에 合格된 者에 한하여 許容되었다. 그러나 1973年 이후 高等學校 平準化 施策에 따라 系列別로 다소의 差異는 있지만, 入學을 위해 全國적으로 實施되는 聯合考查 成績에 따라 決定된다. 먼저 入學 對象者는 人文系와 實業系 高等學校 가운데 하나를 選擇한다. 實業系 高等學校에서는 成績順에 따라 應試者를 選拔한다. 實業系 高等學校支援 脫落者는 第2志望으로 人文系 高等學校를 志望할 수 있다. 따라서, 第2志望으로 人文系 高等學校에 進學하기를 원하는 學生인 경우, 다시 人文系 高等學校 選拔對象에 包含되게 된다. 中學校 卒業生 가운데 高等學校로 進學한 比率은, 1988年 現在 94%로 나타났다.

人文系 高等學校의 學生數는 꾸준히 增加하여 1988年 現在 全體 高等學生의 63.4%가 人文系 學校에 在學中이다. 人文系 學生數가 增加하는 理由는 '학력 지상주의' 風土에 따라 大學 進學 希望者가 增加하기 때문이다. 人文系 高校에서는 2學年初에 本人의 취향에 따라 人文系, 自然系, 就業班 중 擇一

하여 關聯科目을 공부하게 되나 大學 入試 準備에 치중하고 있다. 치열한 大學入試 競爭은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다.

人文系 高等學校의 教科目은 國民倫理, 國語, 社會(國史, 地理, 世界史), 數學, 科學(生物, 地球科學, 化學, 物理學), 體育, 教鍊, 音樂, 美術, 漢字, 英語, 外國語, 實業(男), 家庭(女), 農業, 商業, 工業, 水產業等이다. 이들중 國語, 英語, 數學의 比重이 매우 높다. 基本教材로는 다음과 같은 교과목들 즉, 數學, 物理, 化學, 生物, 體育, 地球科學, 音樂, 美術, 漢文, 英語, 獨語, 佛語, 日語, 家庭, 地理, 世界史 等 科目은 文教部 檢定 教科書를 使用한다. 國民倫理, 國語, 國史, 社會等 國民意識 또는 國民의 經濟生活와 關聯있는 教科目은 國政教科書를 使用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볼때에 教科課程 및 教科書 政策이 政治的 要求를 反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中學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特別活動이 週 1時間 정도 배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入試準備로 有名無實하다. 教科目的 10% 이상을 實業科目으로 하여 1人1技教育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시 形式에 그치는 경우가 大部分이다. 특히 大學進學을 원하는 學生이 大部分인 人文系 高等學校의 授業은 入試爲主로 運營되고 있다.

實業系 高校는 農業, 工業, 商業, 水產業等 產業系 취업을 위한 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政府는 產業化의 進行, 技能人力の 不足等에 對處하기 위하여 實業系 進學을 장려하고 있으나 學

歷爲主 社會 風土에 따라 人文系 集中 現象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988년 현재 實業系 高校의 在學生은 全體 高校生の 36.6%를 차지하고 있다.

各種 靑少年 團體들은 靑少年의 教育研修 및 訓練, 研究活動, 地域社會 開發 및 奉仕活動, 社會教育 및 體育活動, 國際交流活動, 弘報 및 出版活動, 文藝, 趣味 等 餘暇活動을 통해서 靑少年의 社會化에 큰 役割을 擔當할 수 있다. 北韓의 初·中等 教育課程 靑少年들은 「少年團」, 「社勞靑」등 團體에 強制 加入하여 組織活動과 勤勞奉仕를 해야 하기때문에 組織生活은 이들 生活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南韓에서는 강제성을 지닌 團體加入이나 組織活動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加入·活動하는 多樣한 團體가 있다. 南韓의 靑少年 團體는 中央協議機構인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 傘下에 30個 團體가 所屬되어 있다. (加入하지 않은 小規模 團體도 많이 있으며 會員數 總 437萬名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勢力誇示를 위하여 과장보고되는 傾向과 非活動 人口가 많은 點을 考慮할때 實際活動 會員數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推定된다) (靑少年育成委員會, 1989:198). 이들 團體中 會員數와 活動實績으로 볼때 가장 活動的인 團體들은 「靑少年赤十字」, 「韓國 걸스카우트 聯盟」, 「韓國 보이스카우트 聯盟」, 「韓國 靑少年聯盟」이다. 이들 團體가 活動的인 理由는 이들

團體의 學校內 活動이 許容되고 있으며 (다른 團體들은 學校內 活動이 거의 許容되지 않고 있음) 政府의 財政 및 行政支援을 相對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들 4個 團體의 設立 目的을 보면 他人의 福祉와 地域社會 開發에 寄與 (「靑少年 赤十字」) 國家觀 定立과 公민자질 向上의 圖謀 (「韓國 걸스 카우트 聯盟」) 民主 市民으로서의 資質向上 圖謀 (「韓國 보이스카우트 聯盟」), 民族國家의 역군 養成 (「韓國 靑少年聯盟」) 으로서 自由民主主義 및 國家意識 確立에 寄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韓國 靑少年 聯盟은 第5共和國 出帆 直後 設立되어 政府의 集中的인 支援을 받다가 第6共和國에 들어서면서 政府支援도 줄고 活動도 쇠퇴하는등 特定 政權과 密着되 었던 事例가 되고있다.

大部分의 靑少年團體는 人力 및 施設이 未洽하여 프로그램의 답습 및 不足, 靑少年 指導者의 量的·質的인 專門性 缺如등의 問題點 때문에 活動에 制限을 받고 있다 (靑少年 育成委員會, 1989:201). 會員 募集 및 活動의 面에서도 靑少年 團體에 대한 社會의 認識不足과 過熱 入試競爭으로 인해 活動人口를 擴散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活動上의 制限과 會員加入의 任意性은 南韓 靑少年團體의 社會化 機能이 北韓의 組織活動과는 比較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水準에 머물도록 하는 要因이 되고있다.

3) 中等教育 이후의 進路

北韓社會의 靑少年들은 만 16세가 되면 社會人으로 必要的 準備를 위한 구체적 決定을 해야하는 時期에 접어들게 된다.

11年制 義務教育이 마감되는 時期이기 때문에 國家와 社會를 위한 奉仕와 貢獻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北韓 靑少年들의 장래 進路問題에 대한 決定은 大略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義務教育制度의 最後段階인 高等中學校 卒業班 學生들은 담임선생님이 配布해 주는 장래 計劃에 관한 設問紙에 자신의 구체적인 進路抱負를 밝히게 된다. 담임선생은 1차로 學生들의 장래 計劃書를 檢討・分類하며, 이는 다시 敎務課에서 수합・總分類된다. 한편, 中央黨에서는 일선 教育行政機關實務者 앞으로 大學, 군대 등에 보낼 人力의 比率를 밝힌 ‘人力充員 計劃書’라는 公文을 매년 보내게 된다. 各 學校의 政治部校長은 이에 의거 學生들의 進路를 責任지고 決定하게 된다(서동익, 1989:114).

다행히 靑少年 本人의 적성이나 計劃과 一致되는 方向으로 進路가 決定되면 問題가 提起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分野로 장래가 정해지면, 黨의 命令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强制性’이 상존하게 된다. 靑少年들의 多樣한 欲求를 既成 世代(담임선생, 政治部校長, 黨機關 그리고 教育行政機關의 實

務者 등)가 충분히 配慮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南韓社會에서의 再修生の 量産과 같은 人的資源 浪費問題는 社會的 次元에서 배제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北韓의 高等中學校 卒業生들이 選擇할 수 있는 進路에 關한 現實的 代案은 크게 네 가지로 區分할 수 있다. : ① 大學進學, ② 特殊教育機關 入學, ③ 軍入隊, ④ 職場生活로의 進出이다.

南韓에서의 進學 또는 就業은 本人의 能力과 意思가 가장 重要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南韓에서도 就業過程에 학연, 지연, 血緣緣故가 등의 작용하고 있음은 事實이나, 黨 또는 學校當局 같은 機關의 決定에 強制的으로 복종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選拔基準에서 가장 重視하고 있는 것이 能力이라고 할 수 있다.

就業希望者의 경우, 高等學校 進學時 實業系를 選擇하거나 人文系 高等學校에서 就業班을 選擇할 수 있다. 就業希望者는 本人이 원하는 職場의 選拔制度에 따라 各種 資格試驗을 통해 서나 公開的으로 所要人員을 選拔·採用하는 방식에 의해 採用되어 就業하게 된다. 高等學校 卒業後 大學進學을 원하는 경우에는 大學定員이 한정되어 本人의 希望과는 달리 進學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南韓에서 國民學校 卒業生の 中學校 進學率은 98.7%에 이르고 있으며, 中學校 卒業生の 高等學校 進學率은 94%에 달

해 이 段階까지의 未進學者 問題는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高校 卒業生의 35% 만이 大學 進學을 하고 있어 未進學者들의 進路問題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먼저 人文系 高等學校의 경우 1988년 現在, 卒業生의 50% 정도가 大學 進學을 하고 있으며 就業率은 9.6%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40% 정도는 다음해 大學 進學을 위하여 再修를 하거나 失業 狀態에 있게 된다. 이들은 高校 在學中 職業教育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就業能力이 별로 없는 狀態에서 취업전선에 臨하게 되어 就業에 隘路가 많고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 社會不安의 한 要因이 되고 있다.

實業系 高等學校의 경우에는 1988년도 卒業生의 87.8%가 就業을 希望하고 있다. 그중 92.7%가 就業하여 卒業生의 81.4%가 就業하고 10%가 大學에 進學하므로 9% 정도가 失業 狀態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失業 狀態의 無職·未進學 靑少年은 9~24세 人口의 4% 정도인 58만명에 이르며, 이밖에도 大學 進學을 원하는 再修生은 매년 30만명 정도씩 이 생기는 것으로 推定된다 (體育部, 1990; 靑少年 育成委員會, 1989). 장래가 未決定된 이들의 現實은 정서적으로 不安하고 不滿이 많은 集團을 形成하여 最近 急增하는 靑少年 犯罪와 連繫되는 등 社會問題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政府에서는 이들을 對象으로 職業訓練, 就業 및 就學 斡旋,

相談 등을 實施하고 있다. 이 部門 事業은 勞動部, 文敎部, 兵務廳 등 關聯 部處에서 擔當하고 있다.

4) 高等教育

北韓의 高等教育

① 大學

北韓 靑少年들의 大學進學 過程은 南韓社會의 靑少年과는 다소 異質的인 經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987年 現在, 北韓 全地域에 散在해 있는 大學(校)의 數字는 總 235個校로 알려져 있다(김동규, 1989:11). 一般 大學에의 入學資格은 筆記試驗에 의한 學歷이 合格基準의 1/3을 차지하고, 家族 또는 친척에 의해 決定되는 出身性分⁴⁾과 本人의 당성이 각각 1/3의 比重을 차지한다.

入學願書 제출은 個別的으로 支援大學에 直接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高等中等校長과 「사로청」 責任者의 共同推薦書와 더불어 學校 當局에 제출한다. 支援할 수 있는 大學은 應試者 本

註 4) 北韓의 現行 階級制度는 全人民에 대한 成分調査事業의 結果 크게 3대 계급 - 「核心階級」, 「一般階級」 및 「複雜階級」 - 으로 分類하며, 이는 다시 51個의 小分類體系로 層化되어 있다. 이중, 과거 봉건사회的 地主·商人·宗教人·6.25 당시 國軍동조자 등이 包含되는 「複雜階級」(또는 「애매계급」)의 경우, 大學進學 可能性은 배제된다(남인숙, 1990: 도흥렬, 1990: 이온죽, 1990).

人의 意思에 따라 최고 5個校까지 支援할 수 있다 (김동규, 1989 : 81). 大學 支援者들은 이른바 名門으로 꼽히는 ‘김일성 綜合大學校’, ‘만경대 革命學院’, ‘김책 空軍大學’, ‘敎員 大學’ 등에 우선 進學하기를 希望한다. 그러나 學校 政治部 校長에 의해 일단 自身의 學校가 決定되면, 現實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社會一般的 通念으로 볼 때에 어느 大學 出身이나 보다는, 어떠한 大學生活을 보냈느냐를 더 重要視 한다고 한다 (서동익, 1989 : 119).

結果적으로, 11년간의 義務教育課程을 履修한 北韓 靑少年의 極少數 (5 ~ 10%)만이 大學에 進學하게 된다 (김병린, 1986 : 7; 서동익, 1989 : 114). 北韓社會에서 高等教育機關은 綜合大學校, 大學, 專門大學 등으로 區分되며, 綜合大學은 唯一하게 ‘金日成 綜合大學校’를 꼽을 수 있다. 大學으로서는 ‘工業大學’, ‘工場大學’, ‘醫學大學’, ‘農水產大學’, ‘特殊大學’ 등의 專攻別 專門教育을 擔當하는 教育機關이 있다. 이밖에 高等教育機關 水準의 ‘政治幹部教育機關’ (黨政 幹部들에게 唯一思想을 전수하고 一般知識水準을 向上시킬 것을 目標로 하는 學校)과 3年制 ‘高等專門學校’ (南韓의 專門大學에 該當)가 各 郡 單位로 設置되어 있다 (문용린, 1990 : 398).

北韓의 高等教育制에서 빼놓을 수 없는 特徵 가운데 하나가 ‘일하면서 배우는 高等教育體制’임은 앞서 指摘된 바이다.

그런 면에서 大學教育은 人民의 生産活動과 直接 連結되고 있다는 點에서 嚴密하게 말하여, 大學이기 보다는 現職 從事者를 위한 教育機關이거나 特殊 形態의 大學制度라고 評價하는 것이 더 妥當할 수 있을 것이다 (문용린, 1990:401).

혹자는 各級 大學에서 實施되는 實習과 現場勞動時間의 過多한 配定은 學生들의 基礎學力低下를 가져오는 主要 原因이 되고 있다고 하여 北韓 大學教育의 한 問題點을 指摘하고 있다(김동규, 1989:21). 義務勞動期間은 大學生은 年間 12週를, 高等專門學校 在學生은 年間 10週를 하도록 制度化되어 있다.

北韓教育의 또하나의 特徵인 集團教育은 大學生活의 여러 側面에서 表出되고 있다. 우선 大學生의 大多數(90%)가 寄宿 舍 生活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사일정은 學點制가 아니고 學級制이다. 「사로청」과 軍事組織인 「교도대」에 義務的으로 加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北韓 大學生은 卒業前까지 校內 訓練 960時間, 入營訓練 1,780時間 등 總 2,740時間에 이르는 軍事訓練을 받는다. 특히 40餘日間の 入營訓練에서 豫備軍 소위의 資格을 獲得해야 卒業할 수 있게 되어있다(김병린, 1986:11).

② 特殊教育機關

北韓의 特殊教育制는 크게 두 가지로 區分되는바, 하나는 藝術·體育·外國語 등 特殊分野를 集中的으로 支援하기 위한 機

關을 꼽을 수 있다. 1982년을 基準했을 때, 音樂學校, 무용학교, 造形藝術學校(各 11年制), 外國語學校(7年制), 體育學校(4年制)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特殊階層의 子女들(과거에는 일제때 共產主義 運動家나 6.25 戰功勳者의 子女를 指稱했으나, 現在에는 對南工作中, 軍服務中, 外國 勤務中 또는 그밖의 政權機關에서 勤務中 死亡한 者의 유자녀를 指稱함)을 對象으로 하는 特殊學校가 運營되고 있다. 1982년 現在, 平壤의 ‘만경대 革命 유자녀 學園’(學校施設과 教員의 質이 一般學校보다 훨씬 뛰어나며, 學級編成은 15名 内外로 構成되는 등, 量質의 教育이 보장됨), ‘강반석 革命 유자녀 學園’, ‘해주 革命 유자녀 學園’, ‘平壤 外國語 革命學園’ 등이 有名하다(「北韓總覽」, 1983:1321, 문용린, 1990:402).

대개의 경우, 特殊職種 내지 豫備軍事幹部와 黨·政權機關 幹部 養成을 目的으로 하기 때문에 入學資格이나 入學 과정이 制限的이거나 嚴格한 편이다. 出身性分이 좋은 「核心階層」의 子女들만이 嚴密한 身元調査 이후에 入學이 許容되기 때문에 이들은 高等中學校에 入學하기 前인 10~16세 期間에 特別히 選拔 과정을 따로 밟게 된다. 이른바 民族幹部로서 必要的 豫備過程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關係로 基本學制 과정을 밟는 餘他의 一般學生들과는 橫的移動이 事實上 不可能하다(문용린, 1990: 398).

이들의 學校生活은 寄宿舍와 같은 集團生活을 軸으로 하면서 軍隊式 規律이 適用된다. 이와 함께, 軍服이나 견장을 着用 또는 佩용할 것이 期待된다. 全體 教育時間의 30%를 차지하는 政治學習은 김일성 저작선집, 金日成 革命史, 勞動黨史, 黨 方針 및 政策의 學習에 할애된다. 나머지 70%는 軍事 및 自然科學과 關聯된 科目들 - 병기학, 보병전술, 野營訓練 그리고 數學, 理學, 化學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北韓 總覽」, 1983:1321). 그밖에 射擊, 戰術, 車輛, 戰車, 飛行機, 함정 등 現代화된 施設이 갖 추어져 있고, 10餘個의 專門講義室과 實驗室도 具備되어 있다. 卒業者는 全員 特殊職에 進出하여 北韓社會가 必要로 하는 支配層을 構成한다(「北韓總覽」, 1983).

南韓의 高等教育

南韓의 高等教育機關은 크게 보아 4年制 大學校, 教育大學 및 師範大學, 專門大學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文敎部는 高等教育機關을 監督 및 調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大學 및 學科의 設立要件, 定員 配定, 教授 任命, 教科課程, 學點 授與와 卒業 등에 관하여 法令 및 施行令으로 規制하고 있다. 또한 大學校의 수업일수는 1學年에 32週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밖의 事項은 大學自律에 맡겨지고 있다. 總·學長의 任命은 해당 學校 理事會의 推薦을 받아 文敎部 長官의 承認

을 얻은 후 理事會長(國立의 경우에는 大統領)이 任命하도록 되어 있다.

南韓에서는 高等教育 역시 量的으로 급격한 膨脹을 하고 있다. 1988년 現在, 4年制 大學 및 大學院에 108萬名이, 教育大學 및 專門大學에 28萬餘名이 재학하고 있다. 高校 卒業生中 大學 進學率은 4年制 大學이 35%, 專門大學을 包含할 경우 50%를 上廻하고 있어 北韓(5~10%)과는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大學 入學試驗制度는 頻繁히 變更되어 教育政策의 一관성 結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68년까지는 學校別로 獨自的인 入學試驗을 實施하였으나, 수차례의 改正을 거쳐 現在에는 全國적으로 일제히 實施되는 大入學力考查의 成績과 高等學校에서의 內申成績(成績, 出席現況 등에 根據함), 체력장 및 實技試驗成績(藝術·體能系の 경우)에 의해 選拔하고 있다. 이중 學力考查가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한다.

① 4年制 大學

大學의 教育 目的은 國家와 民族의 發展에 必要한 指導者 育成을 위해 多樣한 分野의 理論과 그 理論의 現實 適用을 研究하고 가르치는데에 있다. 大學校의 수업년한은 4年(各種 醫科大學은 6年)으로 되어 있으며 140學點을 履修해야 學士 學位를 取得하도록 되어 있다. 大學의 教科目은 教養科目과 專攻科目으로 나뉘며 각기 必須科目과 選擇科目이 있다. 教養科目

의 경우 國語, 英語, 國史 등이 必須로 되어 있다. 大學校의 教材는 高等學校 以下の 경우와는 달리 國定教科書, 文敎部 檢認定 教科書 등이 없고 擔當敎授가 教材 選擇을 自律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②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

敎育大學은 國民學校 敎師를 養成하며, 師範大學은 中·高等學校 敎師를 養成한다. 敎育大學은 모두 公立이며 師範大學은 公立과 私立이 있다. 敎育大學의 敎科課程은 敎養科目과 함께 敎育理論, 國民學校 敎科目에 대한 研究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師範大學의 敎科課程 역시 敎養科目과 敎育一般 및 專攻科目으로 構成되어 있다.

敎育大學生들은 在學中 4週 이상의 敎生實習을 國民學校에서 해야 하며, 師範大學生은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에서 해야 한다. 敎生實習의 내용은 수업참관 및 實習, 一線敎師業務의 遂行 등으로 되어 있다. 1985년에는 初·中高校 敎師의 養成 또는 研修와 敎科科目 및 現場敎育과 關聯된 敎育問題에 關한 研究를 擔當하는 機關으로 國立敎員大學이 設立되었다.

③ 專門大學

1979년 産業 分野의 人力需要 充足을 위해 初級大學과 專門學校를 專門大學으로 改編하였다. 專門大學의 敎育目標은 각종

社會活動에 관한 知識과 理論을 研究·教育하여 國家와 社會發展에 必要한 中堅 技術人力을 養成하는데 있다. 따라서 專門大學의 教育方針은 科學 및 技術의 급격한 變化에 適應하도록 教育하며, 산학협동에 따른 教育을 強化하는데 두고 있다. 專門大學은 工業, 農業, 水產, 海洋業, 看護學, 經營學 등 多樣하게 細分되어 該當 分野의 人力을 供給하고 있다.

專門大學의 教育期間은 2年(看護와 일부 水產系의 경우에는 3年)이다. 教科目은 產業과 大學 間의 連繫 및 協調關係를 增進시키는데 必要한 實質的인 科目으로 되어 있다. 또한 產業體에서 一定한 現場教育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또한 健全한 勤勞 倫理를 形成시키기 위한 努力도 깊이있게 試圖되고 있다. 卒業하기 위해서는 2년간 80學點을 取得(3年制는 120學點)해야 한다. 專門大學 卒業生의 就業은 產業社會의 人力構造 및 그에 따른 高學력 人力 需要 增加에 따라 잘 되고 있어 1988년에는 卒業生의 76.3%가 就業하였다. 專門大學은 1次的으로 產業體에 中堅 技術人力을 輩出하는데 目標을 두고 있으나, 大學教育을 계속 받기를 希望하는 學生에게는 4年制 大學 등 他 大學에 編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軍 隊

大學進學者와 特殊教育機關 入學者를 제외한 北韓의 高等中學

校 卒業班 學生들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進路選擇 代案 가운데 軍入隊와 社會進出에의 可能性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된다. 이들 중 大部分은 軍에 징집 - 北韓에서는 '招募' 라고 한다. - 되기를 選好하는 바 (서동익, 1989:117), 이는 北韓社會의 特異性에서 說明될수 있을 것이다. 北韓에서는 一種의 權利와 義務로서 軍隊生活에의 機會를 해당 北韓住民 전부에게 賦與하지 않는데, 특히 1972년부터 勞動黨이 選拔하는자 - 「核心階級」과 「一般(基本)階級」의 자녀들 - 만이 人民軍에 服務하도록 制度化하였다. (「北韓總覽」, 1983:1505). 結果적으로 高等中學校 卒業生の 約 70%가 軍隊에 入隊 (김병린, 1986:7) 하게 되는 셈이다. 대신 「複雜(적대)階級」의 子女는 '勞動적위대' 라는 地域防衛義務만 부과하고 있다 (서동익, 1989:117). 다시말하면, 黨이 個人的 出身性分과 당성을 信賴하여 人民軍隊에의 生活을 許容할 만큼 社會的인 認定을 얻었다는 政治的 意味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最近에는 軍入隊에 대한 競爭이 치열하여 軍入隊 對象者 가운데 일단은 職場生活을 하다가 軍에 '招募' 되는 경우도 增加하고 있다고 한다 (서동익, 1989:117).

징집 (혹은 '招募') 對象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세 部類로 區分된다. 身體不合格者 - 身長 150 cm 이하의 者, 體重

43 kg 이하인 者, 혹은 여러가지 疾病患者⁵⁾ - 이거나 性分不良者 - 越南 및 반동가족, 越北者와 北送僑胞, 外國으로부터 歸還者 - 刑服務者, 혹은 政策上的 受患者 - 社會 重要職 勤務者⁶⁾, 産業必須要員⁷⁾, 社會安全部員, 大學生이나 大學進學이 認定된 高校生, 軍事學試驗에 合格된 大學生, 그리고 獨子로서 부친 60세, 母親 55세 이상의 高齡者等 - 가 이에 該當된다(「北韓 總覽」, 1983:1506). 軍服務 年限은 地上군의 경우 27才 (男子) 혹은 25세 (女子)까지 이어진다. 즉, 年齡 區分 없이 27세 이상으로서 軍服務를 마친 사람을 순차적으로 제대시키며 제대이후에는 45세까지 豫備役으로 義務服務에 臨하게 된다.

軍에 入隊하기까지는 여러 過程을 밟게 된다. 北韓의 各地域에 散在해 있는 社會安全部 分所에서는 區域 內에 居住하는 14세 이상 靑少年들의 身元을 把握하여 郡(혹은 市)

註 5) ‘여러가지 疾病患者’란 간·결핵에 問題가 있거나 늑막염·색맹·精神疾患·性病등의 疾患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6) ‘社會主要職 勤務者’는 教育者·黨職者·重要行政要員을 包含한다.

7) ‘産業必須要員’은 기관사와 運輸要員이 該當된다.

軍事動員부에 報告한다. 報告받은 軍事動員부는 軍事動員카드⁸⁾를 作成한다. 만 15세에 男女 共히 豫備身體檢査를 받는다. 合格될 경우 16세에 郡 또는 市 人民病院에서 2次 身體檢査에 應한다. 이에 郡 또는 市 軍事動員부는 身體檢査 結果를 最終合格者 名單의 形態로 道 또는 直轄市 軍事動員부에 報告한다.

道軍事動員부는 이 資料를 人民武力部 軍事動員局에 提出한다. 人民武力部 軍事動員局은 이 人員을 해당 年度 招募 可用人員으로 간주하고 綜合名單을 작성하여 人民武力部 대열보충국에 통보한다. 대열보충국은 이 資料에 의거하여 해당년도 제대계획을 樹立한다. 그리고 各 部隊의 人員要請을 綜合 審查하여 軍種 兵科 部隊 시기별 兵力補充計劃을 樹立한다. 연후에, 이를 軍事動員局과 各 部隊에 통보한다.

軍事動員局에서는 대열보충국에서 넘어온 兵力補充計劃과 道別 可用兵力 人員을 參考하여 招募計劃을 樹立하고, 이 計劃書를 郡 (또는 市) 軍事 動員부에 보낸다. 軍事動員부는 이 資料를 根據로 招募狀 (징집영장)을 作成하여 招募對象者의 職場 또는

註 8) 軍事動員 카드는 16절지 크기의, 樣式을 갖춘 油印物인데 家族事項 (親家は 6寸, 외가는 4寸까지 記錄한다), 身體條件 (身長, 흉터, 體重, 視力, 血壓等), 生活環境, 그리고 其他 특이 사항등을 記錄하며, 이를 該當者는 自筆로 作成하도록 되어 있다 (서동익, 1989:117).

學校에 통보한다. 日常적으로 통보 결과는 招募豫定 時期보다 3 ~ 6個月 전에 完結되어 전달되지만 該當機關에서는 入隊 5~15日 전에야 個人에게 通報한다. 轉換期間에 나타나는 공백기간의 解弛함을 極小化하려는 ‘配慮’가 關連화 된것이다 (「北韓 總覽」, 1983:1505, 서동익, 1989:118).

한편, 南韓의 兵役制度는 國民개병주의에 立脚한 義務兵制度이다. 구체적으로는 支援制를 併行한 徵兵制로 兵役義務者들은 一定期間 現役に 服務한 다음 豫備軍에 編入된다. 男子는 19세가 되면 徵兵檢査를 받는 것으로 부터 兵役義務가 시작된다. 學業을 繼續하기 위하여 延期申請을 할 수 있으나 각종 延期事由가 끝나면 늦어도 30세 이전에 徵兵檢査를 받아야 한다.

徵兵檢査에는 身體等位 학력 및 資質에 따라 判定을 받게된다. 中學校 卒業 未滿의 학력소지자는 現役兵 對象者에서 除外되며 補充役으로 編入된다. 이밖에 國防上 脆弱地域이거나 農漁村에 居住하는者, 父親喪을 당한자, 90세 이상의 父母를 둔者, 2代 이상의 獨子, 家事를 돌볼 家族이 없는者, 戰死 혹은 순직자, 2級 이상 戰傷·공상·불구자의 子제 중에서 1名, 기타 現役兵 服務에 不適合한 者등은 補充役에 編入된다.

現役服務期間은 徵集에 의해 陸軍이나 海兵 上陸兵科에 配定될 경우 2년 6개월이다. 海軍이나 空軍으로 支援한 경우에는 2년 11개월을, 職業下士官은 短期 4년에서 長期 7년을 服

務한다. 現役服務를 代替하는 방위병 服務는 入營한 날로 부터 1年 2個月間 持續된다. 獨子등 家事擔當者는 6개월간만 服務한다. 服務形態는 自家에서 宿食을 하고 軍部隊 또는 鄉土 防衛 分野에서 出·退勤하면서 警戒나 行政補助 등의 임무를 遂行한다.

現役服務를 마친 사람들은 居住地域 또는 職場單位로 鄉土豫備軍에 편입된다. 이와같이 南韓에서는 特別한 事由가 있는 極히 一部를 제외하고는 軍服務를 마쳐야 한다. 사병의 경우, 軍服務 自體가 선망의 對象은 아니다. 그러나 軍服務를 마쳤다면 ‘신체 건강하고 어려운 訓練過程을 經驗하면서 고생을 했을 터이니 어려운 狀況에의 適應能力을 갖춘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김학준 외, 1986:92).

5. 職 場

職場은 勤勞靑少年들의 主된 生活空間이며 이들의 社會化에 重要한 역할을 擔當한다. 勤勞靑少年들은 情緒的·身體的으로 成長過程에 있는 젊은이들인 同時에 經濟活動에 直接 參與하는 勤勞者라는 양면적 性格을 갖는다(김영모 외, 1985:175).

北韓의 靑少年으로서 社會로 進出해야 하는 경우, 本人의 意思나 직성도 考慮되지만 國家나 社會에 의한 外的 影響이 더욱 支配를 하는 편이다. 北韓靑少年層 가운데 義務教育 과정인

高等中學校를 卒業하고 職場으로 配置되는 比率은 約 20% 前後를 占有한다. 즉, 5~10%가 大學이나 特殊學校 進學者 들이고, 軍隊 入營者가 靑少年人口의 約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北韓靑少年들은 다음과 같은 一般的 節次를 통하여 職場으로 配置된다. 卒業 몇달 전에 「市·郡 人民委員會 勞動部」에서 취직에 必要한 書類樣式들 - 履歷書, 自서전, 身元陳述書, 就職希望書, 身元保證書, 保健診斷書 - 을 配布한다. 이들 書類에 記錄해야 하는 內容을 卒業豫定者 本人이 直接 써서 準備한다. 이에 學校長이 評價하는 評定書 - 南韓의 卒業證明書와 같은 公信力을 갖기 때문에 北韓社會에서는 취직할 때에 卒業證明書가 必要없다 - 가 添附된다(「北韓總覽」, 1983:910). (서동익, 1989:119).

「身元保證書」는 就業希望者의 身元을, 사상은 물론 政治的·經濟的으로 責任지고 保證할 수 있다는 3人을 指名하여 이들의 이름을 記載한다. 각자의 性別 姓名 年齡 現職位 住所 등을 記錄하고 署名 捺印한다. 「身元陳述書」는 7寸 이내의 家族 친척과 외가(妻族)의 人的事項을 記錄한 書類이다. 記載된 內容은 性別 姓名 生年月日 學歷 8.15前 主要經歷 8.15直後 主要經歷 黨別 所屬社會團體 軍服務期間 特技有無 其他事項 등이다. 「就職希望書」는 第1志望에서 第5志望까지 支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하고 싶은 職場의 이름을 밝힐 수 있다. 「健康診斷書」는 郡「人民病院」에서 발부한 것만이 有效하며 이것은 支援者의 健康狀態를 자세히 說明한 文書이다(「北韓總覽」, 1983:910).

各 學校의 政治部 校長은 所要書類를 卒業式 約 3個月 前에 勞動部에 提出한다. 提出된 書類에 기반하여 勞動部는 就業 希望者들에게 適切한 職場, 이를테면 工場 鑛山 農漁村을 비롯 한 各種의 就業場에 組別로 必要한 人員을 安配한다.

勞動部 일방의 決定에 의한 配置가 本人의 適性이나 進路 計劃과 一致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現實’을 받아들여려고 努力한다. 配置된 職場을 離脫할 경우 日常的인 社會的 삶을 營爲하는데 緊要한 書類들, 예를 들자면 食糧整理證明書, 「사로청」 移動證, 軍事移動證 — 最初로 配置된 職場에서 발부해 주는데, 軍人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訓練을 받을 수 있다는 證明書 이다 — 勞動手帖⁹⁾ 등을 配布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市(區域)軍人民委員會勞動部」의 소개장 또는 配置場없 이는 어디가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例外的狀況은 道級 機關이나 中央級機關에서 소환하거나 調整하는 때 뿐이다. 뿐만 아니라 黨組織 生活에서 배제되며 심지어 食糧配給에서 제외되 기 때문에 黨의 指示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서동익, 1989: 121). 따라서, 다른 分野로의 進出에서와 같이, 就業課程에서

註 9) 職場을 移動하는 경우에 必要한 文書이다.

北韓靑少年들이 취할 수 있는 現實的 代案은, 他律的 形式主義에 立脚한 人성으로 적응 해야하는 현실만이 주어져 있다는 點이다.

職場의 進路를 決定하는 데에 本人의 意見보다는 黨과 國家의 配慮가 더 重要的 北韓의 經驗은 나름대로의 職業評價基準을 갖는다. 通念적으로 共有되는 職場評價의 選好基準은 ‘權力’, ‘賃金’, ‘作業 難易度’ 등의 順序로 序列化된다 (「北韓總覽」, 1983:911). 가령 高位職이더라도 權力이 없는 직함이라면 忌避하는 傾向이 현저하다. 低級職이라도 職業難易度에서 편안함이 保障된다면 우선 選好의 對象이 되는것 등이다. 이는 週期的으로 (흔히 1 주일에 한번) 開催되는 黨生活 총화모임에서 責任을 追求 當할 餘地에 대한 心理的 負擔感이 있기 때문이다. 地方에 所在한 職場에 勤務해야 하는 경우에는, 黨員과 安全員을 選好하게 되는데, 이는 黨의 信任이 確保되는 分野이며 출세의 可能性이 높고 權勢가 주어져서 日常生活에 惠擇이 保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北韓總覽」, 1983:911).

南韓에서의 就業은 本人의 能力과 意思가 우선시 된다. 就業希望者는 本人이 원하는 職場의 選拔制度나 就業要綱에 따라서 公開적으로 選拔되거나 採用되는 것이 日常的 慣行이다. 물론, 就業過程에 학연 지연 血緣등에 의한 個人的 緣故가 전혀 作用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公採以外的 경우, 個人 연결망에 의한 情報나 소개로 就業하는 경우도 相當水準 發生하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選拔基準에서 가장 重要的 것은 学力을 包含한 能力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北韓의 慣行과 뚜렷한 差異點이 있다면 學校 또는 行政擔當機關에 의해 (반) 強制的인 配慮로 젊은이들이 職場에 配置되는 事例는 거의없다는 現實일 것이다.

1989년 現在, 南韓의 勤勞靑少年들은 全體 靑少年人口(9세~24세)의 17%(238萬名)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體育部, 1990). 이들 가운데 49.9%는 社會間接資本과 其他 서비스業에 종사하였다. 45.4%는 鑛工業을, 4.7%는 農水產業에 關聯되었다. 鑛工業의 경우, 젊은이들은 纖維, 假髮, 縫製 고무등의 勞動集約的 製造業에 集中的으로 勤務하였다. 서비스業에는 5人 미만의 零細接客業所에 從事하는 靑少年이 主流를 이루었다.

學校在學中인 靑少年들의 대부분이 父母와 함께 居住하는 데에 비해 勤勞靑少年들은 半數 가량(49%)이 고향을 떠나거나 客地에서 혼자 生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就業動機는 ‘장래준비’(36.4%) 혹은 ‘生活費 補助’(26.3%) 등이었다. 이를 미루어 볼때에, 南韓의 靑少年들은 学力 혹은 家族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원만하지 못할때에, 上級學校로 進學하는 대신에 差선택으로 社會로 進出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모 외, 1985:199).

이러한 傾向은 勤勞靑少年의 社會一般的 態度調査(1985年度)에서도 確認된다. 즉, 이들의 社會觀, 職業觀, 相對的 薄脫感, 福祉意識 등과 같은 外的態度는 肯定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無規範意識, 고립감, 소외의식 등은 높은 傾向을 보이는 바, 否定的인 內的態度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靑少年意識構造調査」, 1985).

이들 勤勞靑少年들은 家族을 떠나 生活하는 것이 一般的이기 때문에 現實에 대한 不滿이 많다. 마음껏 공부하거나 하고싶은 일을 소신껏 遂行할 수 있는 狀況을 동경하는 편이다. 이들의 人間關係는, 學校在學中인 學生들과 같이, 多樣하지 못하고 幅이 좁은 편이다. 나아가, 다른 分野로 進出한 동년배를 대하게 되면 萎縮感을 느끼거나, 自然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傾向을 보인다. 餘暇活動이나 多樣的 社會接觸에의 機會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社會化 內容의 많은 부분이 동료집단에 의해 決定되리라 짐작된다(황정규 外, 1989:407). 한마디로, 勤勞靑少年들은 價値觀에 一慣性이 缺如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情緒적으로 安定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영모 外, 1985:176).

6. 大衆媒體

텔레비전 라디오 新聞 雜誌등 多樣的 形態의 大衆媒體는 現代社會에 와서 그 重要性을 더해가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들 大衆媒體는 有用한 情報 交流와 習得은 물론, 健全한, 文化의 擴散을 擔當하는 肯定的인 機能을 提供한다. 그 반면에, 虛僞情報의 流布 혹은 情報統制를 통한 大衆操作은 물론 低級文化의 전파에 寄與한다는 否定的 側面도 무시할 수 없다.

大衆媒體의 이러한 양면적 성격은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南·北韓社會에 나뉘대로 寄與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該當社會의 靑少年 社會化에 影響을 끼치는 主要機關이 되고 있다.

우선, 北韓社會에서 大衆媒體가 차지하는 影響力을 살펴보자.

社會主義的 秩序에서 大衆媒體의 최우선 機能은 國家 혹은 黨이 주도하는 政治思想 教化의 道具 내지 大衆動員의 組織體로서의 役割이다(도홍렬, 1982 : 이병혁, 1988). 따라서 大衆媒體의 社會的 機能은 資本主義社會에서 경험되는 내용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러한 狀況아래서 北韓靑少年 역시 大衆媒體에 의한 共產主義的 價値觀의 의도적인 注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國家가 모든 關聯 大衆媒體 組織을 獨占的으로 掌握 統制하여, 全住民에 대한 政治社會化에 주력한다. 즉 여러형태의 道具들은 大衆動員을 위해 최대한으로 利用된다. 한편으로는 民間의 通信通路를 遮斷하여 政府에 의해 普及되는 情報나 思想만 접하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여론의 形成은 사실상 不可能하다(도홍렬, 1982 : 169).

여러 형태의 大衆媒體 가운데 대표적으로 (ㄱ)新聞, (ㄴ)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의 放送, 그리고 (ㄷ)雜誌와 出版 狀況을 簡略히 살펴 보면서 政治社會化의 道具로서 北韓의 大衆媒體 실태를 엿보도록 하겠다.

(ㄱ)新聞：勞動黨의 計劃的 指示로 生産되고 編輯되기 때문에 統制·監督·檢閱의 嚴格한 過程을 거쳐 製作된다. 人民大衆의 教養·宣傳·煽動·洗腦를 위한 주요 手段이 되고 있다.

(ㄴ) (라디오·T.V) 放送：放送內容의 대부분은 思想性을 中心으로 하는바, 劃一性이 그 特徵이다. 보도뉴스는 社會主義 建設狀, 영웅적인 努力鬪爭의 成果, 南韓社會의 왜곡된 社會상 보도와 이의 비난, 北韓의 國際的 支持 獲得, 그밖에 김일성의 현장지도와, 外國人 接見등에 관한 내용이 主流를 이룬다.

(ㄷ)雜誌·出版：家口當 平均 2~4種의 雜誌를 일반적으로 구독하는 편이다. 「독보회」나 「학습회」등의 모임과 더불어 思想教化 施策의 重要 교두보가 된다 (도홍렬, 1982 : 171 ~ 173).

따라서 北韓靑少年들은 道具化된 大衆媒體의 影響을 一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어진 틀에 얽매어진

限定된 行動과 思考를 하게되는 偏向된 人性¹⁰⁾으로 養成되는 것이다.

한편 南韓學生들의 平均 餘暇時間은 하루 세시간 전후이며, 勤勞靑少年들의 그것은 2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김영모외, 1985:207). 특히, 全體 靑少年人口의 반정도가 텔레비전 시청으로 그들의 餘暇時間을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대 社會科學研究所, 1985). 그밖의 一般的인 餘暇活動으로는 “라디오 聽取”, “新聞·雜誌읽기” 등의 순서로서, 大衆媒體와 親熟한 편이다(김영모, 1985:207).

南韓에서는 大衆媒體가 체계적·組織的 政治社會化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도가 北韓처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그러나 근간에는 텔레비전등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展開되는

註 10) 그밖에 北韓社會는 社會主義 原理에 立脚한바 대로 政治教化로 무장된 人性을 길러내는 데에 “現場見學教育法”을 採用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訪問하게 되는 現場 見學處는 「김일성 생가」, 「혁명박물관」, 「조국전쟁기념관」, 「혁명전적지」, 「봉화리와 강반석 생가」, 「군중문화관」, 「어머니 전람관」, 「선전식 및 구락부」, 「도서관」등이다. 이렇듯, 北韓의 靑少年은 어릴때부터 “全住民의 社會教育化”의 일환으로 政治的 目的과 內容으로 接철된 社會教育 프로그램에 關與하게 된다(남인숙, 1990).

商業主義, 외설성, 폭력성은 물론 편파적인 報道態度 등의 역기능이 지적되고 있다. 參考로, 南韓靑少年들이 選好하는 텔레비전 放送內容을 살펴보면, “스포츠”(24%), “영화”(23%), “쇼”(16%), “연속극”(15%), “음악”(11%), “만화영화”¹¹⁾(7%) 등의 순서이다. 다시말하면 娛樂物 위주의 內容이 主流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靑少年 意識調查」 1985).

이와더불어 有名言論社들이 競爭하듯이 發刊하는 스포츠 新聞의 煽情的인 만화, 興味爲主의 記事, 不法으로 製作・配布되는 외설잡지등의 出版物의 氾濫은 자라나는 未成年者들에게 歪曲된 性지식과 난폭성을 培養하는 進원지가 될 수 있다. 이렇듯 資本主義社會에서 겪게되는 지나친 상업성은 靑少年犯罪의 增加現狀에 많은 부분을 責任져야하는 대목이다.

7. 親友集團

영·유아들의 兒童期에 접어들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비슷한 나이의

註 11) 특히 국민학생들의 경우,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만화영화시청이 全體 應答者의 88.1%를 차지하였는바, 絕對的인 人氣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靑少年 意識調查」, 1985).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특히 靑少年期에 접어들어서는 家族生活보다는 學校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교내외에서 친구들과 接觸하는 機會가 많아지면서 親友集團 (peer group)을 形成하게 된다. 親友集團은 가족이나 학교, 職場과는 달리 根本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存在하는 이른바 水平的 關係에 立脚한 “表現的 關係” (expressive relationship)를 樹立한다. 어떠한 公式的 目標가 存在하는 관계가 아닌, 同僚間的 우정에 基盤한 結束關係이기 때문이다 (양춘, 1984:93).

靑少年들의 親友集團은 趣味·衣服·隱語·價値등을 共有하고 餘暇活動을 같이 하는등 獨特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성지식의 交換등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는 情報를 習得하는 重要的 通路를 提供하기도 한다 (황정규, 1989:402).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非公式集團을 形成하여 反社會的 性格을 가진 不良集團을 組織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靑少年들은 社會的 自我意識을 친우집단과의 相互作用을 통해서 얻으려는 傾向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靑少年의 社會代 과정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看過될 수 없는 것이다 (양춘, 1984:93).

同年輩 親友集團과의 相互作用에 관한한, 北韓靑少年들은 영유아기때부터, 政治的 教化作業을 위하여 組織된 團體와 接觸 機會를 가지게 됨은 앞에서 이미 지적된 바이다. 原初的 血緣關係에 基盤한 傳統的 家族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幼

兒期부터 同年輩와의 組織生活에 익숙하여진 이래 靑少年期에 이르기까지 集團生活은 持續된다. 「소년단」이나 「사로청」등의 組織生活은 親友關係를 多元化시킬 수 있는 훌륭한 機會를 提供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생활, 「소년단」, 「사로청」등의 各種 團體나 組織活動, 勤勞活動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割愛하기 때문에 北韓의 젊은이들의 餘暇時間은 생각만큼 充分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北韓社會에서 水平的 人間關係를 支配하는 核心的인 運用原理, 이를테면 “集團의 原理”, “言語와 行動의 統制原理”, “競爭의 原理”, “公開的 賞罰의 原理”, “自我批判의 原理” 등(변진홍, 1982:128)을 학습하고 適用할 機會는 充分히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親友集團간의 相互作用에도 이러한 “社會主義的 人間關係”의 原理가 適用될 수 있다는 현실을 전제했을 때에, 政治的 目的에서 벗어난 순수한 意味에 立脚한 親友集團의 確立은 事實상 不可能한 것으로 思慮된다.

南韓社會의 境遇는 就學以後부터 家族生活보다는 學校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校内外에서 同僚 친구들과 어울리는 機會도 많아진다. 1985年 現在, 南韓 靑少年 意識構造調查의 結果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에 그 相談者로 가장 頻繁하게 문의하는 상대로 “친구(46.4%)를 꼽

고있다. 이러한 傾向은 高等學生들에게 가장 普遍的으로 나타나는 趨勢였다. 國民學生은 “父母”가 最頻 對象者인 반면에, 中學生은 “친구”와 “부모”가 비슷한 比率로서 同率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韓 靑少年들의 親友集團과의 相互作用은 생각만큼 圓滑하지 못하는데, 나름대로의 障礙要因이 도사리는 있다.

中·高等學校 在學生들은 상급학교 進學을 위한 학과공부와 과외·학원수강, 오랜 通學時間에 많은 시간을 消費하는 實情이다. 勤勞靑少年들은 과도한 職場勤務 시간등으로 親友集團을 만들고 그들과 사교범위를 넓힐 수 있는 地域的 社會的 範圍가 制限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情緒涵養을 圖謀하는 人間적 交流關係의 成立은 事實상 期待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자칫하다가는 同僚關係가 競爭狀態의 그것으로 認識되기 쉽다. 특히 학업에 成功的이지 못한 靑少年들은 다른 價値와 動機를 가진 親友集團을 형성하여 非正常的인 非行集團을 組織하는 境遇도 드물지 않게 發生한다(양춘, 1984:97).

8. 其他 社會環境

이밖에 靑少年들의 社會化過程에 큰 影響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其他 社會環境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北韓社會는 高度로 統制되고 組織化된 社會이지만 나름대로 그 社會 特有的 부조리

不信風潮 등의 社會問題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職場配置를 비롯하여 各種 組織에 加入이 義務事項이 되다보니, 職場生活와 組織活動에 대한 怠慢·保守主義·要領主義·形式主義 등의 傾向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形態의 監視나 監督體系가 徹底한데, 그러한 雰圍氣가 고조될수록 不信風潮가 만연되는 趨勢이다. 이와 아울러 硬直된 階級政策에 대한 불만도 사회일반적인 不滿要因의 큰 要素로 등장된다고 한다(國土統一院 1989:124~137).

한편 南韓의 靑少年 社會化過程에 否定的 影響을 끼치는 社會的 環境으로서 特記할 것은 頹廢 享樂產業과 靑少年 有害業所の 增加 現狀이다. 최근들어 지하경제의 팽창과 황금만능주의로 思考의 膨脹으로 음성적 불로소득이 많아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비도덕적인 思考가 만연되는 趨勢이다.

창궐하고 있는 頹廢享樂產業은 靑少年들에게 否定的인 影響을 提供한다. 뿐만아니라 遊興業所に 未成年者인 젊은이들의 무상출입, 주류제공과 이의 販賣行爲, 음란 비디오의 상영과 환각제 등 약물사용 및 販賣, 商業的 宿泊施設에서 未成年者들의 混宿 등의 관행은 普遍化되고 있다. 이러한 趨勢는 美風良俗을 沮害할 뿐만아니라 靑少年들의 脫線과 犯罪의 온상으로서 社會問題로 浮刻되는 實情이다. 또한 靑少年들을 誘引하거나 납치하여 인신매매는 물론 학대하고 혹사시키는 行爲들은 南韓社會가 克服해

야 할 부끄러운 社會環境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靑少年育成委員會」, 1989).

IV. 靑少年的 價値觀과 社會化的 問題點

1. 靑少年的 價値觀

지금까지는 南北韓社會가 意圖하는 社會的 人間型的 運用方式으로서 삶의 成長週期에 相應하는 各種 社會化的 主管機關들을 중심으로 社會化內容을 追跡하였다. 그렇다면 해당사회가 追求하는 社會化內容을 現實에 實際 適用한 結果, 靑少年들이 普遍的으로 지니는 意識이나 價値一般 態度등은 무엇인지, 또 이와 關聯된 問題點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살펴 볼 必要가 있다.

社會化過程의 結果的 產物로서 社會성원들이 共有하는 一般的인 價値觀은 여러 形態로 表出될 수 있다. 北韓 靑少年들의 경우 黨이나 國家 혹은 首領의 絶對的인 優位性에 대해서는 종교적 열성에 비길만한 맹목적인 忠誠心과 依存性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北韓社會가 積極性과 創造性을 지닌 共產主義的 革命人材의 輩出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北韓總覽」, 1983: 1056, 김영희, 1988:77).

北韓社會가 期待하는 人物이란, 社會主義를 위하여 鬪爭하고, 勞動階級의 革命偉業을 위하여 살아가는 “北韓式 主體型 役軍” (김영희, 1988 :도흥렬 1990 :이은죽, 1990)을 뜻한다. 따라서 融通性을 갖추거나 자유분방한 意識의 所有者보다는 硬直되고 劃一的인 思考方式에 익숙한 極端主義的 價値觀을 지닌 人間(변

진홍, 1982:128, 김영희, 1988:123)이 輩出되기 쉽다.

南韓 靑少年들의 社會一般的인 價値를 알기 위하여 「靑少年 意識構造調査」(1985)의 結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985年 現在 應答 靑少年들은 國家나 集團의 利益(43%)이 個人的 利益(19%)에 優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組織이나 集合性的 優位보다는 個人的 能力, 獨自性을 강조하는 南韓社會에서 자라난 靑少年들이 集團優先의 價値觀을 높게 갖는다는 結果는 다소 意外的이다. 또한 應答한 靑은이들의 多數(76%)가 南韓社會의 國際的 地位를 “中以上”으로 評價하였다. 經濟發展에 대한 見解 역시 대다수(87%)가 肯定的인 評價를 내렸다. 外國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意見은 應答者의 일부(28%)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結果를 기초로 했을때에, 南韓의 靑少年들은 比較的 肯定的인 國家觀을 지녔다고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 靑少年들의 그밖의 態度나 意識一般등도 北韓社會 特有的 政策 혹은 體制教育의 產物로 解析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北韓의 靑少年들은 어려서부터 多樣的 形態의 組織生活을 經驗하기 때문에 자칫 集團生活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을 듯한 無力감이나 불안감을 지니게 된다(변진홍, 1982:123).

또한 思想教育理論에서 강조되는 內容들, “個人”보다 “住民” 優先의 原理, “主體”나 “創造力”의 開發등은 極端的인 集團

主義 教育과 階級意識의 注入과는 불가분의 關係에 있기 때문에 자칫 自我意識이나 創意力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北韓社會는 社會的 統合의 主要 기제로 「人民의 敵」에 대한 증오심을 強調한다. 이를 위한 社會的 기제로서 社會主義 路線을 따르지 않는 一般 他社會와의 絶연을 誘導한다(「北韓總覽」, 1983 : 1056, 김영희, 1988 : 122). 이에, 北韓 靑少年들이 갖는 社會的 性格의 또다른 特徵은 革命性과 鬪爭性에서 비롯된 好戰的인 戰鬪意識이 높게 고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社會文化 一般에 대한 南韓靑少年의 態度는 兩面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족제도의 選好라든가 어른에 대한 恭敬心 등을 表現하는 傳統倫理意識에는 肯定的인 態度를 表明하였다. “貧富隔差”, “勞動問題”, “도농간의 隔差” 등 社會經濟的 現象에 대해서도 그 深刻性を 認識하여, 진보적인 見解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南韓의 젊은세대들은 拜金思想—應答靑少年들의 72%가 “살아가는데 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問項에 동의하였다—에 물들어 있었다. 이는 社會全般에 만연된 黃金만능주의적 面貌의 한 부분을 그대로 反映한 結果라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南韓의 젊은이 가운데 많은 比率이 入試 혹은 成績向上과 關聯된 學業問題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經驗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勤勞靑少年들의 경우는 低賃金 長時間 勞動에 대한 불만을 가

지고 있었다. 農村居住 젊은이들은 農村의 破폐화와 이로 인한 社會文化的인 落後性에 어려움을 認識하고 있었다. 그밖의 其他 事項으로 賭博·飲酒·마약류 服用등의 頹廢的인 행동에 가담해 본적이 있는 젊은이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創造的이고 生産的인 靑少年들의 意識態度, 價値觀의 確立이 시급한 實情이라고 하겠다.

2. 靑少年 社會化의 問題點

主體的 人間으로서 共同體에의 所屬感·忠誠心 그리고 獻身을 重要하게 受容해야 하는 北韓社會의 靑少年들은 말할것도 없고, 個人主義를 本格的으로 排擊하지 않는 資本主義的 秩序下의 南韓 靑少年들 역시 內部的 갈등에서 비롯되는 모순이나 부조리를 經驗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所屬社會의 意圖된 價値나 規範을 전수받은 過程에서 그 社會 性格이 갖는 限界나 弱點 등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회의감이나 不適應 狀態로 빠뜨려, 이탈행위나 非行에 加擔하도록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指摘되었듯이 정치성향이 階級構造를 결정하는 硬直된 社會體制 아래에서 個人的 能力에 의한 社會進出에의 機會가 事實上 不可能한 現實은 北韓社會가 支拂해야할 댓가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計劃經濟 秩序에서 提起되는 만성적인 物資缺乏

現狀등이 불러일으키는 회의감등은 北韓 靑少年들 자신이 일상적으로 體驗해야 하는 갈등이나 부조리의 具體的인 事例가 될 것이다. 南韓社會의 경우는 物質主義에 立脚한 道具的 人間關係, 入試爲主의 학벌지상주의, 頹廢享樂風潮의 만연 등은 北韓과는 다른 形態의 社會가 만들어내는 역기능으로 指摘될 수 있다.

이렇듯, 該當社會가 전제하는 인간형의 형성과정에서 克服해야만 하는 人間性 喪失에 대한 의구심 또는 몸부림이 바로 일탈행위의 發生으로 解析될 수도 있을 것이다.

北韓靑少年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社會 逸脫行爲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區分된다(변진홍, 1982:127).

(ㄱ) 人身侵害에 의한 犯罪行爲: 靑少年들의 패싸움등 暴力事件이나 男女間의 연애·결혼에 대해서 黨이 가하는 統制등 때문에 發生되는 性犯罪등이 이에 해당된다. 普遍的으로, 加害者는 黨이나 協同農場의 幹部인 경우가 흔하며 被害者는 젊은세대인 경우가 많다.

(ㄴ) 强盜·窃盜·소매치기등의 경제사범: 靑少年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제사범의 類型은 窃盜行脚이 가장 頻繁하다. 旅行中인 사람의 휴대품을 훔치거나 밤중에 남의 집에 侵入하는 것등이다(「北韓總覽」, 1983:919). 그밖에 일상적인 物資不足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진, 國家財産의 橫領이나 관리소홀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ㄷ) 政治思想犯 : 출신성분에서 提起되는 社會的 移動 可能性의 限界와 이로 인한 疏外意識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忠誠心이 社會主義 理念 具現의 진정한 目標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중변소나 黨建物 벽등에 반체제적인 內容의 낙서나 만화등을 그려서 附着하는 등의 “반당·반체제적”인 사건이 이에 該當된다.

北韓黨局은 靑少年들의 이와같은 逸脫行爲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조처에 전력투구한다. 이를테면, 過去 傳統的인 劃一化된 團體 教養을 지양하였다. 대신 최근에는 各種 報道媒體를 動員하여 靑少年 教養事業에 주력한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학부형회의를 통해서, 職場에서는 職員會議를 必要할 때마다 開催하여 事態의 深刻性을 주지시킨다. 즉, 子女들에 대한 思想教育을 촉구하여, 窮極的으로는 家族과 社會의 연계를 強調하는 등 多面的인 靑少年 指導에 關心을 集中한다.

동시에 靑少年들의 逸脫行爲에 대한 豫防 政策과 더불어 非行靑少年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嚴格한 편이다. 학교에 在學中인 學生이 社會問題에 連累되었을 경우에는 상급학교로의 進學이나 職場配置의 可能性에서 除外된다. (大) 都市 居住 靑少年들이 非行에 加擔하게 되면, 本人은 물론 그 家族들도 주로 산간벽지 등의 오지로 강제이주 당하는등, 多樣한 形態의 엄벌조치를 내려

서 다스린다(「北韓總覽」, 1982:919).

南韓에서는 急速하게 進行되어온 産業化過程에 따라 物質主義的 性向이 強化되었음은 이미 여러번 指摘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現狀은 全般的인 欲求水準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그러나 分配 不平等 등에 의한 이러한 欲求水準의 充足與件은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便法이나 不當한 方法으로라도 그 隔差를 解消시키고자 하는데에서 犯罪가 起因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犯罪도 난폭해지는 傾向이며 殺人·強盜 등의 強力犯의 增加와 靑少年非行도 날로 增加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범죄양상의 特徵은 10代 靑少年들의 暴行과 強·竊盜의 頻繁함을 꼽을 수 있는데, 犯罪年齡이 연소화되는 것과 靑少年의 호기심에 의한 犯罪, 그리고 罪意識 없는 무분별한 行動등이 큰 爭點으로 浮刻되고 있다. 이들 靑少年들의 犯罪動機를 살펴보면, “고급운동화등 사치품구입 또는 飲酒·遊興費 마련”(42.9%), “偶發的 動機”(34.2%), “射倖心”(8.8%), “가정불화”(8.1%) 등의 順序로 밝혀졌다(김학준 외, 1987:311~312). 靑少年들의 충동성, 비인간화, 무절제함, 죄의식 결여등의 병폐를 엿볼 수 있다. 그밖의 특기사항은, 靑少年非行者들의 가족배경이다. 최근 靑少年犯罪者들의 57%가 양친이 生存하는 中流以上の 가족출신이라는 점이다(김학준 외, 1987:312). 南韓靑少年의 逸脫行爲와 關聯된 犯罪를 類型別로

分類해 보면 暴力犯罪, 財産犯罪 등이 주류를 이루며 반정부활동 등의 政治·時局犯罪로 이어진다.

(ㄱ) 一般的 意味의 暴力犯罪는 強力犯罪에 包含되지 않는 폭행, 상해, 공갈등 身體에 危害를 가하는 犯罪를 지칭한다. 靑少年犯罪의 반정도(56%)를 차지하며 14歲~17歲 年齡層에 의한 犯罪率이 增加하여 年少化 傾向을 나타낸다.

(ㄴ) 財産犯罪는 窃盜·詐欺등 財産上의 利益을 侵害하는 行爲로서 靑少年犯罪의 3分の1程度(36%)를 占有한다. 이 중 窃盜가 大部分(87%)이다.

(ㄷ) 政治·思想犯罪는 一般的인 靑少年犯罪 統計에 包含되지 않지만 政治·時局과 關聯된 爭點에 대한 반대·충돌은 政治와 연계된 問題를 浮刻시키는 것이므로 論議될 必要가 있다. 특히 해방이후 南韓社會에서 學生集團이 主要 政治的 爭點을 提起해 왔던 集團이었던 점을 考慮하면 더욱 그러하다. 大學生인 경우, 政權 및 政府政策에 대한 반대로 인해 처벌이나 투옥되는 境遇가 적지않다 최근 運動圈 學生들을 중심한 政治的 반대세력이 表面에 浮刻되고 있다.

靑少年非行에 대한 豫防活動은 少年警察을 中心한 行政機關이 相談·就業과 취학알선, 선도성과 우수소년 표창, 소년선도 캠페인과 강연등의 側面支援을 통해서 활발하게 展開된다. 이와아울

러 學校나 家族에 의한 相談·指導 그리고 연계지도등의 方法을 導入하였다. 텔레비전·新聞·放送등 大衆媒體를 통한 선도캠페인등도 實施하고 있다.

非行靑少年들에 대한 制裁는 父母 또는 선생님에 의한 訓戒나 制裁, 가벼운 犯罪일 경우 司法關係의 보호자나 학교장에게 通報한후 訓放하는 方法이 시도될 수 있다. 개전의 정이 없는 凶惡犯罪, 常習犯罪 그리고 組織暴力犯罪일 경우에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의 수감하는 措置를 취한다. 의법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非行行爲가 반복된다면 학교졸업이나 취업활동등에 惡影響을 미치며, 進學할 때에 성적불량으로 인한 어려움을 經驗하게 된다.

V. 맺 는 말

지금까지 論議의 초점은 들어가는 말에서 提起되었던 南北韓 靑少年의 社會化 實態와 關聯된 세가지 爭點의 糾明에 주어졌다. 즉, (1) 南北韓 社會가 意圖하고 追求하는 社會化內容의 具體的인 原則은 무엇이며, (2) 出生부터 初期成年期에 이르기까지 主要 社會化 擔當機關의 役割이나 相對的인 重要性은 어떠한지, 그리고 (3) 社會化의 產物로서 各 社會에 所屬된 靑少年들의 一般的 價値觀과 그 問題點은 무엇인지를 糾明하는 作業이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關聯 爭點別 討議를 要約·評價해 보고자 한다.

分斷과 더불어 南北韓 社會는 社會全般에 걸친 再組織 作業을 거쳤다. 그 이후 나뉠대로의 有意味하고 說得力을 지닌 社會體制를 構築하여, 오늘날과 같은 이질화된 南北韓 대치의 秩序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異質화된 社會秩序의 再構成 作業이 젊은세대를 겨냥한 相異한 社會化內容에 전폭적으로 適用되었음이 指摘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北韓社會의 경우, 「朝鮮勞動黨」의 企劃아래 “사회주의형 人間”의 形成이 北韓社會의 基本 構成原則으로 등장하였다. 그 이래로 北韓靑少年을 위한 社會化內容은 “북한형 共產主義 人間”의 誕生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이에, 社會全般에 걸친 劃一性이나 總體性的 原理가 採用되었다. 반면, 南韓社會의 基本構成原則은 資本主義와 自由民主主義 理念에 立脚하여 個人主義나 個人能力的 發揮를 최대한으로 認定하려는 社會秩序에 立脚한다. 靑少年社會化 政策은 政府行政部 署 가운데 하나인 文敎部가 주로 管轄하고 있다. 參考로 文敎부가 提示하는 敎育理念을 살펴보면, “自我實現을 통한 弘益人間”에 기초(홍웅선, 1988:82)하는 바, 건국 이후의 民主的 民族主義의 구현이라는 國家理念과 一致하고 있다.

이렇듯, 共產主義的 人間의 形成을 目標로 黨이 주도하는 北韓社會의 社會化 內容은 文敎부를 중심한 政府의 간여가 介入되지만 相對적으로 자유롭고 덜 劃一的인 南韓社會의 그것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 具體的인 內容을 比較해 보자. 무엇보다 北韓社會에서 높은 비중을 두고있는 이른바 “社會主義 人間型”이란 政治敎化로 무장된 人性이라는 점이 指摘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靑少年을 위한 社會化 內容의 核心은 政治敎化 내지 北韓社會가 意圖하는 人性의 구조에 基盤한다.

출생과 더불어 政治的 目的과 內容으로 點綴된 社會化過程이 이러한 “意圖”를 反映한다. 이미 指摘되었듯이 北韓社會에서 家族은 재래의 傳統的 社會化의 場(場)으로서 그 原初적이고 일차적인 比重이 破壞되어 버렸다. 그 대신에 社會主義 敎育體制

에 立脚하여 就學前의 兒童養育은 公共養育機關에서 劃一的이고 集中的인 보살핌으로 代置된다. 集團生活을 통한 劃一的 集團主義 思考方式과 생활습관의 일상화는 11년간의 初等·中等 教育의 全過程이 義務規程으로 實行되는 現實에서도 엿볼 수 있다. 주체사상 教養事業등을 強調하는 “思想教育”, 敵에 대한 적개심의 鼓吹나 戰爭의 必要性을 注入하는 “특강” 등의 교과과정, 그리고 「소년단」, 「사로청」에의 義務的 加入을 통한 組織生活 適應을 강조하는 등에서 政治教化를 위한 “思想性”을 感知할 수 있다.

그밖에 北韓靑少年들의 社會化 內容에 內包된 政治的 意味나 政治性은 11年の 義務教育이 끝나고 各자의 進로를 결정하는 過程에서도 또한번 適用된다. 全體 卒業者의 소수만이 進학할 수 있는 大學이나 特殊教育機關의 경우 入學資格 要件으로 가장 중요한 德目 가운데 하나가 본인의 黨성과 가족의 성분—「核心階級」 子女優先의 原則—이 配慮되고 있음은 이미 言及되었다.

人民軍 入隊의 缺格者로서 政治的 “성분불량자”가 꼽히는 現實, 그리고 職業評價에서도 黨의 信任이 두터운 分野를 選好하는 趨勢등, 이 모두가 北韓社會에서 政治性이 차지하는 比重을 짐작케 하는 事例들인 것이다.

南韓의 日常的인 社會化過程은 特定の 理念的 意圖性이 表面에 浮刻되지 않은채, 傳統的인 內容으로 構成되는바, 자유방임적

인 個人主義 原理가 그 근간으로 作用된다. 한 生命體가 誕生 되면 所屬된 家族을 통해서 일차적인 社會關係를 學習하게 된다. 養育의 優先 責任者는 대개 어머니이며, 狀況에 따라 養育 代理者(祖父母 혹은 그밖의 친척등)가 될 수 있다.

義務教育은 6年間の 初等教育 과정에만 適用된다. 就學前 兒童들은 父母의 認識, 經濟的 能力에 따라 幼兒(稚)院, 藝術·技術등을 가르치는 私設學院등에서 早期教育에 必要한 知能開發에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중등교육과정 以後부터는 受益者 負擔의 原則이 適用되고 國家의 直接的인 財政補助는 감소된다. 그렇지만 國교졸업자의 절대다수(98.7%)가 中學校에 진학하며, 中學卒業者의 94%가 高校로 進學하고 있음은 앞에서 討議되었다. 이러한 現實은 南韓社會 父母들의 높은 교육열을 反映하며, 나아가 한 個人의 社會的 移動을 決定하는데에 차지하는 교육(혹은 학력)의 높은 비중을 雄辯的으로 指摘하는 것이다. 그밖에 北韓靑少年의 經驗과는 달리 團體組織生活에의 義務的인 加入은 南韓의 경우에는 該當되지 않는다. 단지 勸獎事項으로서 심신단련이나 親睦圖謀를 위한 校內外 靑少年 團體活動의 加入이 추천된다. 初·中等 教育課程 가운데에는 교과목으로 “도덕”이나 정치사상교육을 위한 科目이 開設되어 있으나, 北韓의 그것과 比較했을 때에 約折半水準의 시간이 配定되어있을 뿐이다.

社會化의 한 過程으로서 南韓社會의 現行 學校教育을 特徵짓는 要素는 自由競爭原理에 立脚한 入試爲主의 教育에 基盤하고 있음이 指摘되어야 한다. 1969年 새로운 入試制度의 導入 以後, 상급학교 進學을 위한 入試는 事實上 大學入學試驗을 일컫는바, 1987年 現在 全體 高校卒業者의 35%만이 大學에 進학하는 실정이다. 물론, 實業系 高校出身者들은 就業을 하고 있다.

綜合的으로 볼때에, 人文系 高校卒業生의 未進學率은 40%에 달하며 實業系 高校卒業生들은 그들의 9%가 實業狀態에 방치되어 人文·實業系를 불문하고 전체 高校卒業生의 折半(49%)이 원하는 分野로의 進出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무직·미진학 靑少年의 數値는 1988年 現在 58万名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每年 30万名 以上の 재수생이 輩出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個人의 能力이나 自律性의 保障에 立脚한 南韓의 社會的 性格은 극심한 人力資源의 優劣현상이라는 하나의 問題를 배태하고 있다. 高校卒業者들(특히 人文系)가운데 상당수는 職業教育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就業能力이 事實上 별무한 狀態이다. 취업전선으로 進出한 實業系 高校出身인 勤勞靑少年과 農村靑少年 역시 스스로에 대해 否定的인 自我意識을 갖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疏外感이나 열등의식은 극도의 상업주의, 頹廢享樂的 雰圍氣와 영합하여 各種 靑少年 逸脫行爲의 原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討論에 基盤하여 南北韓 靑少年 社會化過程을 綜合的으로 比較·評價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政治教化로 무장된 人性의 양산이라는 限界에도 不拘하고 北韓 靑少年 社會化內容은 全住民의 장기간 義務教育 保障, 人的資源의 극대이용, 그리고 社會文化的인 墮落의 深刻性이 資本主義 靑少年의 그것보다 덜하다는 나름대로의 效率性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南韓社會가 堅持하는 社會化原則이란 個人間의 自由競爭原理에 立脚하여 自律性을 極大化하는 가운데 社會의 規範·價値등을 내면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受益者負擔에 根據한 短期義務教育課程(특히 北韓과 比較했을 때에), 入試爲主의 과정적인 教育內容, 학벌주의 風土로 인한 遊休勞動力의 浪費, 頹廢享樂風潮의 만연등의 贅가를 支拂하는 것으로 整理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異質的 社會運用原理가 適用된 結果로서 南北韓社會의 靑少年들이 보여주는 價値觀이나 不適應 實態등을 比較·評價해 보겠다. 이러한 論理의 展開는 社會化過程의 產物로서 態度나 意識 價値觀 혹은 이에의 不適應 現象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에 基盤한다. 政治教化 最優先의 社會化內容은 北韓靑少年들로 하여금 硬直되고 劃一的인 思考에 익숙한 極端主義的 價値觀을 지니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個人” 보다는 “住民” 우선의 論理나 “主體”, “創造力 開發”을 주도한다는 명분은

革命性이나 鬭爭性을 強調하는 호전적인 戰鬭意識이 충만한 人性을 誕生시키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社會主義原理”은 親友集團間의 人間關係마저 공개비판의 原理등에 立脚하여 評價의 對象이 되도록 하는등 道具的인 資質을 배태한다. 따라서 일단 集團을 벗어난 狀況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거나 무력해지기도 한다. 또한 “社會主義原理”아래서 遂行되는 計劃經濟는 일상생활에 必要한 基本的 欲求를 充分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만성적인 物資缺乏의 狀態에 놓이게 된다. 이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提供해 주는 것이다.

그밖에 社會進出에의 機會가 本人 능력本위가 아니라 기성세대에 의해 決定되어 “配置”되는바, 이러한 構造的인 限界로 인하여 불합리성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事例들은 政策·體制教育등의 形態로 注入되는 政治思想教育에 의혹과 회의를 불러일으킬 개연성을 높여준다.

北韓靑少年들이 세가지 類型의 일탈행동-人身侵害犯罪, 經濟犯罪 그리고 政治·思想犯罪-을 흔히 저지르고 있음은 이에 대한 反證으로 볼 수 있다.

이와 同時에 北韓靑少年들의 社會化過程보다 融通性과 자유분방함이 保障된 것으로 알려진 南韓靑少年들의 經驗은 그 나름대로의 兩面的 性格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南韓의 靑少年들은 건전한 國家觀을 지녔다. 傳統倫理意識에는 支持를, 그밖의 사회

一般的 爭點들—貧富隔差, 勞動問題等—에는 進歩的인 意識性向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社會全般에 걸쳐 蔓延된 物質主義的 雰圍氣와 학벌지상주의는 學校在學生들에게는 入試와 學業問題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勤勞靑少年들에게는 열등의식을 부여하였다.

친구관계를 競爭對象으로 優先 認識하게 되는 現實은 北韓의 經驗과는 다른 意味에서 道具的 人間關係의 표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南韓靑少年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逸脫行爲가 暴力化 強力犯罪化의 趨勢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暴募犯罪와 強力犯罪는 일부 大學生을 中心으로 發生하였던 政治·時局事犯과 더불어 南韓社會에서 가장 흔히 發生되는 靑少年 逸脫行爲로 浮上되고 있다.

以上과 같이 南北韓社會의 靑少年社會化의 特性을 整理하였다. 北韓의 經驗은 劃一主義나 硬直性에 基盤하였기에 受動的이고 機械的인 價値나 意識을 지닌 定型화된 人間을 養成하는 社會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南韓의 그것은 물질주의, 이기주의에 (다소는) 汚染된 能動的이고 자유분방한 多元的인 人間을 輩出한다고 指摘할 수 있다. 이렇듯 분단이후 南北韓社會는 이질적인 社會化內容에 立脚하여 該當社會 成員을 현실이 必要로 하는 類型의 人性으로 輩出하는데 注力하였다. 남북한대치 秩序를 維持·擴大 再生産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필수불가결한 役割을 提供하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靑少年 社會化內容을 中心으로 생각해 볼때에, 南北韓社會가 하나의 民族共同體가 成立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몇가지 實踐的인 提言을 添加하고자 한다. 우선 家族, 學校, 其他 社會環境등의 社會化 擔當機關을 중심하여 그 機能과 役割에 대한 공통된 運用原理를 選定해야 한다. 양쪽사회가 共有하는 공감대 아래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具體的으로 擴大·適用시켜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南北韓社會 양자간에 다각적인 交流의 擴大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성세대 끼리의 交流도 進陟되어야 하겠지만 長期的인 안목에서는 未來社會를 窺어질 현재의 南北韓靑少年들이 學術·文化·體育등의 分野에서 활발한 交流를 展開하는 것이 더욱 效果的일 수 있다.

그밖에 南北韓靑少年間의 相互交換을 위한 수학여행 또는 연수행사등의 節次를 통해서 이질성 克服의 課題는 解決의 실마리를 提供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計劃이 하나의 현실로 定着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理解하고 受容하려는 성실한 努力— 相互尊重, 상대방 사회의 長點受容과 各 社會의 限界點 認定과 이에의 補完努力등—이 持續的으로 展開되어야 할것이다.

參 考 文 獻

고영복

1975 北韓靑少年의 政治社會化過程, 研究論總 28號, 극동문제
연구소

1977 北韓靑少年들의 社會的 性格, 北韓社會論, 北韓研究所

共產圈問題研究所

1972 北韓의 家庭과 婦女子, 共產圈問題研究시리즈, No. 2,
共產圈問題研究所

教育改革審議會

1987 教育課程의 調整, 教育改革審議會

國土統一院

1973 北韓女性의 社會化 過程에 관한 研究, 國土統一院

1985 北韓의 大學·大學生活, 國土統一院

1989 南北韓 社會文化 現況比較, 國土統一院

김 동 규

1989 北韓의 大學과 大學生, 民族統一中央協議會

김 병 린

1986 北韓의 大學教育, 國土統一院

김성원

1982 家族制度의 特性과 그 實態, 北韓, 5月號, 北韓
연구소

김영모·강숙자

1984 “韓國의 家族構造에 관한 研究”, 社會政策研究,
5輯, 韓國福祉政策研究所

김영모·원석조·이용교·함철호

1988 “韓國靑少年政策의 課題와 새로운 方向”, 社會政策
研究, 10輯, 韓國福祉政策研究所

김영모·원석조·최현숙

1985 韓國靑少年研究, 韓國福祉政策研究所

김영희

1988 “北韓의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 全北大學校 大學
院 政治學科 博士學位 請求論文

김학준외 7人

1987 南北의 生活像, 博英社

김형찬

1988 北韓教育發達史, 한백사

남인숙

- 1990 “北韓의 思想教育：發達課程과 展望”，北韓의 政治
理念，主體思想，慶南大 極東問題研究所

도홍렬

- 1974 北韓의 젊은世帶，北韓，11月號，北韓研究所
1982 北韓靑少年의 社會化實態，北韓研究所
1990 “90年代 北韓社會는 變化할 것인가”，東亞日報，
3月1日字

東亞日報

- 1990 “北韓의 보통인생”，1月1日字

박헌옥

- 1989 “轉換期 맞은 北韓研究의 새로운 시각”，北韓，
2月號，北韓研究所

변진홍

- 1982 北韓靑少年과 人間改造 實態，北韓，6月初，北韓
研究所

北韓研究所

- 1977 北韓教育論，北韓研究所
1982 北韓靑少年의 社會化實態，北韓研究所

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所

1985 靑少年 意識構造 調查研究, 서울대학교出版部

양춘 · 박상태 · 석현호

1989 社會學概論, 진성사

양재인 外

1990 北韓의 政治理念 : 主體思想, 慶南대학교 極東問題研究所

양춘

1984 靑少年問題와 老人問題, 정응사

원석조

1984 “韓國人の 家族觀에 관한 研究”, 社會政策研究,
5輯, 韓國福祉政策研究所

이병혁

1988 北韓社會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國土統一院

이온죽

1989 北韓社會研究 : 社會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出版部

이철위

1984 靑少年的 社會化와 環境的要因, 靑年研究, 7輯,
유네스코韓國委員會

진원중 · 도흥렬 · 고영복

1978 北韓의 靑少年 社會化政策, 國土統一院

靑少年育成委員會

1989 靑少年白書, 靑少年育成委員會

體育部

1990 靑少年育成 10 個年計劃作成指針(案), 體育部

韓國教育開發院

1987 平生教育的 觀點에서 본 學校教育體制 發展戰略, 韓國
教育開發院

홍응선

1989 韓國教育이 추구하는 人間特性,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황정규 · 안귀덕 · 이종각 · 이장호

1989 韓國人の 靑少年期 社會化過程 研究,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Lee, Mun Woong

1975 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 A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Dept. of Anthropology,
Rice University, Ph. D. Thesis

Ministry of Education

1988 Education in Korea 1987-1988, Ministry of
Education

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평가

1990년 12월 20 일 인쇄

1990년 12월 31 일 발행

발행처 : 통일원 조사연구실

(제4연구관실)

TEL : 720-2144

발간 및 간행책임 : 보좌관 서성우

인쇄소 : 범 신 사
